최종보고서

사 업 명	해외 전승 무형문화유산 학술조사연구 사업

2012. 12. 20.

한국외대 연구산학협력단(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사]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 명칭
2. 사업 기간
3. 사업 수행기관
4. 사업 목적
5. 사업 수행 주요 과정

Ⅱ. 사업수행범위(내용)

Ⅲ. 사업추진체계
1. 총괄추진체계
2. 업무분장
3. 참여인력총괄표

Ⅳ. 현지 실태조사 개요
1. 출장 기간
2. 출장 지역
3. 출장 인원
4. 국가별 인터뷰구술자 목록(총79명)
5. 무형문화유산 전승실태(7개 분야)

Ⅴ. 결과물 수량(영상,사진,음성,문서,실물 등)
1. 결과물 수량
2. 유형별 형태

Ⅵ. 현장실태조사카드(자료조사카드) 및 메타데이터
1. 기록지 항목수 및 작업공정률
2. 현장실태조사카드(자료조사카드)
3. 메타데이터

Ⅶ. 각 국가별 무형문화유산 보호조치(관련법규,목록작성,재정지원 등)

Ⅷ. 기타 부록(학술회의 관련 언론보도기사)

Ⅰ. 사업개요

1. 사업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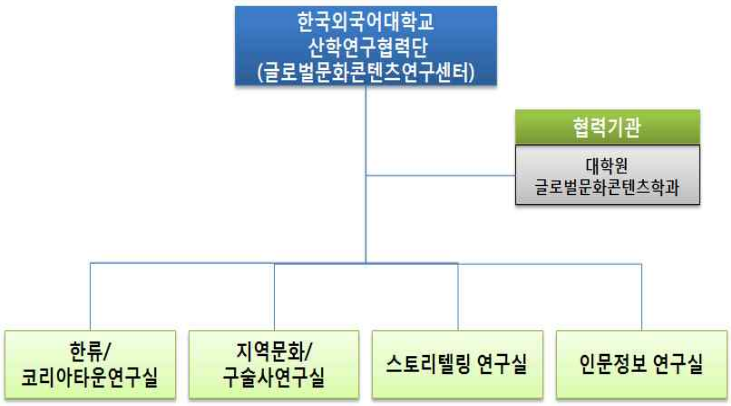
▣ 해외 전승 무형문화유산 학술조사연구 사업

2. 사업 기간

▣ 2012년 6월 12일 ~ 2012년 12월 20일

3. 사업 수행기관

▣ 주관사업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 참여사업기관 – (사)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

4. 사업 목적

▣ 세계적으로 유네스코 차원의 무형문화유산 보존조치를 통해 점차 국가와 민족을 아우르는 공동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

▣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의 주요 고려인 집거지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실태를 파악하고, 전승현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목록화하고 수집·관리.

5. 사업 수행 주요 과정

▣ 06월 12일 – 사업 계약 및 사업수행 시작

▣ 09월 07일 – 현지조사 약식 보고 및 사후 일정 논의

▣ 10월 18일 – 중간보고회 및 중간보고서 제출(학술회의 일정 및 발표내용 조율)

▣ 11월 16일 – 학술회의(CIS 고려인 공동체 무형유산 전승실태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

– 언론 보도자료 배포(1955년 북한예술단 알마타 공연영상[안성희–장고춤, 왕수복–아리랑, 나숙희–장검무 등] 및 1974년 고려극장 공연영상[“아리랑가무단”] 공개)

▣ 12월 20일 – 최종보고 및 사업 종료

Ⅱ. 사업수행범위(내용)

<table>
<tr><th>범위</th><th>관련 내용</th></tr>
<tr><td>시기</td><td>[1860년대 초 ~ 현재]
한인(고려인)의 러시아 이주가 시작되는 186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td></tr>
<tr><td>지역</td><td>[독립국가연합(CIS)]
■ 독립국가연합은 1991년 소련방 붕괴 이후 소련방을 구성하고 있던 구성국가들을 중심으로 재결성되어 출범된 독립국가들의 연합체(발트 3국 제외)
■ 본 사업은 독립국가연합 내에서 가장 많은 고려인 집거지들이 형성되어 있는 중앙아시아 3개국(1-우즈베키스탄, 2-카자흐스탄, 3-키르기즈스탄)과 러시아 2개 지역(4-연해주, 5-사할린주)을 중심으로 수행</td></tr>
<tr><td>과업 내용</td><td>[주요 과업내용]

1) 러시아(사할린주/연해주) 및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의 무형문화산 전승실태 및 목록작성
■ 국가지정, 관리대상 및 비지정 무형유산 모두를 대상으로 함
■ 무형문화유산 범위와 목록작성의 기준(유네스코 지정 무형문화유산 개념 및 7개 범주를 기준으로 함)

<table>
<tr><th>무형문화유산의 범주 및 분류</th><th>무형문화유산의 목록작성 항목</th></tr>
<tr><td>‣ 전통적 공연예술(1분야)
‣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2분야)
‣ 의학(민간요법),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3분야)
‣ 구전 전통 및 표현(4분야)
‣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5분야)
‣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6분야)
‣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7분야)</td><td>‣ 무형문화유산의 명칭
‣ 무형문화유산의 범주 및 분류
‣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공동체(개인포함)
‣ 무형문화유산의 정의 및 개념
‣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실연 내용
‣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계보
‣ 무형문화유산의 사회적 기능
‣ 그밖에 목록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사항</td></tr>
</table>

2) 무형문화유산 관련 문헌 및 영상·음향자료 수집분석

<table>
<tr><td>텍스트 자료</td><td>보고서, 문서, 홍보책자, 논문, 전자화된 파일 등</td></tr>
<tr><td>사진 자료</td><td>인화용 사진, 슬라이드 필름, 이미지 파일 등</td></tr>
<tr><td>음성 자료</td><td>레코드테이프, LP, CD 등</td></tr>
<tr><td>동영상 자료</td><td>비디오테이프, 방송용테이프, 영화필름, DVD 등</td></tr>
</table>
■ 수집된 모든 자료는 원본자료 납품이 원칙. 다만, 원본납품이 불가능할 경우에 스캔·디지털화 등 전자화된 파일(PDF)로 전환하여 하드디스크로 납품
■ 사진·음성·동영상 자료의 경우는 원본과 함께 디지털로 전환하고, 메타정보를 작성</td></tr>
</table>

하여 하드디스크로 납품

■ 메타데이터 정보의 작성서식은 다음과 같음

*	관리번호	분류체계에 따른 관리번호
*	제목	영상/사진에 수록된 무형문화유산명
*	부제목	제목으로 불충분한 경우 부제목
*	촬영자	영상/사진기록 촬영자
*	촬영일자	영상/사진기록 촬영일자
*	촬영장소	영상/사진기록 촬영장소
	상영시간	영상기록 상영시간
	제작방식	영상/사진기록 제작방식(방송용, 개인창작물 등)
*	등장인물	영상/사진기록 기록대상자(전승자 이름)
*	촬영내용	영상/사진기록 내용에 대한 설명
	수록매체	영상/사진기록 매체(테이프, DVD, CD 등)
	파일형식	영상/사진기록 파일형식
	크기	화면크기 및 이미지크기
*	분류	무형문화유산의 범위와 분류
*	저작권	영상/사진기록의 저작권자

3)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보호조치는 아래의 사항을 기준하여 작성·수록

■ 무형문화유산 보호 법규정

■ 무형문화유산 종목지정 및 목록작성 절차

■ 무형문화유산 전승자 인정 및 양성제도(인정 및 절차)

■ 무형문화유산 전승지원제도(전승지원금, 행사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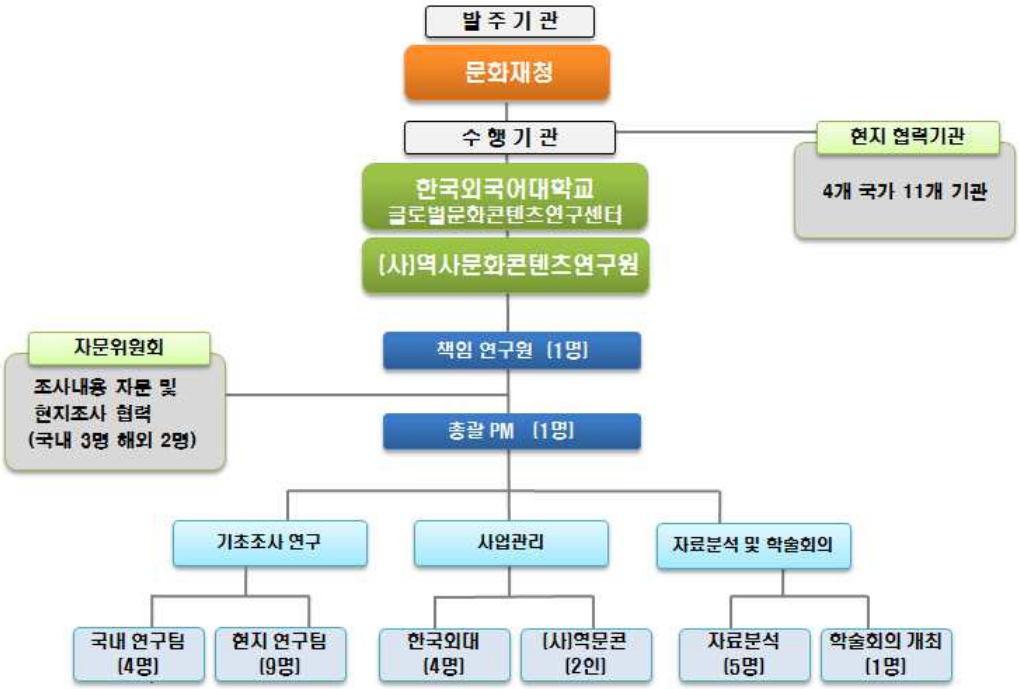
■ 기타 보호조치와 관련한 사항

4) 학술대회 개최

■ 해외현지조사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되, 그 내용에는 학술적 성과와 함께 해외 전승 무형문화유산의 보전진흥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도 포함하여 진행

Ⅲ. 사업추진체계

1. 총괄추진체계



2. 업무분장

분 담 내 용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		
	소 속	직위	성 명	소 속	직위	성 명
사업 전체 총괄	글로벌문화콘텐츠 연구센터	센터장	임영상	글로벌문화콘텐츠 연구센터	연구 보조원	조민홍
사업 전체 진행 PM/ 현지조사,자문회의, 예산수립	글로벌문화콘텐츠 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이병조			
무형문화유산 조사자료분석	역사문화콘텐츠 연구원(대전보건대)	이사 교수	석대권	역사문화콘텐츠 연구원	연구 보조원	김선혜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 (한국문화조사연구소)	소장	김봉진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 (단국대동양학연구원)	연구교수	서종원			
		연구조교수	이영수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	연구원	윤유석			
러시아 무형문화유산 조사연구 (문헌조사, 현지조사) 연해주 및 사할린주	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충북대)	초빙교수	안상경	글로벌문화콘텐츠 연구센터 (전 용정문화관)	객원 연구원	리광평 (촬영)
	극동국립대학교	학과장	박크세니아			
	사할린대학교	교수	박승의			
	사할린국립대학교	박사수료	진율리야			

카자흐스탄 무형문화유산 조사연구 (문헌조사, 현지조사)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강현모	글로벌문화콘텐츠 연구센터	연구 보조원	송예카테리나(영상물 정리)/ 박병은(영상물 편집)
	알-파라비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한국학센터	센터장	김게르만			
	알-파라비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부학부장	염나탈리아			
우즈베키스탄 무형문화유산 조사연구 (문헌조사, 현지조사)	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충북대)	초빙교수	안상경	글로벌문화콘텐츠 연구센터	연구 보조원	송예카테리나(영상물 정리)/ 박병은(영상물 편집)
	제33호 초중등학교	교사	황나제즈다			
	타쉬켄트 동방학대학교 한국어학과	전임강사	김올가			
키르기즈스탄 무형문화유산 조사연구 (문헌조사, 현지조사)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강현모	글로벌문화콘텐츠 연구센터	연구 보조원	송예카테리나(영상물 정리)/ 박병은(영상물 편집)
	알-파라비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한국학센터	센터장	김게르만			
	비쉬케크 한국교육원	교사	김갈리나			
과제관리/ 자료집 발간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	원장	이성학	역사문화콘텐츠 연구원	연구 보조원	김선혜
학술행사 개최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 (경기문화재단)	이사 (문화협력 실장)	강진갑			
무형문화유산 내용 자문 (자문위원)	동국대학교	연구교수	허용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진원			
	한서대학교	교수	장경희			
	인류·고고학역사연구소 (블라디보스톡)	수석연구원	가이킨 빅토르			
	우즈베키스탄 국립역사박물관	박물관장	이스마일로바 잔나트			

※ 위의 명단은 각 주요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중심[핵심] 인력임

3. 참여인력총괄표

구분	성명	직위	주요경력(경력기간)	학위 및 자격사항	비고
연구 책임자	임영상	교수/ 학회장/ 센터장	한국외대 교수(32년) 재외한인학회장(1년) 한국외대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8년)	문학박사 (러시아사)	연구책임자 (현지조사:러시아)
연구원	이병조	강사/ 연구원	한국외대 강사, 역사문화연구소(9년) 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3년)	문학박사 (러시아/CIS한인사)	사업 총괄PM (현지조사:전 지역)
연구원	안상경	초빙교수/ 강사	충북대 충북대,세명대,충주대(12년)	문학박사(민속학) 문화콘텐츠학박사	공동연구원 (현지조사: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연구원	강현모	강사/ 연구원	한양대,한남대,용인대(24년)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	문학박사 (고전문학, 민속학)	공동연구원 (현지조사: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구분	성명	직위	주요경력(경력기간)	학위 및 자격사항	비고
현지 연구원	김게르만	교수/ 센터장	알-파라비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한국학센터	박사 (역사학)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현지 연구원	박승의	교수	사할린대학교	박사 (러시아/CIS한인사)	러시아 사할린주
현지 연구원	박크세 니아	선임강사/ 학과장	극동국립대학교(9년)	박사 (한국문학)	러시아 연해주
현지 연구원	진율리아	teacher	Russian school “Russkiy dom”	박사수료(사할린국립대)/석사과정(고대 사할린 한인사)	러시아 사할린주
현지 연구원	김올가	전임 강사	타쉬켄트 동방학대학교 한국어학과(14년)	박사	우즈베키스탄
현지 연구원	황나제 즈다	교사	제33호 초중등학교(20년)	석사	우즈베키스탄
현지 연구원	염나탈 리아	교수/ 부학부장	al-Farabi Kazakh National University Faculty for Oriental Studies	박사	카자흐스탄
현지 연구원	김갈리나	교사	비쉬케크 한국교육원	교사	키르기즈스탄
현지 연구원	리광평	객원 연구원	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2년)/용정문화관(20년)	학사	러시아 연해주 촬영
연구원	강진갑	연구원/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실장	경기문화재단(20년)	박사 (역사학)	학술행사 주관
연구원	석대권	교수/ 전문위원/ 이사	대전보건대(14년) 문화재청전문위원(3년)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3년)	박사수료 (민속학)	조사자료 분석
연구원	김봉진	소장/ 겸임교수/ 강사	한국문화조사연구소(4년) 한성디지털대(2년) 한양대(17년)	문학박사 (국문학)	조사자료 분석
연구원	서종원	연구원/ 사업계장/ 연구교수	국립민속박물관(3년) 한국문화원연합회(2년) 단국대 동양학연구원(2년7개월)	문학박사 (고전문학, 민속학)	조사자료 분석
연구원	이영수	조교/ 연구조교수	인하대학교박물관(3년) 단국대 동양학연구원(2년)	문학박사 (국문학)	조사자료 분석
연구원	윤유석	연구원	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8년) 농촌진흥청(2년)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4년)	문화콘텐츠학박사	조사자료 분석
연구 보조원	조민홍	연구 보조원	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8개월)	석사과정 (문화콘텐츠학)	사업전체 총괄 보조
연구 보조원	송예카 테리나	보조원	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2개월)	경희대무역학과 (재학중)	고려인 영상물 정리
연구 보조원	박병은	연구보조원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	문화콘텐츠학석사	고려인 영상물 편집
연구 보조원	김선혜	연구보조원/ 프로젝트 연구원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	문화콘텐츠학석사	사업관리, 학술행사

Ⅳ. 현지 실태조사 개요

1. 출장 기간

1) 1차 현지조사: 2012년 07월 11일 ~ 2012년 08월 31일(중앙아시아; 3개국)
2) 2차 현지조사: 2012년 08월 06일 ~ 2012년 08월 14일(러시아; 2개 주)

2. 출장 지역

1)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러시아

2) 국가별 현지조사 지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러시아	
			연해주	사할린주
타쉬켄트	알마타	비쉬케크	우수리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타쉬켄트주 콜호즈들: <김병화> <시온고> <북쪽등대> <폴릿닫젤>	우쉬토베(탈드이쿠르간주)	카라발타(비쉬케크 근교)	아르쵬	시네고르스크
	박박트이(알마타주)			
	우쉬토베 근교 콜호즈들: <레닌의길>, <달성>, <원동>, <연해주사람>, <모프르>		파르티잔스크	

3. 출장 인원(총 4명)

1) 우즈베키스탄(2명): 안상경(연구원), 이병조(총괄P.M.)

2) 카자흐스탄(2명): 강현모(연구원), 이병조(총괄P.M.)

3) 키르기즈스탄(2명): 강현모(연구원), 이병조(총괄P.M.)

4) 러시아(3명): 임영상(연구책임자), 안상경(연구원), 이병조(총괄P.M.)

4. 국가별 인터뷰구술자 목록(총79명)

성명	출생 년도	성별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우즈베키스탄(18명)				
한나제즈다	1930.10.08	여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주, 북쪽등대콜호즈	99897 741-08-67
허필립	1948.04.25	남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주, 북쪽등대콜호즈	99890 921-38-66
김일리야	1948.09.25	남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주, 북쪽등대콜호즈	99890 941-41-99
김게오르기	1943.02.18	남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주, 북쪽등대콜호(타쉬켄트주, 우르타-치르칙지구, 두스틀릭, 거리3, 130번지)	99897 404-56-03
박마르타	1944.02.15	여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주, 북쪽등대콜호즈	99897 440-40-16
안블라디미르	1929.12.25	남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9 9 8 7 1 273-31-13(995-67-84)
최알렉산드라	1928.	여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중심로4, 21-39호	99871 233-75-58
허세르게이	1925.	남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중심로4, 21-39호	99871 233-75-58
김니콜라이	1930.11.24	남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주, 김병화콜호즈	
장엠밀리야	1940.08.12	여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주, 김병화콜호즈	178-68-50, 749-28-30
황류드밀라	1942.11.13	여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주, 시온고콜호즈, 셀코비치나야거리35	99890 918-55-36
서알료나	1974.04.11	여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주, 시온고콜호즈	300-74-98
김비탈리	1937.06.18	남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주, 시온고콜호즈	
최아나스타샤	1938.10.03	여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주, 시온고콜호즈	99890 906-35-41
남보리스	1941.08.09	남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주, 북쪽등대콜호즈	99898 366-08-41
허일	1931.05.25	남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주, 폴릿닫젤콜호즈(유코리-치르칙지구, 우치뗄스카야5b)	99890 956-99-18
황안드레이	1937.08.23	남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주, 폴릿닫젤콜호즈, 노바야43)	99890 319-62-44
김아샤	1947.	여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주, 폴릿닫젤콜호즈	
카자흐스탄(20명)				
김프리드리흐	1930.	남	카자흐스탄, 알마타	
박이반	1930.	남	카자흐스탄, 알마타	
김게르만	1953.7.16	남	카자흐스탄, 알마타	
정류드밀라	1936.	여	카자흐스탄, 우쉬토베(알마타주, 카라탈지구, 보스톡콜호즈(에스켈드이마을), 알트인사린거리 3-1호)	8-728-34-26-341
김안나	1952.10.30	여	카자흐스탄, 우쉬토베(알마타주, 카라탈지구, 보스톡콜호즈(에스켈드이마을), 인테르나치아날나야5)	262-86
박갈리나	1937.03.12	여	카자흐스탄, 우쉬토베(알마타주, 카라탈지구, 졸바르이스 바트이르79)	225-17
김소피야	1935.01.15	여	카자흐스탄, 우쉬토베(알마타주, 카라탈지구, 노바야거리9/2)	263-73
인발렌티나	1944.02.21	여	카자흐스탄, 우쉬토베(알마타주, 카라탈지구, 바이사코프12)	8-728-34-219-95, 8-701-739-85-19
김엘레나	1937.04.04	여	카자흐스탄, 우쉬토베(알마타주, 카라탈지구,	261-08

			보스톡콜호즈(에스켈드이마을), 노가이바예프4)	
김엘리자베타	1956.08.15	여	카자흐스탄, 우쉬토베(알마타주, 카라탈지구, 도스티쉐니예콜호즈(도스티쉐니예마을), 노바야거리4/2	340-70
박니콜라이	1935.02.07	남	카자흐스탄, 우쉬토베(알마타주, 카라탈지구, 우쉬토베, 빌랑스18)	214-44
천미하일	1925.04.10	남	카자흐스탄, 알마타주, 우쉬토베	215-04
박타티아나	1931.03.05	여	카자흐스탄, 알마타주, 우쉬토베	215-04
임로자	1926.08.06	여	카자흐스탄, 알마타, 바이투르스이노프12-6호	233-81-95
양류드밀라	1957.11.11	여	카자흐스탄, 알마타, 야키르아21	8-777-249-92-44
양류보프	1965.04.29	여	카자흐스탄, 알마타, 야키르아21	8-705-877-34-57
김레오니드	1937.	남	카자흐스탄, 박박트이(알마타주, 발하쉬지구, 박박트이, 다몰라크-에네거리29)	
유알렉산드라	1932.07.21	여	카자흐스탄, 박박트이(알마타주, 발하쉬지구, 박박트이, 다몰라크-에네거리14)	995-34
김베라	1933.09.14	여	카자흐스탄, 박박트이(알마타주, 발하쉬지구, 박박트이, '황'거리11)	993-91
최아리타	1942.07.14	여	카자흐스탄, 알마타, 미크로라이온"알마굴", 49-32호	7-705-168-78-91, 396-02-75
키르기즈스탄(12명)				
나발렌틴	1934.08.28	남	키르기즈스탄, 비쉬케크, 드촬-아르티스거리 12-107호	24-01-29
김로자	1929.05.25	여	키르기즈스탄, 비쉬케크, 미크로라이온8, 30-91호	51-18-53, 0551-50-64-30
강타티아나(강옥순)	1923.	여	키르기즈스탄, 비쉬케크	35-07-46
강엘레나	1936.	여	키르기즈스탄, 비쉬케크	21-42-80
손안나(아냐)	1939.06.06	여	키르기즈스탄, 카라발타 (추 주(州), 카라발타, 좌일스키지구, 푸쉬킨거리 9-28호)	4-18-42
박플로라	1943.12.07	여	키르기즈스탄, 카라발타 (추 주(州), 카라발타, 좌일스키지구, 푸쉬킨거리 8-37호)	4-16-29
전(김)류보프	1941.04.14	여	키르기즈스탄, 카라발타 (추 주(州), 카라발타, 좌일스키지구, 푸쉬킨거리 11-2호)	3-32-12
박티모페이	1936.10.01	남	키르기즈스탄, 카라발타 (추 주(州), 카라발타, 좌일스키지구, 푸쉬킨거리 9-28호)	4-18-47, 0555-249-829
이빅토르	1935.06.23	남	키르기즈스탄, 카라발타 (추 주(州), 카라발타, 좌일스키지구, 칽마르크스거리 50번지)	4-22-99
김블라디미르	1929.10.28	남	키르기즈스탄, 비쉬케크, 미크로라이온 보스톡 5, 2/2-86호	53-44-12
고소피야(소냐)	1935.08.04	여	키르기즈스탄, 비쉬케크, 미크로라이온 보스톡 5, 2/2-86호	53-44-12
김엘리자베타	1937.03.21	여	키르기즈스탄, 비쉬케크, 유이르소프, 156번지	39-07-06
러시아(사할린주)(10명)				
박승의	1942.02.26	남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로드니코바야거리2(영주귀국-파주)	8-914-752-2001
김소자	1945.05.17	여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로드니코바야거리2(영주귀국-파주)	8-914-752-2001
장순애	1945.05.23	여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안가르스키1/b-8호	774-321
전상주	1933.01.26	남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쿠릴스카야3-8호(영주귀국-김포)	40-59-03
허남훈	1936.04.03	남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영주귀국-김포)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주공APT 107동	010-2573-4634

			705호	
우영자	1925.06.17	여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승리3주년거리3a-2호	8-914-741-3205
김원배	1939.08.11	남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하바로프스카야2-9호	43-31-79
정양규	1922.09.19	남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제2피오네르스카야거리38-42호	79-99-19
방춘자	1928.07.24	여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제2피오네르스카야거리38-42호	79-99-19
김윤덕	1925.07.07	남	러시아, 사할린주, 시네고르스크, 유쥬나야3	23-98-82, 44-63-89
러시아(연해주)(19명)				
김타티아나	1945.	여	러시아, 연해주, 아르촘	914-689-4720
유엘라	1943.03.12	여	러시아, 연해주, 아르촘, 코롤렌코8	4-62-50, 8-902-523-75-12
김알라	1949.07.18	여	러시아, 연해주, 아르촘, 보로쉴로프거리23-84호	3-75-91, 8-924-134-18-26
문라이사	1947.04.17	여	러시아, 연해주, 아르촘, 프룬제48-66호	8-924-075-73-04
김타티아나(김순애)	1931.02.06	여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볼로다르스코보거리41-35호	32-16-66
김마리야	1931.10.20	여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시비르체프거리29-2호	37-56-02
최나제즈다	1933.04.11	여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네크라소프거리49-2호	32-84-93
허스베틀라나	1936.06.09	여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프롤레타르스카야거리155	8-914-073-19-22
나·강스베틀라나	1939.09.12	여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로코모티브나야거리14-37호	8-914-971-77-59
이류드밀라	1949.09.29	여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사도바야거리12a-22호	8-914-127-40-49
윤스타니슬라프	1937.08.29	남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크라스노아르메이스카야거리147-82호	8-914-711-04-38, 33-58-65
조하리톤(조국세)	1930.09.08	남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소베트스카야거리76-57	32-86-87
김알렉산드르	1931.12.30	남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두보바야 로샤15a	8-924-434-41-27
김연자	1942.03.11	여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치체린141-1호	8-914-665-53-42
텐엘레나	1949.01.28	여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하바로프스카야거리16	
고표도르	1943.01.28	남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하바로프스카야거리16	
안엘레나	1947.01.21	여	러시아, 연해주, 파르티잔스크	908-449-4161
윤소피야	1941.10.20	여	러시아, 연해주, 파르티잔스크, 바킨스카야40	914-667-8670
이스베틀라나	1955.11.28	여	러시아, 연해주, 파르티잔스크	
총 79명				

5. 무형문화유산 전승실태(7개 분야)

① [1분야]전통적 공연예술(연행)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조사일	조사지역	주요조사목록및내용
1분야	음악 무용 연희 놀이 의식		7.12	북쪽등대콜호즈	그룹파(그룹,동아리,단체)활동, 소연극
			7.13	타쉬켄트	바호레(동아리활동)
			7.13	김병화콜호즈	구락부(춤모임)
			7.15	시온고콜호즈	그룹파활동,사물놀이(2006년부터활동)

	무예		7.16	폴릿닫젤콜호즈	<청춘>앙상블
			7.21	우쉬토베 및 주변 콜호즈들	<도라지>가무단,영화배우단,연극단
			7.27	비쉬케크	예술극단(고려극장예술단)(심청전,흥부전공연)
			8.6	유즈노사할린스크	예술극단,사할린고려악단
			8.10	아르춈	<칠성>가무단(1996년부터)
			8.11	우수리스크	<아리랑>가무단(1993년경부터활동),노인단내2개가무단:<모란봉>(현재'고려'로불림),<조선노래>(2008년경부터활동)

▣ 파악된 내용물들이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는 이후 관련 전문가 집단과의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음. 물론 이 과정에서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역사문화적인 특수성은 고려되어 범주와 의미부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소규모 예술단체들, 즉 '소인예술단' 활동은 주로 1960-70년대 소비에트 시기를 거치는 동안 고려인 콜호즈들에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이러한 소규모 예술활동의 탄생과 지속적인 활동이 있기까지는 1931년 극동에서 조직되어 카자흐스탄에 중심을 두고 활동했던 <고려극장>과 순회공연단인 <아리랑가무단>의 영향이 컸음

▣ <고려극장>과 이에 소속된 <아리랑가무단>은 고전물(춘향전, 심청전, 장화홍련전, 흥부와 놀부, 이수일과심순애 등) 연극이나 민요, 춤과 무용(부채춤, 항아리춤, 칼춤, 궁중무 등)을 통해서 고려인공동체를 위로하고, 중앙아시아 전역을 도는 순회공연을 통해서 예술적 혼을 계승해 나갔음

▣ 현재도 소비에트 시기처럼 고려인 집거지 어디를 가던 긍지와 자부심 속에서 한민족 특유의 가락과 소리, 흥이 배어있는 크고 작은 소인예술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음(가령, 연해주 우수리스크의 <아리랑>, <고려>, <조선노래>가무단, 아르춈의 <칠성>가무단)

② [2분야]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조사일	조사지역	주요조사목록및내용
2분야	도자공예 금속공예 목칠공예 섬유공예 피모공예 지공예 석공예 기타(화문석 등)		7.16	폴릿닫젤콜호즈	삿갓
			7.27	비쉬케크	새끼꼬기, 가마니짜기

▣ '[2분야]는 고려인 무형문화유산 범주에서 가장 빈약한 분야. 중분류에서 언급되고 있는 도자, 금속, 목칠, 섬유 등의 공예분야는 오늘날 독립국가연합 고려인 집거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들고, 그 전승 흔적을 추적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음

▣ 물론 이주 초기에 어디에선가 누군가에 의해서 맥이 이어져 나갔을 개연성도 없지 않으나 20세기 초까지 대부분의 고려인 이주자들이 농민들이고, 농업이주가 지배적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그 가능성은 더욱 희박

▣ 현지조사 기간 동안 모든 구술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질문을 던져보았으나 전승상황이나 흔적을 추적해 볼 만한 단서를 얻는데 실패. 다만 고려인들이 대나무 재질의 삿갓을 제작할

줄 알고, 농촌지역에서는 자주 쓰고 다니는 것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직접 확인했음

③ [3분야]의학[민간요법],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조사일	조사지역	주요조사목록및내용
3분야	의학(민간요법)	식물요법	구절초,도라지,쑥,양귀비,칡 등	7.13	타쉬켄트	모기예방(쑥),혈압조절(홍새미)
				7.13	김병화콜호즈	냉치료(익모초)
				8.6	유즈노사할린스크	배앓이치료(쑥)
				8.10	아르쵬	배앓이치료(쑥)
		동물요법	가물치,가재,개,두꺼비 등			
		광물요법	백반,소금,유황 등	7.13	타쉬켄트	설사치료(가마솥검댕이)
				7.22	우쉬토베	침술
		주술요법	눈병,마마,홍역 등에걸렸을때	7.12	북쪽등대콜호즈	치병주술(방토),배앓이치료
				7.13	타쉬켄트	눈병치료
				7.13	김병화콜호즈	눈병치료
	농업	경작	경작방법	7.13	김병화콜호즈	벼농사경작방법(수로 등),깨나프루부(삼)경작방법
				7.16	북쪽등대콜호즈	목화재배방법
				7.22	우쉬토베	벼농사,품종개발(박클리(박&이),자랴,오프이트느이,우로좌이)
				8.7	유즈노사할린스크	감자,양배추경작방법(온실)
		농경속	농경관련 속신	7.15	시온고콜호즈	풍농기원의식
				8.11	우수리스크	농사기원제
		재래농기구	가는연장,삶는연장,씨뿌리는도구,거름주는도구,매는연장,물대는도구,거두는도구 등	7.12	북쪽등대콜호즈	디딜방아,맷돌,농기구들(낫,호미,쇠스랑,극게)
				7.21-22	우쉬토베	농기구(낫,호미,쇠스랑,극게),체,키
				7.24	박박트이	농기구(낫,호미,쇠스랑),체,키,디딜방아
				8.8	시네고르스크	절구/절구통,맷돌,되
				8.9	유즈노사할린스크	키,되
				8.13	파르티잔스크	디딜방아,맷돌,체,키,도리깨
	사냥·채집	사냥의례				
		채집		7.24	박박트이	사냥(덧,새총,활물춰)
	어업	어업의례				
		채집		7.16	북쪽등대콜호즈	민물낚시
	축산업	가축				
		양봉/양잠		7.16	폴릿닫젤콜호즈	양봉
		축산도구				

▣ 지역을 막론하고 부분적이지만 의학(민간요법) 부분에서도 전통이 유지. 민간요법 중에서는 쑥이나 익모초를 통한 요법들이 가장 널리 전승되고 있는데(특히 배앓이 치료), 이는 중앙아시아나 러시아에서도 동일하게 확인. 또 눈병 치료도 널리 전승되고 있었는데, 특이한 것

은 한국에서도 흔적만 발견할 수 있는 요법인 방토라는 치병주술이 전승되고 있었음

▣ 어느 마을이나 가정에서든지 전통적인 형태의 각종 농기구들(호미, 삽, 고무래, 쇠스랑 등)이나 을 흔히 볼 수 있었고, 특히 디딜방아, 키, 체, 도리깨, 떡메와 떡구시 등의 유형의 문화유산들도 확인

▣ [3분야]에서 특별히 주목할 분야 중의 하나로 벼농사가 있음. 현재 고려인의 벼재배 전통은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일부 지역들(카라칼팍스탄자치공화국, 호레즘, 우쉬토베 등지)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이어져 오고 있음. 최초의 벼농사가 이루어졌던 박박트이 지역보다도 우쉬토베에서 체계적인 벼재배 전통이 이어져오고 있었음

④ [4분야]구전전통 및 표현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조사일	조사지역	주요조사목록및내용
4분야	설화	신화	창세신화, 건국신화, 씨족신화 등	8.10	아르츔	단군신화(현대전래,학습)
		전설	지명전설, 암석전설, 고목전설 등			
		민담	재미있는 이야기들	7.20 /23	알마타	봉이김선달,아리랑의유래,가죽침을놓은사람,어린신랑의 기지,게에게그곳을물린여자,부와용녀,달래강전설,아버지와셋째딸,건망증이심한사람,간나새끼,내밥먹고남의씹한다,밤마다곧뻗은사람들어와못나온아이,꼬마신랑의재치,오줌싸면소금얻어와라,효불교다리,결혼식의방식,저승갔다온이야기,호랑이와싸운시아버지,개만도못하다의유래,고려장이없어진유래,꾀꼬리높이날지못한다
				7.21	우쉬토베	고려장이없어진유래,어머니가본귀신,택시를타고온귀신,귀락이새기없어(상사뱀),도깨비정체
				7.24	박박트이	귀신불(벼락불),호랑이와싸운사람,어린신랑의기지,방귀소동,아기장수,고려장이없어진유래,동삼동자,묘지를잘못아들의무덤,저승갔다온사람,묻어온귀신(실화),귀신소리들은소금장수,흥부와놀부,춘향전,심청전
				7.27 /28	비쉬케크	고려장이없어진유래1,2,배나무로찾은아들,내덕에산다,홍범도,늑대와말의싸움,호랑이를물리친성냥,흥부전,계모담,귀신에붙은사람에서방축한일화
				7.29	카라발타	우시(양가선물주고받기)가없어진유래,바보신랑,자린고비,총을잘쏜홍범도,바다물을팔아먹은김삿갓,공작새를살린며느리,춘향전,소금장수와혼령
				8.6	유즈노사할린스크	떡하나주면안잡아먹지,한석봉이야기,심청이,춘향이,흥부놀부
	민요	노동요	모심는소리,모찌는 소리 등	7.13	타쉬켄트	클레멘타인,황제러시아
				7.13	김병화콜호즈	씨뿌리는노래(씨뿌리기),볏단뿌리는노래(볏단뿌리기)
				7.22	우쉬토베	씨를뿌려라,농부가
				7.24	박박트이	농부가,농부의일생,추수의노래(풍년의노래)
				7.27 -28	비쉬케크	농부야,저건너로(지심매기),이농판의씨뿌리면,연자방아노래,농부의일생
				8.11	우수리스크	농부가,나의고향,목화따는처녀
		의식요	상여소리, 달구질소리 등			

		유희요	놀면서부르는노래들	7.13	타쉬켄트	수일가,강남달,아리랑,동북선,둥둥둥내사랑
				7.13	김병화콜호즈	내가입은저고리,좋은세상
				7.21/22	우쉬토베	아리랑,에헤요,자장가,창가,빨치산의노래,나이가들면(백발가),찔레꽃,5월이와,김정자의시집살이
				7.23	알마타	따뜻한봄날에,순애야,놀자타령,사랑가
				7.24	박박트이	아리랑
				7.27-28	비쉬케크	불타령,자장자장,아리랑,꽃이라고다꽃이냐,내사랑크레멘타임,장백산,남쪽나라떠나는곳,심청가
				7.29	카라발타	아리랑,농부가,나의고향,목화따는처녀,클레멘타임,정든고향원동,
				8.6	유즈노사할린스크	도라지,아리랑
				8.7	유즈노사할린스크	날좀보소,아리랑,도라지,노들강변
				8.9	유즈노사할린스크	다리세기노래
				8.10	아르춈	아리랑,도라지
				8.11	우수리스크	아리랑,에헤요,날좀보소
	무가	청배무가	바리데기,삼신풀이,이공풀이 등			
		축원무가	축원문 등			
		축사무가	옥추경,옥갑경,축사경 등			
	판소리	춘향가,심청가,흥부가등				
	속담 및 수수께끼	가는말이고와야오는말이곱다 등		7.23	알마타	시집은낳아도된다,구렁이가나가면집안이망한다
				7.24	박박트이	귀먹어삼년벙어리삼년소경삼년
				7.27/28	비쉬케크	섣달그믐날일찍자면눈썹이센다,할머니의손은약손,비었을때민들레를붙이면낫는다,개에물렸을때털을베어붙이면낫는다,벌레에물리거나벌에쏘였을때장이(된장)을붙이면낫는다,머리(골이)가깨졌을때쟁이붙이면낫는다
				7.29	카라발타	먹을게없는제사는절을9번받는다,부자집의구정물(우물물)을가져오면복을받는다,키가큰남자가들어와야좋다,여자가먼저들어오면재수가없다(호랑이날),설날에여자가들어오면병이든다,애태어난집에바로들어가면눈이나빠진다,함경도상놈강원도양반,식사는천천히먹어야한다,달걀세개먹으면아들서이낳는다

▣ [4분야]는 독립국가연합 고려인 사회에서 아직까지는 가장 뚜렷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분야이고, 여전히 고려인 노인세대에서는 구전되어 지고 있음을 확인

▣ 설화에서 신화, 전설은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민담은 조사했던 전 지역에서 다수 확인. 다만 고려인들의 출신배경이나 한반도와의 지속적인 접촉부재, 그리고 현지의 영향으로 골격은 같으나 변형된 이야기들이 적지 않게 있었음(예로, '귀신불(벼락불)'의 경우, 한국의 '혼불이야기'의 변형으로, 고려인들은 혼불이 들어오면 집안에 불행한 일이 생긴다고 믿고 있었음)

▣ 노동요의 경우는 유희요 만큼은 아니지만 적지 않게 불려지고 있었음.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것은 유희요로서 광범위하게 불리고 있었음

▣ 무가와 판소리의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속담 및 수수께끼의 경우, 한국에서 전승되고 있는 속담의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거나(예, 귀먹어 삼년 벙어리 삼년 소경 삼년), 일부는

변형된 형태로 존재해 오고 있었음. 특히 속담보다는 속신의 형태로 전승되어 오는 경우가 더 많았음(여자가 먼저 들어오면 재수가 없다(호랑이날), 설날에 여자가 들어오면 병이 든다)

▣ 우쉬토베시 노인단 산하 <도라지>가무단, 우수리스크시 노인단 산하 <고려>, <조선노래>가무단, 아르쵬시 <칠성>가무단이 혼재된 형태이기는 하나 민요부르기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음

▣ 현지 문화와 삶에 동화된 젊은 세대들은 민요나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적음. 노인단 가무단원들이 대부분 고령(70-80대)임을 감안할 때 전통단절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⑤ [5분야]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조사일	조사지역	주요조사목록및내용
5분야	의생활	방적	무명짜기,베짜기,모시짜기 등			
		바느질	바느질법	7.21	우쉬토베	버선
		염직	염료			
		복식	평상복,노동복,의례복			
		특수의상	수의 등			
		세탁·다듬이질	세탁,다듬이질			
	식생활	일상음식		7.15	시온고콜호즈	북장,오누비장,시락장물,무장물,우화,가지볶음,버섯볶음,고추볶음
				7.23	알마타	국시
				8.6	유즈노사할린스크	수제비(잡아떼기)
				8.13	파르티잔스크	고추된장볶음,두부,비지장
		별식		7.13	김병화콜호즈	토주,엿,골미떡(지름굽이,지름떡)
				7.22	우쉬토베	엿
				7.23	알마타	감주
		절식(節食)	떡국,화전,쑥떡,팥죽 등	7.13	타쉬켄트	오그레,오가지밥,쑥떡
				7.20	알마타	콩볶아먹기(2월),거자수먹기(4월),호두떡만들어먹기(5-6월)
				7.24	박박트이	오그레
				7.27	비쉬케크	콩볶아먹기(2월),오그레,두부먹기
				7.29	카라발타	오곡밥,귀밝기술
				8.7	유즈노사할린스크	떡국,물뱅세이(물만두),오곡밥,팔죽
				8.11	우수리스크	팥죽(동지죽,오그랑죽)
		의례음식	제사음식 등	7.13	김병화콜호즈	찰떡,증편
				7.15	시온고콜호즈	찰떡,증편,가주리,감주,비고제
				7.23	알마타	가주리,시루떡,골미떡(지름굽이,지름떡),찰떡,증편,순대
				8.10	아르쵬	찰떡,증편,가주리,탁주
				8.13	파르티잔스크	떡메/떡구시
		구황음식	고구마,감자 등			
		음식		7.13	김병화콜호즈	떡구시

		도구		7.15	시온고콜호즈	드로우밀까(전기바이),전기숯돌
				7.21 -22	우쉬토베	떡메/떡구시
				7.24	박박트이	떡메/떡구시
				7.27	비쉬케크	조리(복조리)
				8.6/ 7/9	유즈노사할린스크	오봉(찻쟁반),되,저울,제기,놋수저,시리바지/절구,절구통,손저울,간장통,김치통
		저장 식품	김치 등	7.13	김병화콜호즈	마쓰로(치즈)
				7.15	시온고콜호즈	김장김치,된장,고추장
				7.23	알마타	김치,양파김치,파김치,깍뚜기,물김치,고추장,된장,간장
				8.8	유즈노사할린스크	꼼뽀뜨(사과주스),바레니(쨈)
				8.10	아르츔	김치(연어,청어)
				8.13	파르티잔스크	된장,고추장,간장,김장김치,토마토절임,오이절임,양배추절임
		상차림	일상상			
			의례상			
	주생활	집안의 시설물과 설비	취사시설, 수장시설, 난방시설, 부대시설	7.13	김병화콜호즈	온돌,우물
				7.20	알마타	온돌(흙벽돌)
				7.15	시온고콜호즈	온돌,사우나,물타워,샤워실
				7.21	우쉬토베	지하저장고(포그리브)
				8.8	유스노사할린스크	사우나,지하저장소(포그리브)
				8.13	파르티잔스크	우물
		공간의 기능	취침,접객,식사,기타(화장실 등)	8.9	시네고르스크	호롱불
		가옥의 구조	재료,사용도구,구조명칭,가구,지붕			
		건축의례	집터다지기,성주봉안 등			
	세시풍속			7.12 /16	북쪽등대콜호즈	한식,단오,추석,설,대보름,한식,단오,천렵,추석
				7.15	시온고콜호즈	윤달
				7.20	알마타	설(세배),대보름,한식,단오,추석,동지(동지팥죽),윤달,복날
				7.21	우쉬토베	설,한식,단오,추석,동지
				7.24	박박트이	설,한식,단오,추석,동지
				7.27 /28/ 29	비쉬케크	설,한식,단오,추석,동지,대보름,까마귀날
				8.6/ 7	유즈노사할린스크	단오,중양절,복날,추석,설,대보름,삼짓날,동지
				8.10	아르츔	설,한식,어린이날,단오,추석
				8.11	우수리스크	설,십이지상일,대보름,한식,단오,추석,동지
				8.13	파르티잔스크	윤달

▣ [5분야] 또한 [4분야]처럼 가시적인 확인이 가장 확실한 분야. 고려인 사회에서 식생활과 명절 및 절기별 세시풍속은 다른 분야보다도 상대적으로 잘 계승.

▣ 의생활의 경우, 우쉬토베 지역에서 버선을 만들어 신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전통적인 방식의 의생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음. 수의나 물레 등 개별적으로 남아있는 유형의 문화유산물들에 대한 확인을 시도했으나 결과물을 얻는데는 실패. 다만 배냇저고리나 오래된 한복의

경우는 드물게 찾아볼 수 있었음.

▣ 식생활의 경우는 비록 식재료와 양념의 차이로 인해서, 또 현지의 영향 등으로 변형된 형태도 적지 않았으나 여전히 많은 부분이 원형의 형태를 유지. 일상음식(시락장물(된장국), 국시, 두부, 비지장), 별식(토주, 엿, 감주), 절식(節食)(오그레, 오곡밥, 쑥떡, 귀밝기술, 팥죽(오그랑죽), 의례음식(찰떡, 증편, 가주리, 감주, 베고자), 저장식품(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을 만들어 먹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음(가령, 우즈베키스탄 <시온고>콜호즈에서는 된장만들기 전통이 완벽하게 전승되어 오고 있었음)

▣ 주생활의 경우 거의 대부분 현지식 주택구조나 현대식 건물에서 생활. 하지만 농촌지역 주택의 방 한 칸 정도는 비록 변형된 형태이지만 온돌식으로 난방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음(가령, <시온고>콜호즈의 황류드밀라 집)

▣ 주생활과 관련하여, 현지조사 기간 동안에 우즈베키스탄 <김병화>콜호즈와 러시아 연해주 파르티잔스크에서 두 개의 우물을 확인. <김병화>콜호즈 내 우물은 깊이가 7m정도이고 벽은 지름 120cm정도의 둥근 석조원형틀로 만들어져 있었음. 반면 연해주 파르티잔스크의 우물은 지상 돌출부 1m정도가 둥근 석조원형틀로 처리된 것을 제외하고는 6m정도의 우물벽이 둥근 돌들을 이용하여 전통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었음

▣ 세시풍속의 경우, 명절로서 설,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등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었음. 특이한 것은 한식과 단오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명절로 인식되고 있었음. 특히 한식의 경우, 성묘를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날로써 쇠고 있었음

⑥ [6분야]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조사일	조사지역	주요조사목록및내용
6분야	마을신앙	산신제				
		서낭제				
		장승제				
		솟대제				
		기타				
	가정신앙	성주신앙		8.7	유즈노사할린스크	성주모심
				8.11	우수리스크	대들보신(성주신) 봉안
		터주신앙		7.29	카라발타	토지신앙
				8.7	유즈노사할린스크	토지님제사
		조왕신앙		8.11	우수리스크	조왕신앙
				7.20	알마타	조왕신앙
		삼신신앙		8.6	유즈노사할린스크	삼신상,삼신기도
		조상신앙		7.29	카라발타	업신앙
		기타				
	무속신앙	기복굿	재수굿등	7.16	폴릿닫젤콜호즈	하락시(점쟁이)
				7.22	우쉬토베	하락시(점쟁이)
				7.27	비쉬케크	하락시(점쟁이)
		양재굿	병굿등	8.6	유즈노사할린스크	○○굿(40-50년 전)
	속신	어떤주술적인믿음		7.13	김병화콜호즈	3색동물(복),부정물림(소금)

	앙	내지행동 등		7.15	시온고콜호즈	귀신쫓는풀(이스룩푸리),귀신쫓는천(붉은리본),이사액막이(기름냄새)
				7.20	알마타	사주점치기
				7.27	비쉬케크	제웅치기(짚인형)
				7.29	카라발타	방토
				8.6/7	유즈노사할린스크	대장군방,토정비결,귀신풀기(된장국)
				8.10	아르츔	기자속신,배냇저고리(시험),귀신물림(칼, 부적, 닭 등),제웅치기(짚인형)
				8.11	우수리스크	고양이죽음(반드시이사),흰쥐(부) 등
	일생(통과)의례	산육속		7.16	북쪽등대콜호즈	산모금기,돌
				7.20	알마타	태아금기,백일,돌,태처리법,배냇저고리
				7.21	우쉬토베	태몽,태아감별법,태아금기,돌,돌잡이(쌀3그릇,바늘,실,책,알켜(팥),연필,돈)
				7.27	비쉬케크	태몽,태처리법,출산후출입금기(한달),돌,돌잡이(쌀3그릇,바늘,실,책,알켜(팥),연필,돈)
				7.29	카라발타	태아감별법,태몽,태처리법(물에띄워버림),출산후출입금기(40일-타문화영향),돌,돌잡이
				8.6	유즈노사할린스크	태아감별법
				8.7	유즈노사할린스크	태처리,100일,돌,수유,작명
				8.10	아르츔	산모금기,수유,100일,돌,생일
		관례		7.16	북쪽등대콜호즈	성인식
		혼례		7.16	북쪽등대콜호즈	결혼식
				7.20	알마타	결혼식(맞선,사주점치기,청치,우실,결혼,거울드리기,쌀가마넘어오기,폐백,결혼상)
				7.21	우쉬토베	결혼식(청치,우실)
				7.27/28	비쉬케크	결혼식(혼새,혼샛말,맞선,청치,우실 등),임신한여자혼례상차리기
				7.29	카라발타	결혼식(청치,우시,국시먹이기)
				8.6/7	유즈노사할린스크	결혼식
				8.10/14	아르츔	결혼식,임산부결혼
		환갑,칠순		7.16	북쪽등대콜호즈	환갑,칠순
				7.20	알마타	환갑
				7.27	비쉬케크	환갑(상차림)
				7.29	카라발타	환갑(상차림)
				8.7	유즈노사할린스크	환갑,칠순,희수,미수,백수
				8.10	아르츔	환갑(참여조사)
		장례,제례		7.16	북쪽등대콜호즈	장례,제례
				7.20	알마타	장례(임종확인,혼부르기,칠성판,명정쓰기,운구,발인제,삼우제),성묘(한식,추석)
				7.21	우쉬토베	성묘(한식,추석)
				7.27	비쉬케크	성묘(한식,추석),장례(임종확인법,혼부르기,칠성널(판),명정쓰기,운구,발인제,초우제/반혼제,재우제,삼우제,기제사(1,2년),묘제(한식,추석)
				7.29	카라발타	제사
				8.6/7/8/11	유즈노사할린스크	산신제(장례 중),사망제사,장례,돌아가신날제사,3년제사
				8.13	파르티잔스크	장례,제례

▣ [6분야]의 경우, 일생의례의 돌잔치와 돌잡이, 환갑, 장례분야를 제외하고는 실제적으로 전승되지 않고 있거나 혹은 아주 약하게 전승되어 오고 있었음.

▣ 마을신앙 관련, 조사 결과 전승되거나 남아있는 유형의 문화유산은 없었고, 가정신앙의 경우도 어린 시절 듣거나 본 것 외에는 현재는 거의 전승되지 않고 있었음. 무속신앙의 경우

도 굿행위가 전승되는 곳은 없었음(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40-50년 전까지 무당굿이 전승되어 온 사실을 확인). 점치기에 대해서는 회자되고 있었는데, 이 전통은 대략 20년 전에 사라졌다고 함(우즈베키스탄 <폴릿닫젤>콜호즈에서 한 명의 하락시를 만나 확인)

▣ 속신앙의 경우, 일부 귀신 쫓는 행위는 전승되고 있었음(예, 방토). 사할린주에서는 속신앙으로서 대장군방(大將軍方) 금기가 전승되고 있는 것을 확인

▣ 일생의례의 경우는 전승되고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산육속에서, 돌잔치와 돌잡이는 변형된 부분이 있기는 여전히 전승. 혼례 부분에서, 과거에는 결혼식에서 맞선, 사주점치기, 청치, 우실, 결혼식, 거울드리기, 쌀가마넘어오기, 폐백 등의 과정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예식장이나 대형음식점에서 행함

▣ 환갑과 장례의 경우는 상당 부분 전통방식이 지켜지고 있었는데, 다만 환갑의 경우 주로 대형음식점에서 치러지고 있었음

▣ 장례·제례 의식은 사망 직후의 혼부르기부터 시작해서 칠성널(판), 명정쓰기, 운구, 발인제(사망 당일), 초우제/반혼제(장례 직후 당일), 재우제(장례 2일째), 삼우제(장례 3일째), 기제사(사망 1,2주년), 묘제(한식, 추석) 등이 일부 과정이 생략된 채 여전히 지켜져 오고 있었음

⑦ [7분야]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조사일	조사지역	주요조사목록및내용
7분야	놀이	집단놀이	지신밟기, 줄다리기 등	8.7	유즈노사할린스크	줄댕기기(들놀이 중)
		개인놀이	화투, 장기, 바둑, 고무줄놀이 등	7.13	타쉬켄트	널뛰기,그네뛰기
					김병화콜호즈	화투,카드
				7.20	알마타	화투,육구치기(윷놀이),공기놀이(설,대보름),씨름,그네뛰기,널뛰기(단오)/기타-제기차기,알치기(알차),돈치기,말타기,숨박꼭질,연날리기,자치기
				7.22	우쉬토베	사방치기,목자치기,제기차기(쟁구),팽이치기,널뛰기,육구치기(윷놀이),구양치기,돈치기(벽/원이용),쌔쌔쌔,실뜨기,숨박꼭질,수건돌리기,꼬리잡기,인간줄다리기,줄넘기,공기놀이,썰매타기
				7.27/28	비쉬케크	육구치기,나무치기,알따먹기,알칙(양무릎뼈던지기놀이),제기차기,굴기,숨박꼭질,썰매타기,썰매,연날리기,팽이치기,공기놀이,돈치기(벽/원/금이용),말타기,쌔쌔쌔,장치기,수건돌리기,실뜨기,자치기
				7.29	카라발타	연날리기,숨박꼭질,팽이치기,공기놀이,자치기,돌치기,돈치기(벽/원이용),그네타기,널뛰기,썰매,쌔쌔쌔,제기차기
				8.6/7/8	유즈노사할린스크	씨름(광복절경축생사),그네뛰기,널뛰기,눈싸움,눈으로성쌓기,윷놀이,화투,눈썰매,스키,고무줄,줄넘기,정글링,실뜨기,숨바꼭질,제기차기,동전따먹기,자치기
				8.10	아르촘	연날리기
				8.11	우수리스크	액연날리기/그네뛰기,씨름,줄다리기(단오)
	축제	고려인마을이나 협회단위로행하는축제 등		7.12	북쪽등대콜호즈	단오행사
				7.13	김병화콜호즈	추석놀이
				8.6/7/8	유즈노사할린스크	들놀이,추석·광복절경축행사
				8.11	우수리스크	단오행사
	무예	태권도,택견 등		8.14	아르촘	태권도학원

▣ 집단놀이(지신밟기, 줄다리기 등) 경우, 대륙의 고려인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러시아 사할린주에서는 들놀이(7월 셋째주 혹은 넷째주)에서 집단놀이의 한 형태로 줄다리기가 전승되고 있었음

▣ 개인놀이(화투, 장기, 바둑, 고무줄놀이 등)와 관련해서, 지금은 일부지역에서 설이나 단오 때에 제기차기, 윷놀이, 그네타기, 널뛰기 정도가 행해지고 있음. 사할린주의 한인사회에서도 그네뛰기, 널뛰기, 씨름, 연날리기, 윷놀이, 화투 등이 설과 추석·광복절행사, 단오 때에 행해지고 있었음. 단오와 추석을 일종의 축제로 여겨 축제놀이를 벌이고 있는 것은 독립국가연합 한민족만의 특징 중의 하나

Ⅴ. 결과물 수량(영상, 사진, 음성, 문서, 실물 등)

1. 최종 결과물 수량

[신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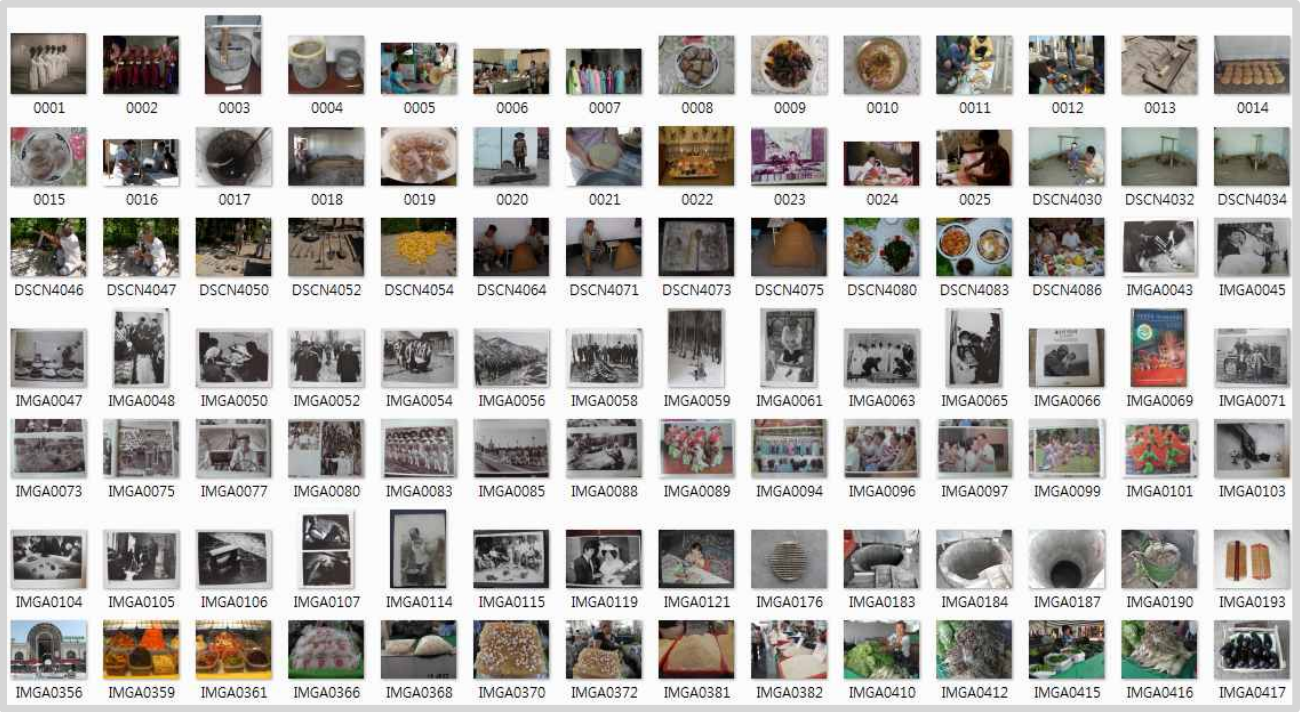
유형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러시아	
				연해주	사할린주
영상 (총3,877분)	110개 (535분)	155개 (1,317분)	70개 (714분)	64개 (687분)	85개 (624분)
사진 (총1,003장)	214개(장)	299장(장)	123개(장)	85개(장)	282개(장)
음성					
문서 (민요공책/보고서/회보·도록 등)	122개(쪽) (민요공책-3권분량)		248개(쪽) (민요공책-3권분량)		73개(쪽) (회보·도록) 1개 (신문)
실물 (CD·DVD·TAPE/보고서 등)		-민요Tape(8개) -민요공책(1권) -DVD(1개)	-신문(2부)		
합계 (총 1,931개)	446개	454개 (실물자료 제외)	441개 (실물자료 제외)	149개	441개

[기존자료]

유형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러시아	
				연해주	사할린주
영상 (총1,402분)	35개 (909분)	11개 (470분)		6개 (23분)	
사진 (총166장)	28개(장)	65개(장)		73개(장)	
음성					
문서 (민요공책/보고서/회보·도록/신문 등)	1개 (논문)	3개(쪽) (민요메모)		29개(쪽,3건) (보고서1건-실물제출) 1개 (논문)	11개(기사) 7개 (신문)
실물 (CD·DVD·TAPE/보고서 등)					
합계 (총 275개)	64개	85개		108개	1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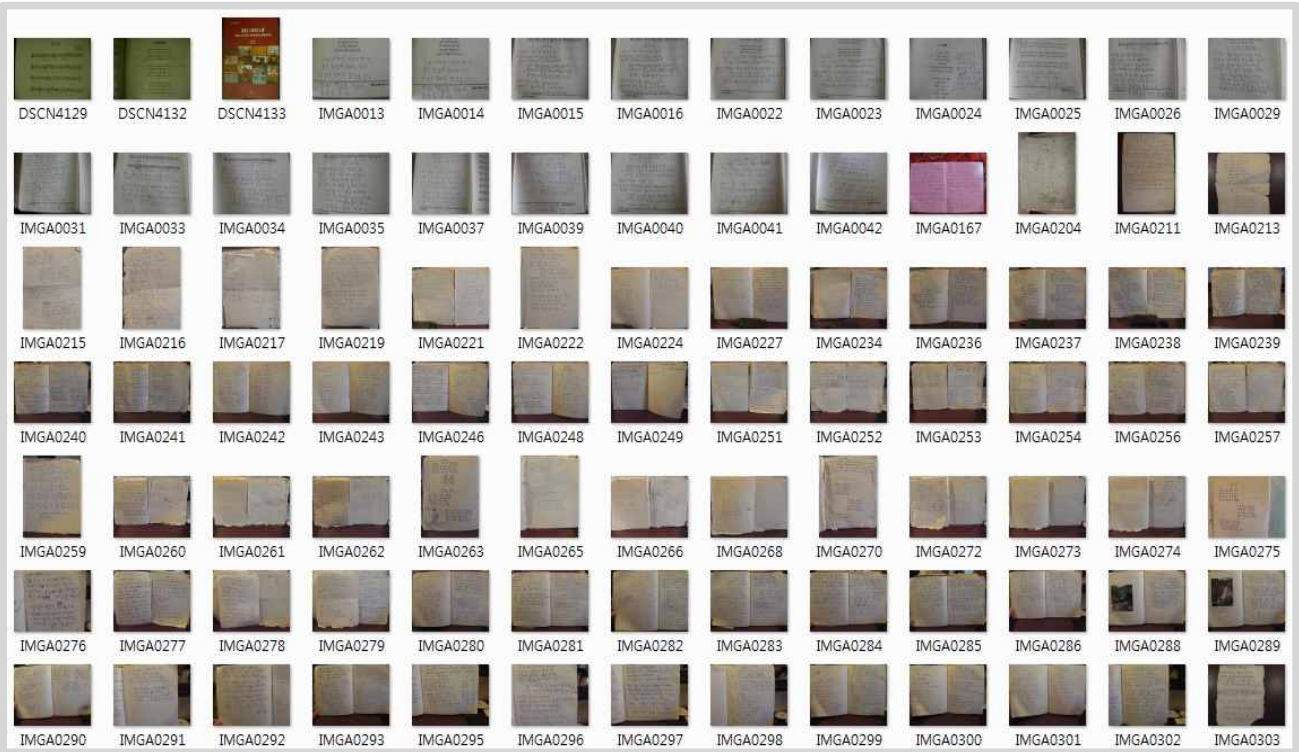
2. 유형별 형태

1) 사진 자료



2) 영상 자료

3) 문서 자료(민요공책/보고서/회보·도록/신문 등)



4) 실물 자료(CD·DVD/TAPE/보고서 등)

Ⅵ. 현장실태조사카드(자료조사카드) 및 메타데이터

1. 기록지 항목수 및 작업공정률

[신규자료]

분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러시아	
				연해주	사할린주
[1분야] 전통적공연예술(연행)	6	7	6	5	1
[2분야] 공예,미술등에관한전통기술	1	2	1	0	4
[3분야] 의학[민간요법], 농경·어로 등에 관한전통지식	18	39	13	4	3
[4분야] 구전전통및표현	7	76	50	10	4
[5분야] 의식주등전통적 생활관습	35	71	24	26	12
[6분야] 민간신앙등사회적의식(儀式)	16	56	111	19	18
[7분야] 전통적놀이·축제및기예·무예	6	43	51	3	5
총항목수 및 작업공정률	**89 (100%)**	**294 (100%)**	**256 (100%)**	**67개 (100%)**	**47개 (100%)**
	총 760개				

[기존자료]

저자	자료명	조사건수
장준희	『중앙아시아 대륙의 오아시스를 찾아서』, 2010,	13건
이복규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생애담 연구』, 2012	26건
국립민속박물관	『우즈벡스탄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1999	76건
국립민속박물관	『러시아 사할린·연해주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2001	55건
국립민속박물관	『까자흐스딴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2000	66건
진용선	『러시아 고려인 아리랑 연구』, 정선아리랑 문화재단, 2009	42건
전경수편	『까자흐스딴의 고려인』, 2002	66건
김병학·한야꼬브	『재소고려인의 노래를 찾아서, 1-2』, 2007	384건
	총	**728건**

2. 현장실태조사카드(자료조사카드)

▣ 무형문화유산 7개 분야별(각 1건 2쪽씩)로 현장실태조사카드(자료조사카드)를 작성

▣ 현장실태조사카드(자료조사카드)에는 연구팀 및 국내연구자 기확보자료 내용은 배제됨

1) 우즈베키스탄

① [1분야]전통적 공연예술(연행)

[현장실태조사카드]

필수입력사항		**2012년 7월 12일**
①자료입력자	안상경	
②검증자		
③종목	북쪽등대콜호즈 구루빠 활동	
④알려진 다른 이름	구역 음악, 춤 페스티벌	
⑤전승지역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북쪽등대콜호즈	
⑥분류체계	대분류	전통적 공연예술(연행)
	중분류	음악
	소분류	

⑦정의 및 내용

1. 전승주체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주 북쪽등대콜호즈 구루빠(클럽) 공연팀

2. 전승지역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주 북쪽등대콜호즈

3. 전승내용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주 북쪽등대콜호즈에서 1968년부터 1982년까지 구루빠 활동이 이루어졌다. 당시에는 국가 차원에서 고려인 구루빠 활동을 장려했다. 50년대 중·후반에 북조선 출신 김홍률이 타쉬켄트로 유학을 왔는데, 그가 북쪽등대콜호즈에 자주 들러 북조선의 노래와 춤을 전수했다. 북쪽등대콜호즈 구루빠 공연팀들은 김홍률과 함께 늘 밤 12시까지 노래와 춤을 연습했다. 설(양력 1월 1일), 여성기념일(양력 3월 8일), 큰전쟁해방된날(양력 5월 9일), 단오(음력 5월 5일), 러시아10월혁명기념일(양력 11월 7일) 등을 기해 자체적으로 공연을 벌였다. 또 프라우다, 폴릿eke젤, 시온고 등지의 고려인 콜호즈로부터 초빙되어 공연하기도 했다. 구루빠 공연팀은 20여 명이었는데, 남성은 악기를 다루었고, 여성은 창가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 춤은 부채춤, 고리춤, 까삭춤(카자흐스탄춤), 로시아춤(러시아춤), 우즈벡춤(우즈베키스탄춤) 등이었고, 창가는 '장모님노래', '소방울타령', '우스벡창가', '러시아창가' 등이었다. 이후 젊은이들의 참여율이 저조해 단절되었다.

4. 중요성과 보호방법 제안

5. 지역 내 주요관련 활동	
⑧자료출처/참고자료	
⑨부가정보	
⑩연구성과	
⑪관련단체	
⑫Digital Data	※자료번호 입력
⑬사진자료	※자료번호 입력

[자료조사카드]

<table>
<tr><td colspan="2" rowspan="6"> </td><td colspan="2">자료(기록물) 정보</td></tr>
<tr><td>②명칭</td><td>북쪽등대(콜호즈) 구루빠 활동</td></tr>
<tr><td>③자료번호</td><td></td></tr>
<tr><td>④형태</td><td></td></tr>
<tr><td>⑤재질</td><td></td></tr>
<tr><td>⑥분류</td><td>전통적 공연예술(연행) – 음악</td></tr>
<tr><td colspan="2">인적(입수자) 정보</td><td>⑦크기(cm)</td><td>가로( )세로( )높이( )</td></tr>
<tr><td>⑧성명</td><td>김게르오르기</td><td colspan="2">입수 정보</td></tr>
<tr><td>⑨성별</td><td>남 / 여</td><td>⑭입수일</td><td>2012. 07. 12</td></tr>
<tr><td>⑩입수주소</td><td></td><td>⑮입수구분</td><td>기증 / 기탁 / 구입</td></tr>
<tr><td>⑪연락처</td><td></td><td>⑯보존상태</td><td>훼손심함 / 훼손 / 양호</td></tr>
<tr><td>⑫제작자/지역</td><td></td><td>⑰가치여부</td><td>상 / 중 / 하</td></tr>
<tr><td>⑬제작시기</td><td></td><td rowspan="2">⑱정보수집 동의여부</td><td rowspan="2">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td></tr>
<tr><td colspan="4">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td></tr>
<tr><td colspan="4"></td></tr>
<tr><td colspan="4">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td></tr>
<tr><td colspan="4"></td></tr>
<tr><td>※조사자</td><td>안 상 경</td><td>※조사일시</td><td>2012. 07. 12</td></tr>
</table>

② [2분야]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현장실태조사카드]

필수입력사항		2012년 7월 16일
①자료입력자	안상경	
②검증자		
③종목	삿갓	
④알려진 다른 이름		
⑤전승지역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폴릿닫젤	
⑥분류체계	대분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중분류	기타
	소분류	

⑦정의 및 내용

1. 전승주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

2. 전승지역
우즈베키스탄

3. 전승내용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은 여름철 농사를 지을 때 삿갓을 많이 쓴다. 삿갓의 재료는 '까래'라고 하는 갈대이다. 갈대를 쪼개어 속을 긁어내고 물에 불렸다가 말려 삿갓으로 엮는다.

4. 중요성과 보호방법 제안

5. 지역 내 주요관련 활동

⑧자료출처/참고자료	

⑨부가정보

⑩연구성과	
⑪관련단체	
⑫Digital Data	※자료번호 입력
⑬사진자료	※자료번호 입력

[자료조사카드]

<table>
<tr><td colspan="2" rowspan="6"> </td><td colspan="2">자료(기록물) 정보</td></tr>
<tr><td>②명칭</td><td>삿갓</td></tr>
<tr><td>③자료번호</td><td></td></tr>
<tr><td>④형태</td><td></td></tr>
<tr><td>⑤재질</td><td></td></tr>
<tr><td>⑥분류</td><td>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기타</td></tr>
<tr><td colspan="2">인적(입수자) 정보</td><td colspan="2">입수 정보</td></tr>
<tr><td>⑧성명</td><td>허일</td><td>⑭입수일</td><td>2012. 07. 16</td></tr>
<tr><td>⑨성별</td><td><u>남</u> / 여</td><td>⑮입수구분</td><td>기증 / 기탁 / 구입</td></tr>
<tr><td>⑩입수주소</td><td></td><td>⑯보존상태</td><td>훼손심함 / 훼손 / 양호</td></tr>
<tr><td>⑪연락처</td><td>(☎)</td><td>⑰가치여부</td><td>상 / <u>중</u> / 하</td></tr>
<tr><td>⑫제작자/지역</td><td></td><td rowspan="2">⑱정보수집 동의여부</td><td rowspan="2"><u>동의 함</u> / 동의하지 않음</td></tr>
<tr><td>⑬제작시기</td><td></td></tr>
<tr><td colspan="4">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td></tr>
<tr><td colspan="4"></td></tr>
<tr><td colspan="4">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td></tr>
<tr><td colspan="4"></td></tr>
<tr><td>※조사자</td><td>안 상 경</td><td>※조사일시</td><td>2012. 07. 16</td></tr>
</table>

③ [3분야]의학[민간요법],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현장실태조사카드]

필수입력사항		2012년 7월 12일
①자료입력자	안상경	
②검증자		
③종목	디딜방아	
④알려진 다른 이름	바이	
⑤전승지역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북쪽등대콜호즈	
⑥분류체계	대분류	의학[민간요법],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중분류	농업
	소분류	재래농기구

⑦정의 및 내용

1. 전승주체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북쪽등대콜호즈 한나제즈다(1936년생). 조부의 고향은 충청북도 청주시이다.

2. 전승지역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북쪽등대콜호즈

3. 전승내용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북쪽등대콜호즈 한나제즈다의 집에 디딜방아가 있다. 디빌방아를 흔히 '바이'라고 한다. 1953년에 한나제즈다의 남편 유이완(1928년 출생, 3년 전 작고)이 제작했다. 재질은 아카시아 나무이며, 트랙터[뜨락또로]에서 일부 몸체를 떼어 받침대로 활용했다. 1960년대 마을에 정미소가 생기기 전까지 3~4일에 한 번씩 벼, 보리, 옥수수, 고추 등을 찧었다. 북쪽등대콜호즈가 한창 번성했을 때, 전체 400여 호가 있었는데 24호[한 줄]마다 2개 정도의 디딜방아가 있었다. 디딜방아가 없는 집에서는 방아를 빌려 찧을 때마다 답례로 한 바가지 정도의 쌀가루나 보릿가루를 내어주었다. 특히 명절이면 찹쌀, 멥쌀을 찧어 증편을 만드느라 북적였다.

4. 중요성과 보호방법 제안

5. 지역 내 주요관련 활동

⑧자료출처/참고자료	

⑨부가정보

⑩연구성과	
⑪관련단체	
⑫Digital Data	※자료번호 입력
⑬사진자료	※자료번호 입력

[자료조사카드]

<table>
<tr><td colspan="2" rowspan="6"> </td><td colspan="3">자료(기록물) 정보</td></tr>
<tr><td>②명칭</td><td colspan="2">디딜방아</td></tr>
<tr><td>③자료번호</td><td colspan="2"></td></tr>
<tr><td>④형태</td><td colspan="2">재래농기구</td></tr>
<tr><td>⑤재질</td><td colspan="2">목제류</td></tr>
<tr><td>⑥분류</td><td colspan="2">의학[민간요법],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농업</td></tr>
<tr><td colspan="2">인적(입수자) 정보</td><td>⑦크기(cm)</td><td colspan="2">가로(300),세로(75),높이(110)</td></tr>
<tr><td>⑧성명</td><td>한나제즈다</td><td colspan="3">입수 정보</td></tr>
<tr><td>⑨성별</td><td>남 / 여</td><td>⑭입수일</td><td colspan="2">2012. 07. 12</td></tr>
<tr><td>⑩입수주소</td><td></td><td>⑮입수구분</td><td colspan="2">기증 / 기탁 / 구입</td></tr>
<tr><td>⑪연락처</td><td>(☎)</td><td>⑯보존상태</td><td colspan="2">훼손심함 / 훼손 / 양호</td></tr>
<tr><td>⑫제작자/지역</td><td>유이완 / 북쪽등대콜호즈</td><td>⑰가치여부</td><td colspan="2">상 / 중 / 하</td></tr>
<tr><td>⑬제작시기</td><td>1953년</td><td rowspan="2">⑱정보수집 동의여부</td><td colspan="2" rowspan="2">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td></tr>
<tr><td colspan="3">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td></tr>
<tr><td colspan="5"></td></tr>
<tr><td colspan="5">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td></tr>
<tr><td colspan="5"></td></tr>
<tr><td>※조사자</td><td>안 상 경</td><td>※조사일시</td><td colspan="2">2012. 07. 12</td></tr>
</table>

④ [4분야]구전전통 및 표현

[현장실태조사카드]

필수입력사항		2012년 7월 13일
①자료입력자	안상경	
②검증자		
③종목	아리랑	
④알려진 다른 이름		
⑤전승지역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⑥분류체계	대분류	구전전통 및 표현
	중분류	민요
	소분류	

⑦정의 및 내용

1. 전승주체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최알렉산드라(1929년생). 부모의 고향은 함경북도 평양이다.

2. 전승지역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3. 전승내용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최알렉산드라에 의해 '(본조)아리랑'이 전승되고 있다. 고려인 사회에서 '(본조)아리랑'의 전승과 단절의 양상을 다음 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에 모스크바에서 '소비에트고려인연합회'가 결성되어 고려인이 처음으로 회동했다. 이때 사할린의 한 고려인이 회동의 의미로 '애국가'를 부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분위기 속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것이 여의치 않않다. 이에 '아리랑'을 부르기로 했다. 15개국에서 1,000여 명이 모였지만, '아리랑'을 부를 줄 아는 사람은 최알렉산드라와 다른 한 남성뿐이었다." 최알렉산드라가 부른 '(본조)아리랑'의 사설은 다음과 같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 아리랑 고대로 넘어간다 /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 청천하늘엔 잔별도 많고 / 이내 가슴엔 희망도 많다 / 놀다 가세요 놀다가요 / 저 달이 지도록 놀다가요" 또 최알렉산드라에 의해 '아리랑고개'가 전승되고 있다. 사설은 다음과 같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 아리랑 고개는 웬 고개인지 / 모르고 가면은 애가 녹네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4. 중요성과 보호방법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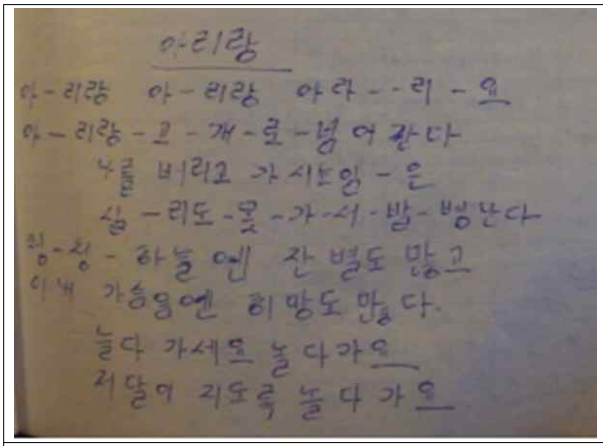
5. 지역 내 주요관련 활동

⑧자료출처/참고자료	

⑨부가정보

⑩연구성과	
⑪관련단체	
⑫Digital Data	※자료번호 입력
⑬사진자료	※자료번호 입력

[자료조사카드]

<table>
<tr><td rowspan="6"> 
</td><td colspan="2">자료(기록물) 정보</td></tr>
<tr><td>②명칭</td><td>아리랑</td></tr>
<tr><td>③자료번호</td><td></td></tr>
<tr><td>④형태</td><td></td></tr>
<tr><td>⑤재질</td><td></td></tr>
<tr><td>⑥분류</td><td>구전전통 및 표현 – 민요</td></tr>
<tr><td>⑦크기(cm)</td><td>가로( )세로( )높이( )</td></tr>
<tr><td colspan="2">인적(입수자) 정보</td><td colspan="2">입수 정보</td></tr>
<tr><td>⑧성명</td><td>최알렉산드라</td><td>⑭입수일</td><td>2012. 07. 13</td></tr>
<tr><td>⑨성별</td><td>남 / 여</td><td>⑮입수구분</td><td>기증 / 기탁 / 구입</td></tr>
<tr><td>⑩입수주소</td><td></td><td>⑯보존상태</td><td>훼손심함 / 훼손 / 양호</td></tr>
<tr><td>⑪연락처</td><td>(☎)</td><td>⑰가치여부</td><td>상 / 중 / 하</td></tr>
<tr><td>⑫제작자/지역</td><td></td><td rowspan="2">⑱정보수집 동의여부</td><td rowspan="2">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td></tr>
<tr><td>⑬제작시기</td><td></td></tr>
<tr><td colspan="4">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td></tr>
<tr><td colspan="4">최알렉산드라는 고려인의 민요와 관련한 책을 지속적으로 수집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민요 및 고려 민요를 자필로 필사한 노트를 갖고 있다. 그녀의 노트 속에 100여 편의 민요 사설이 수록되어 있다.</td></tr>
<tr><td colspan="4">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td></tr>
<tr><td colspan="4">최알렉산드라의 민요 필사본을 통해 고려인 사회에서 전승되고 있는 민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으로부터 유입된 민요, 개방 이후 한국으로부터 유입된 민요, 우즈베키스탄 및 러시아 민요로 분류가 가능하다. 각 유형별로 원형 사설과 비교를 통해 전승과 변이 양상을 충분히 추적할 수 있을 듯하다.</td></tr>
<tr><td>※조사자</td><td>안 상 경</td><td>※조사일시</td><td>2012. 07. 13</td></tr>
</table>

⑤ [5분야]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현장실태조사카드]

필수입력사항		2012년 7월 13일
①자료입력자	안상경	
②검증자		
③종목	우물	
④알려진 다른 이름		
⑤전승지역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김병화콜호즈	
⑥분류체계	대분류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중분류	주생활
	소분류	집안의 시설물과 설비

⑦정의 및 내용

1. 전승주체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김병화콜호즈 장(태)엠밀리아안드레예브나(1940년생). '장'은 남편의 성이며, '태'는 아버지의 성이다. 조부의 고향은 함경도이다.

2. 전승지역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김병화콜호즈

3. 전승내용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김병화콜호즈 장(태)엠밀리아안드레예브나의 집에 전통식 우물이 있다. 1966년에 시멘트로 만든 맨홀 4개를 넣어 만들었는데, 깊이는 4m 가량이다. 우물물은 펌프로 끓어 올려 집 청소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4. 중요성과 보호방법 제안

5. 지역 내 주요관련 활동

⑧자료출처/참고자료	

⑨부가정보

⑩연구성과	
⑪관련단체	
⑫Digital Data	※자료번호 입력
⑬사진자료	※자료번호 입력

[자료조사카드]

<table>
<tr><td colspan="2" rowspan="6"> </td><td colspan="2">자료(기록물) 정보</td></tr>
<tr><td>②명칭</td><td>우물</td></tr>
<tr><td>③자료번호</td><td></td></tr>
<tr><td>④형태</td><td></td></tr>
<tr><td>⑤재질</td><td></td></tr>
<tr><td>⑥분류</td><td>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주생활</td></tr>
<tr><td colspan="2"></td><td>⑦크기(cm)</td><td>가로(120),세로(125),높이(400)</td></tr>
<tr><td colspan="2">인적(입수자) 정보</td><td colspan="2">입수 정보</td></tr>
<tr><td>⑧성명</td><td>장(태)엠밀리아안드레예브나</td><td>⑭입수일</td><td>2012. 07. 13</td></tr>
<tr><td>⑨성별</td><td>남 / 여</td><td>⑮입수구분</td><td>기증 / 기탁 / 구입</td></tr>
<tr><td>⑩입수주소</td><td></td><td>⑯보존상태</td><td>훼손심함 / 훼손 / 양호</td></tr>
<tr><td>⑪연락처</td><td>(☎)</td><td>⑰가치여부</td><td>상 / 중 / 하</td></tr>
<tr><td>⑫제작자/지역</td><td>장(태)엠밀리아안드레예브나의 남편 / 김병화콜호즈</td><td rowspan="2">⑱정보수집 동의여부</td><td rowspan="2">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td></tr>
<tr><td>⑬제작시기</td><td>1960년대</td></tr>
<tr><td colspan="4">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td></tr>
<tr><td colspan="4"></td></tr>
<tr><td colspan="4">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td></tr>
<tr><td colspan="4"></td></tr>
<tr><td>※조사자</td><td>안 상 경</td><td>※조사일시</td><td>2012. 07. 13</td></tr>
</table>

6분야 :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현장실태조사카드]

필수입력사항		2012년 7월 15일
①자료입력자	안상경	
②검증자		
③종목	귀신 쫓는 풀	
④알려진 다른 이름	이스룩푸리	
⑤전승지역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시온고	
⑥분류체계	대분류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중분류	속신앙
	소분류	

⑦정의 및 내용

1. 전승주체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시온고콜호즈 황류드밀라학체로브나(1943년생)

2. 전승지역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시온고콜호즈

3. 전승내용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시온고콜호즈에 거주하고 있는 황류드밀라학체로브나의 집에는 대들보 기능을 하는 쇠 기둥에 귀신 쫓는 풀가지가 매달려 있다. 마치 한국의 마늘쫑 같은 우즈베키스탄의 풀인데, 수십 여 풀가지를 거꾸로 늘여뜨리고 윗부분을 붉은 색 천으로 동여 맨 형태이다. 작년 새로 집을 지을 때 가정사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로 매어놓았다고 한다.

4. 중요성과 보호방법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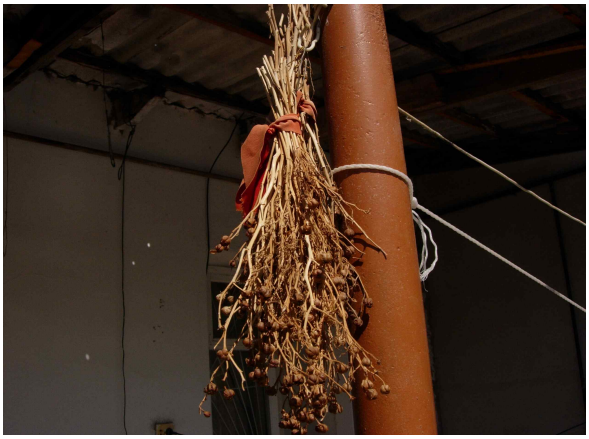
5. 지역 내 주요관련 활동

⑧자료출처/참고자료	

⑨부가정보

⑩연구성과	
⑪관련단체	
⑫Digital Data	※자료번호 입력
⑬사진자료	※자료번호 입력

[자료조사카드]

<table>
<tr><td colspan="2" rowspan="6">  </td><td colspan="3">자료(기록물) 정보</td></tr>
<tr><td>②명칭</td><td colspan="2">귀신 쫓는 풀</td></tr>
<tr><td>③자료번호</td><td colspan="2"></td></tr>
<tr><td>④형태</td><td colspan="2"></td></tr>
<tr><td>⑤재질</td><td colspan="2"></td></tr>
<tr><td>⑥분류</td><td colspan="2">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 속신앙</td></tr>
<tr><td colspan="2">인적(입수자) 정보</td><td>⑦크기(cm)</td><td colspan="2">가로(　　)세로(　　)높이(　　)</td></tr>
<tr><td colspan="2">⑧성명</td><td>황류드밀라학체로브나</td><td colspan="2">입수 정보</td></tr>
<tr><td colspan="2">⑨성별</td><td>남 / 여</td><td>⑭입수일</td><td>2012. 07. 15</td></tr>
<tr><td colspan="2">⑩입수주소</td><td></td><td>⑮입수구분</td><td>기증 / 기탁 / 구입</td></tr>
<tr><td colspan="2">⑪연락처</td><td>(☎)</td><td>⑯보존상태</td><td>훼손심함 / 훼손 / 양호</td></tr>
<tr><td colspan="2">⑫제작자/지역</td><td></td><td>⑰가치여부</td><td>상 / 중 / 하</td></tr>
<tr><td colspan="2">⑬제작시기</td><td></td><td>⑱정보수집 동의여부</td><td>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td></tr>
<tr><td colspan="5">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td></tr>
<tr><td colspan="5"></td></tr>
<tr><td colspan="5">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td></tr>
<tr><td colspan="5"></td></tr>
<tr><td>※조사자</td><td colspan="2">안 상 경</td><td>※조사일시</td><td>2012. 07. 15</td></tr>
</table>

⑦ [7분야]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현장실태조사카드]

필수입력사항		2012년 7월 16일
①자료입력자	안상경	
②검증자		
③종목	단오행사	
④알려진 다른 이름		
⑤전승지역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북쪽등대콜호즈	
⑥분류체계	대분류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중분류	축제
	소분류	

⑦정의 및 내용

1. 전승주체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북쪽등대콜호즈 주민들

2. 전승지역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북쪽등대콜호즈

3. 전승내용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북쪽등대콜호즈에 거주하고 있는 남보리스니콜라에비치는 단오를 기해 한식 때와 마찬가지로 차례를 올린다. 오후에는 콜호즈에 있는 56학교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그네와 널을 뛴다. 예전에는 줄다리기, 씨름 등 민속놀이를 했다고 한다. 이때 줄다리기는 직업별로 팀을 나누어 경합을 벌였다. 예컨대 성인들은 농사팀, 건축팀, 기계팀 등으로 나누었고, 학생들은 A Class, B Class 등으로 나누었다. 오늘날은 학생들의 합창과 연극[소극]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집집마다 음식을 준비해 함께 나누어 먹는다. 저녁에는 나이트클럽과 같이 무대를 꾸미고 춤을 추며 흥을 한껏 돋운다.

4. 중요성과 보호방법 제안

5. 지역 내 주요관련 활동

⑧자료출처/참고자료	

⑨부가정보

⑩연구성과	
⑪관련단체	
⑫Digital Data	※자료번호 입력
⑬사진자료	※자료번호 입력

[자료조사카드]

<table>
<tr><td colspan="2" rowspan="6"></td><td colspan="2">자료(기록물) 정보</td></tr>
<tr><td>②명칭</td><td>단오행사</td></tr>
<tr><td>③자료번호</td><td></td></tr>
<tr><td>④형태</td><td></td></tr>
<tr><td>⑤재질</td><td></td></tr>
<tr><td>⑥분류</td><td>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 축제</td></tr>
<tr><td colspan="2">인적(입수자) 정보</td><td>⑦크기(cm)</td><td>가로(　)세로(　)높이(　)</td></tr>
<tr><td colspan="2">인적(입수자) 정보</td><td colspan="2">입수 정보</td></tr>
<tr><td>⑧성명</td><td>남보리스니콜라에비치</td><td>⑭입수일</td><td>2012. 07. 16</td></tr>
<tr><td>⑨성별</td><td>남 / 여</td><td>⑮입수구분</td><td>기증 / 기탁 / 구입</td></tr>
<tr><td>⑩입수주소</td><td></td><td>⑯보존상태</td><td>훼손심함 / 훼손 / 양호</td></tr>
<tr><td>⑪연락처</td><td>(☎)</td><td>⑰가치여부</td><td>상 / 중 / 하</td></tr>
<tr><td>⑫제작자/지역</td><td></td><td rowspan="2">⑱정보수집 동의여부</td><td rowspan="2">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td></tr>
<tr><td>⑬제작시기</td><td></td></tr>
<tr><td colspan="4">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td></tr>
<tr><td colspan="4"></td></tr>
<tr><td colspan="4">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td></tr>
<tr><td colspan="4"></td></tr>
<tr><td>※조사자</td><td>안 상 경</td><td>※조사일시</td><td>2012. 07. 16</td></tr>
</table>

2) 카자흐스탄

① [1분야]전통적 공연예술(연행)

[현장실태 조사카드]

필수입력사항		2012년 7 월 21 일
①자료입력자	강 현 모	
②검증자		
③종목	도라지 가무단	
④알려진 다른 이름		
⑤전승지역	알마타주 우쉬토베 (보스톡콜호즈-에스켈드이 마을)	
⑥분류체계	대분류	전통적 공연예술(연행)
	중분류	무용
	소분류	가무단

⑦정의 및 내용

1. 전승주체 : 알마타주 우쉬토베 (보스톡콜호즈-에스켈드이 마을)
2. 전승지역 : 알마타주 우쉬토베 (보스톡콜호즈-에스켈드이 마을)
3. 전승내용 : 이 콜호즈에서 구성한 가무단으로 제보자의 남편인 이칠성이 구성하였으며, 남편을 도와 이 가무단을 발전에 노력하여 콜호즈 자체에서 공연할 뿐만 아니라 이웃 콜호즈에 찬조 공연도 하였다고 한다. 4-5년 전에 남편이 죽고 부인인 제보자가 맡아 운영하고 있는데, 예전과 달리 젊은 단원이 들어오지 않아 60-70대의 노인들만 모여 예전의 향수를 즐기고 있다고 한다.
4. 중요성과 보호방법 제안
5. 지역 내 주요관련 활동

⑧자료출처/참고자료	

⑨부가정보

⑩연구성과	
⑪관련단체	
⑫Digital Data	1-11(2) LH 21072012 0001 11(2)-VI-0001
⑬사진자료	※자료번호 입력

[자료 조사카드]

<table>
<tr><td colspan="2" rowspan="6">
도라지 가무단</td><td colspan="2">자료(기록물) 정보</td></tr>
<tr><td>②명칭</td><td>도라지 가무단</td></tr>
<tr><td>③자료번호</td><td>1-11(2) LH 21072012 0001
11(2)-VI-0001</td></tr>
<tr><td>④형태</td><td>구전</td></tr>
<tr><td>⑤재질</td><td></td></tr>
<tr><td>⑥분류</td><td>전통적 공연예술(연행) / 무용 / 가무단</td></tr>
<tr><td colspan="2">⑦크기(cm)</td><td>가로(　　)세로(　　)높이(　　)</td></tr>
<tr><td colspan="2">인적(입수자) 정보</td><td colspan="2">입수 정보</td></tr>
<tr><td>⑧성명</td><td>인 발레티나(68세) 김
엘레다(75세) 김 로자(76세)</td><td>⑭입수일</td><td>2012. 07. 21</td></tr>
<tr><td>⑨성별</td><td>여</td><td>⑮입수구분</td><td>기증 / 기탁 / 구입</td></tr>
<tr><td>⑩입수주소</td><td>알마타주 우쉬토베
(보스톡콜호즈-에스켈드이 마을) 문화의 집</td><td>⑯보존상태</td><td>훼손심함 / 훼손 / 양호</td></tr>
<tr><td>⑪연락처</td><td>(☎) 8-728-34-219-95,
8-701-739-85-19</td><td>⑰가치여부</td><td>상 / 중 / 하</td></tr>
<tr><td>⑫제작자/지역</td><td>알마타주 우쉬토베
(보스톡콜호즈-에스켈드이 마을)</td><td rowspan="2">⑱정보수집 동의여부</td><td rowspan="2">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td></tr>
<tr><td>⑬제작시기</td><td></td></tr>
<tr><td colspan="4">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td></tr>
<tr><td colspan="4"></td></tr>
<tr><td colspan="4">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td></tr>
<tr><td colspan="4"></td></tr>
<tr><td>※조사자</td><td>강 현 모</td><td>※조사일시</td><td>2012. 07. 21.</td></tr>
</table>

② [2분야]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현장실태조사카드]

필수입력사항		2012년 7 월 22 일
①자료입력자	강 현 모	
②검증자		
③종목	장식장	
④알려진 다른 이름		
⑤전승지역	알마타주 우쉬토베	
⑥분류체계	대분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중분류	목칠공예
	소분류	

⑦정의 및 내용

1. 전승주체 : 알마타주 우쉬토베
2. 전승지역 : 알마타주 우쉬토베
3. 전승내용 : 박 니콜라이 댁에 있는 장식장들은 50-60년대에 이곳으로 이주하여온 고려인 노인들이 만들었다. 당시에는 고려인 콜호즈에 손재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잇어 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이나 장식장 등을 만들었다. 심지어 인근의 콜호즈에서 이런 장식장이나 생활용품을 만들던 곳이 있었으나 콜호즈가 깨진 이후에 다 사라졌다고 한다. 더욱이 장식장 등을 만들었던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70년대 이후에는 젊은 사람들이 만들지 않아서 다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공장에서 만들어 싸게 팔기 때문에 이런 장식장으로 교체되었다고 한다.
4. 중요성과 보호방법 제안 :
5. 지역 내 주요관련 활동

⑧자료출처/참고자료	

⑨부가정보

⑩연구성과	
⑪관련단체	
⑫Digital Data	1-11(2) LH 22072012 0001 11(2)-VI-0001
⑬사진자료	※자료번호 입력

[자료조사카드]

<table>
<tr><td colspan="2" rowspan="6">
①사진</td><td colspan="3">자료(기록물) 정보</td></tr>
<tr><td>②명칭</td><td colspan="2">장식장</td></tr>
<tr><td>③자료번호</td><td colspan="2">1-11(2) LH 22072012 0001
11(2)-VI-0001</td></tr>
<tr><td>④형태</td><td colspan="2"></td></tr>
<tr><td>⑤재질</td><td colspan="2"></td></tr>
<tr><td>⑥분류</td><td colspan="2">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목칠공예</td></tr>
<tr><td colspan="2">인적(입수자) 정보</td><td>⑦크기(cm)</td><td colspan="2">가로( )세로( )높이( )</td></tr>
<tr><td>⑧성명</td><td>박 니콜라이
알렉산드리아(77세)</td><td colspan="3">입수 정보</td></tr>
<tr><td>⑨성별</td><td>남</td><td>⑭입수일</td><td colspan="2">2012. 07. 22.</td></tr>
<tr><td>⑩입수주소</td><td>우쉬토베 **** 자택</td><td>⑮입수구분</td><td colspan="2">기증 / 기탁 / 구입</td></tr>
<tr><td>⑪연락처</td><td>(☎) 214-44</td><td>⑯보존상태</td><td colspan="2">훼손심함 / 훼손 / 양호</td></tr>
<tr><td>⑫제작자/지역</td><td>우쉬토베</td><td>⑰가치여부</td><td colspan="2">상 / 중 / 하</td></tr>
<tr><td>⑬제작시기</td><td>1960년대</td><td rowspan="2">⑱정보수집 동의여부</td><td colspan="2" rowspan="2">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td></tr>
<tr><td colspan="2">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td></tr>
<tr><td colspan="5">사진은 7월 25일 면담 최 아리따 자택이 있는 장식장으로 대신하였음.</td></tr>
<tr><td colspan="5">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td></tr>
<tr><td colspan="5"></td></tr>
<tr><td>※조사자</td><td>강 현 모</td><td>※조사일시</td><td colspan="2">2012. 07. 22.</td></tr>
</table>

③ [3분야]의학[민간요법],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현장실태조사카드]

필수입력사항		2012년 7 월 22 일
①자료입력자	강 현 모	
②검증자		
③종목	벼 기르기	
④알려진 다른 이름		
⑤전승지역	알마타주 우쉬토베	
⑥분류체계	대분류	의학(민간요법)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중분류	농업
	소분류	경작

⑦정의 및 내용

1. 전승주체 : 알마타주 우쉬토베
2. 전승지역 : 우쉬토베
3. 전승내용 : 이곳은 경작지가 넓기 때문에 모내기를 할 수가 없어 파종을 하게 된다. 파종을 할 때, 1938-1940년대까지는 통을 메고 물이 잠긴 논에서다 볍씨 뿌렸으나, 현재는 마른 땅에 씨앗을 심고난 뒤에 물을 대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모종을 하자면 돈이 많이 들고, 날씨 때문에 얼어 죽기도 하고, 풀이 더 많이 나서 작업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볍씨는 옛날에는 포대에 넣고 2일 정도 불렸으나, 요즘은 바로 심근다고 한다. 또는 볍씨를 심고 나무판대기로 밀고 다녔으나, 현재는 기계로 얕게 심어 빨리 자라도록 하고 있다.
이런 파종을 한 모는 기르기 과정에서 물대기를 통해 잘 자라게 한다. 우선 기계로 볍씨를 심근 뒤에 물을 댄다. 물이 땅을 축축하게 적시면 볍씨가 싹이 텃서 자라게 된다. 이때 다시 물을 대는데 깊게 대지 않는다. 그런데 늦게(1주일) 물을 대면 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2-3일 내에 대는 것이 좋다. 풀이 났을 때 옛날에는 손으로 지심을 맸으나, 현재는 물로 풀을 죽이거나 약으로 제거한다. 물은 벼가 자라는 것에 따라 대는 깊이를 결정하며, 이삭이 나올 때는 깊이 댔다가 이삭이 다 나오면 물을 얕게 대는데, 물이 따뜻하게 하여 곡식이 빨리 여물게 하기위해서 이다. 다 여물면 물을 대지 않고 땅이 마르게 하는데, 이삭이 나오고 1달이면 수확을 하게 되어 있다.
4. 중요성과 보호방법 제안 :
5. 지역 내 주요관련 활동

⑧자료출처/참고자료	

⑨부가정보

⑩연구성과	
⑪관련단체	
⑫Digital Data	1-11(2) LH 22072012 0001 11(2)-VI-0001
⑬사진자료	※자료번호 입력

[자료조사카드]

<table>
<tr><td colspan="2" rowspan="6"> </td><td colspan="2">자료(기록물) 정보</td></tr>
<tr><td>②명칭</td><td>벼 기르기</td></tr>
<tr><td>③자료번호</td><td>1-11(2) LH 22072012 0001
11(2)-VI-0001</td></tr>
<tr><td>④형태</td><td></td></tr>
<tr><td>⑤재질</td><td></td></tr>
<tr><td>⑥분류</td><td>의학[민간요법],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농업/ 경작</td></tr>
<tr><td colspan="2">⑦크기(cm)</td><td>가로( )세로( )높이( )</td></tr>
<tr><td colspan="2">인적(입수자) 정보</td><td colspan="2">입수 정보</td></tr>
<tr><td>⑧성명</td><td>박 니콜라이 (77세)</td><td>⑭입수일</td><td>2012. 07. 22.</td></tr>
<tr><td>⑨성별</td><td>남</td><td>⑮입수구분</td><td>기증 / 기탁 / 구입</td></tr>
<tr><td>⑩입수주소</td><td>우쉬토베 **** 자택</td><td>⑯보존상태</td><td>훼손심함 / 훼손 / 양호</td></tr>
<tr><td>⑪연락처</td><td>(☎) 214-44</td><td>⑰가치여부</td><td>상 / 중 / 하</td></tr>
<tr><td>⑫제작자/지역</td><td>우쉬토베</td><td rowspan="2">⑱정보수집 동의여부</td><td rowspan="2">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td></tr>
<tr><td>⑬제작시기</td><td>1985년대</td></tr>
<tr><td colspan="4">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td></tr>
<tr><td colspan="4"></td></tr>
<tr><td colspan="4">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td></tr>
<tr><td colspan="4"></td></tr>
<tr><td>※조사자</td><td>강 현 모</td><td>※조사일시</td><td>2012. 07. 22/</td></tr>
</table>

④ [4분야]구전전통 및 표현
[현장실태조사카드]

필수입력사항		2012년 7 월 21 일
①자료입력자	강 현 모	
②검증자		
③종목	에헤요, 씨를 뿌려라	
④알려진 다른 이름		
⑤전승지역	알마타주 우쉬토베 (보스톡콜호즈-에스켈드이 마을)	
⑥분류체계	대분류	구전전통 및 표현
	중분류	민요
	소분류	노동요

⑦정의 및 내용

1. 전승주체 : 알마타주 우쉬토베 (보스톡콜호즈-에스켈드이 마을)
2. 전승지역 : 알마타주 우쉬토베 (보스톡콜호즈-에스켈드이 마을)
3. 전승내용 : 이 민요는 중앙아시아 전하는 대표적인 민요이다. 이 민요는 카자흐스탄은 물론이고 우즈벡과 키르키즈스탄에도 전승되고 있으며, 이 노래를 부를 때면 모든 사람들이 줄거움에 가득찬 상태에서 부르고 있었다. 이 노래는 논에서 씨를 부리면서 부르는 던 것이, 이곳에서도 농사를 짓는 방법이 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때 부르는 노래를 부탁하면 서슴없이 부르는 이곳의 노동민요이다. 노래의 내용은 이주한 고려인들은 이 땅에 씨를 뿌려 뒤에 수확을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이 내용은 실적으로 곡식의 씨앗을 뿌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 완전하게 정작하고 싶은 고려인들의 염원을 담아내고 있다고 하겠다.
4. 중요성과 보호방법 제안 :
5. 지역 내 주요관련 활동

⑧자료출처/참고자료	

⑨부가정보

⑩연구성과	
⑪관련단체	
⑫Digital Data	1-11(2) LH 21072012 0001 11(2)-VI-0001
⑬사진자료	※자료번호 입력

[자료조사카드]

<table>
<tr><td colspan="2" rowspan="6"> </td><td colspan="2">자료(기록물) 정보</td></tr>
<tr><td>②명칭</td><td>에헤요, 씨를 뿌려라</td></tr>
<tr><td>③자료번호</td><td>1-11(2) LH 21072012 0001
11(2)-VI-0001</td></tr>
<tr><td>④형태</td><td>구전</td></tr>
<tr><td>⑤재질</td><td></td></tr>
<tr><td>⑥분류</td><td>구전전통 및 표현 / 민요 / 노동요</td></tr>
<tr><td colspan="2">⑦크기(cm)</td><td colspan="2">가로(　　)세로(　　)높이(　　)</td></tr>
<tr><td colspan="3">인적(입수자) 정보</td><td colspan="2">입수 정보</td></tr>
<tr><td>⑧성명</td><td colspan="2">정 류드밀라(76세)외 7인</td><td>⑭입수일</td><td>2012. 07. 21</td></tr>
<tr><td>⑨성별</td><td colspan="2">여</td><td>⑮입수구분</td><td>기증 / 기탁 / 구입</td></tr>
<tr><td>⑩입수주소</td><td colspan="2">알마타주 우쉬토베 (보스톡콜호즈-에스켈드이 마을) 문화의 집</td><td>⑯보존상태</td><td>훼손심함 / 훼손 / 양호</td></tr>
<tr><td>⑪연락처</td><td colspan="2">(☎) 8-728-34-26-341</td><td>⑰가치여부</td><td>상 / 중 / 하</td></tr>
<tr><td>⑫제작자/지역</td><td colspan="2">알마타주 우쉬토베 (보스톡콜호즈-에스켈드이 마을)</td><td rowspan="2">⑱정보수집 동의여부</td><td rowspan="2">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td></tr>
<tr><td>⑬제작시기</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5">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td></tr>
<tr><td colspan="5"></td></tr>
<tr><td colspan="5">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td></tr>
<tr><td colspan="5"></td></tr>
<tr><td>※조사자</td><td colspan="2">강 현 모</td><td>※조사일시</td><td>2012. 07. 21.</td></tr>
</table>

⑤ [5분야]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현장실태조사카드]

필수입력사항		2012년 7 월 20 일
①자료입력자	강 현 모	
②검증자		
③종목	구들 만들 흙벽돌	
④알려진 다른 이름		
⑤전승지역	알마티 노즈아바쿠예프 218번지 33호	
⑥분류체계	대분류	의식주 등 전통적인 생활관습
	중분류	주거
	소분류	가옥구조 (재료 : 구들 만들 흙벽돌)

⑦정의 및 내용

1. 전승주체 : 파불로프 콜호즈 주민
2. 전승지역 : 파불로프 콜호즈
3. 전승내용 : 이곳은 대평원이기 때문에 돌이 귀하였다. 원동에서 이주한 고려인들은 집을 짓고 온돌을 만들기 위하여 구들돌이 필요하데 이런 돌이 없었다. 따라서 고려인들은 구들돌을 대신에 흙을 이용하여 구들을 만들을 집안을 보온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 벽돌을 이곳에 핏짜라고 하는데, 이를 가지고 구들의 고래도 구분하고 그위에 이 핏짜로 놓아 구들을 만들었다. 즉 구들을 만들 때 흙벽돌로 세로돌을 만들고, 그 위에 좀 얇게 만들어 가로돌을 사용하였다. 오늘날에는 시멘트 집을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고려인들은 집에서 한곳을 온돌 보일러를 만들어 놓고 있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4. 중요성과 보호방법 제안 : 돌이 귀한 지역에서 전통적인 구둘을 놓기 위한 민좃ㄱ문화전수를 위한 방식이다. 이를 후대 고려인들에게 강제 이주기간의 고통과 전통문화지키기 위한 민족적 몸부림을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하겠다.
5. 지역 내 주요관련 활동

⑧자료출처/참고자료	
⑨부가정보	
⑩연구성과	
⑪관련단체	
⑫Digital Data	1-11(2) LH 20072012 0001 11(2)-VI-0001
⑬사진자료	※자료번호 입력

[자료조사카드]

<table>
<tr><td colspan="2" rowspan="6"> </td><td colspan="2">자료(기록물) 정보</td></tr>
<tr><td>②명칭</td><td>구들 만들 흙벽돌</td></tr>
<tr><td>③자료번호</td><td>1-11(2) LH 29072012 0001
11(2)-VI-0001</td></tr>
<tr><td>④형태</td><td>구전</td></tr>
<tr><td>⑤재질</td><td>토재류</td></tr>
<tr><td>⑥분류</td><td>의식주 등 전통적인 생활관습/
주거 / 가옥구조</td></tr>
<tr><td colspan="2">인적(입수자) 정보</td><td>⑦크기(cm)</td><td>가로( )세로( )높이( )</td></tr>
<tr><td>⑧성명</td><td>김 프리드리흐(83세)</td><td colspan="2">입수 정보</td></tr>
<tr><td>⑨성별</td><td>남</td><td>⑭입수일</td><td>2012. 07. 20</td></tr>
<tr><td>⑩입수주소</td><td>알마티 고려문화회관</td><td>⑮입수구분</td><td>기증 / 기탁 / 구입</td></tr>
<tr><td>⑪연락처</td><td>(☎)</td><td>⑯보존상태</td><td>훼손심함 / 훼손 / 양호</td></tr>
<tr><td>⑫제작자/지역</td><td>파블노프 콜호즈</td><td>⑰가치여부</td><td>상 / 중 / 하</td></tr>
<tr><td>⑬제작시기</td><td>1938</td><td>⑱정보수집
동의여부</td><td>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td></tr>
<tr><td colspan="4">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td></tr>
<tr><td colspan="4">* 키르키즈스탄 까라발타에 묻어지고 남아 있는 흙벽돌 기둥이다.</td></tr>
<tr><td colspan="4">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td></tr>
<tr><td colspan="4"></td></tr>
<tr><td>※조사자</td><td>강 현 모</td><td>※조사일시</td><td>2012. 07. 20.</td></tr>
</table>

⑥ [6분야]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현장실태조사카드]

필수입력사항		2012년 7 월 20 일
①자료입력자	강 현 모	
②검증자		
③종목	청치	
④알려진 다른 이름		
⑤전승지역	알마티 노즈아바쿠예프 218번지 33호	
⑥분류체계	대분류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중분류	관혼상제
	소분류	혼례
⑦정의 및 내용		
1. 전승주체 : 파불로프 콜호즈 주민 2. 전승지역 : 파불로프 콜호즈 3. 전승내용 : 청치는 결혼식을 치루기 앞서 양가에서 혼사말을 전하는 것이다. 이곳 중앙아시아에서 전통적인 결혼식의 과정이 많이 축약되어 있다. 즉 전통적인 중매결혼의 방식이 이곳에 이주하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곳으로 이주하여 오는 동안에 많이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어린아들도 많이 죽어나갔다. 그것에도 한국의 북쪽 지역의 특성으로 보았을 때 남녀가 만남이 직접인 경우가 많았던 것이 이주과정에서 더욱 빈번하여졌고, 집단농장의 생활로 인하여 남녀의 평등하여짐에 따라 결혼과정의 축소를 필연적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곳에서 남녀가 만나 서로 사귀게 되면 남자 쪽에서 여자 쪽에 결혼을 신청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행되는데, 이것을 청치라고 한다. 청치는 단순이 결혼 신청만을 의미하지 않고, 남자 쪽에서 여자쪽으로 함보내기가 결합된 내용과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쪽에서 청지를 할 때 약간 남자 쪽을 골탕을 먹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4. 중요성과 보호방법 제안 : 이는 전통적인 혼인방식에서 놀이의 형식을 띠고 있다. 따른 전통적 결혼방식의 전승을 위해 참석한 사람들에게 흥미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5. 지역 내 주요관련 활동		
⑧자료출처/참고자료		
⑨부가정보		
⑩연구성과		
⑪관련단체		
⑫Digital Data	1-11(2) LH 20072012 0001 11(2)-VI-0001	
⑬사진자료	※자료번호 입력	

[자료조사카드]

<table>
<tr><td colspan="2" rowspan="6">
청치를 설명하는 제보자</td><td colspan="3">자료(기록물) 정보</td></tr>
<tr><td>②명칭</td><td colspan="2">청치</td></tr>
<tr><td>③자료번호</td><td colspan="2">1-11(2) LH 20072012 0001
11(2)-VI-0001</td></tr>
<tr><td>④형태</td><td colspan="2">구전</td></tr>
<tr><td>⑤재질</td><td colspan="2"></td></tr>
<tr><td>⑥분류</td><td colspan="2">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
관혼상제 / 혼례</td></tr>
<tr><td colspan="2">⑦크기(cm)</td><td colspan="2">가로(　　)세로(　　)높이(　　)</td></tr>
<tr><td colspan="3">인적(입수자) 정보</td><td colspan="2">입수 정보</td></tr>
<tr><td>⑧성명</td><td colspan="2">김 프리드리(83세)</td><td>⑭입수일</td><td>2012. 07. 20</td></tr>
<tr><td>⑨성별</td><td colspan="2">남</td><td>⑮입수구분</td><td>기증 / 기탁 / 구입</td></tr>
<tr><td>⑩입수주소</td><td colspan="2">알마티 고려문화회관</td><td>⑯보존상태</td><td>훼손심함 / 훼손 / <u>양호</u></td></tr>
<tr><td>⑪연락처</td><td colspan="2">(☎)</td><td>⑰가치여부</td><td>상 / <u>중</u> / 하</td></tr>
<tr><td>⑫제작자/지역</td><td colspan="2">파블로프 콜호즈</td><td rowspan="2">⑱정보수집
동의여부</td><td rowspan="2"><u>동의 함</u> / 동의하지 않음</td></tr>
<tr><td>⑬제작시기</td><td colspan="2">1938</td></tr>
<tr><td colspan="5">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td></tr>
<tr><td colspan="5"></td></tr>
<tr><td colspan="5">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td></tr>
<tr><td colspan="5"></td></tr>
<tr><td>※조사자</td><td colspan="2">강 현 모</td><td>※조사일시</td><td>2012. 07. 20.</td></tr>
</table>

⑦ [7분야]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현장실태조사카드]

필수입력사항		2012년 7 월 20 일
①자료입력자	강 현 모	
②검증자		
③종목	씨름	
④알려진 다른 이름		
⑤전승지역	알마티 노즈아바쿠예프 218번지 33호	
⑥분류체계	대분류	전통적인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중분류	놀이
	소분류	개인놀이
⑦정의 및 내용		
1. 전승주체 : 파불로프 콜호즈 주민 2. 전승지역 : 파불로프 콜호즈 3. 전승내용 : 이곳 카자흐스탄에서는 씨름을 오월 단오날에 행하였다고 한다. 단오는 한국의 많은 지역에서 큰 명절로 지냈는데, 특히 산간 밭농사 지역에서의 명절이 었다. 이런 단오날에 남자들은 씨름을 하였고, 여자들은 그네뛰기와 널뛰기를 행하였다. 그런데 이런 단오날에 이곳에서 씨름을 하였다는 것은 동북방의 풍속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이며, 씨름을 동네의 남자들기리 하는 경우도 있지만, 콜호즈 간의 대결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4. 중요성과 보호방법 제안 : 콜호즈간에 대결이 이루어졌다면 상당히 성행하였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콜호즈간의 씨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앞으로 더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5. 지역 내 주요관련 활동		
⑧자료출처/참고자료		
⑨부가정보		
⑩연구성과		
⑪관련단체		
⑫Digital Data	1-11(2) LH 20072012 0001 11(2)-VI-0001	
⑬사진자료	※자료번호 입력	

[자료조사카드]

<table>
<tr><td colspan="2" rowspan="6">
①
사진</td><td colspan="3">자료(기록물) 정보</td></tr>
<tr><td>②명칭</td><td colspan="2">씨름</td></tr>
<tr><td>③자료번호</td><td colspan="2">1-11(2) LH 20072012 0001
11(2)-VI-0001</td></tr>
<tr><td>④형태</td><td colspan="2">구전</td></tr>
<tr><td>⑤재질</td><td colspan="2"></td></tr>
<tr><td>⑥분류</td><td colspan="2">전통적인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 놀이 / 개인놀이</td></tr>
<tr><td colspan="2">인적(입수자) 정보</td><td>⑦크기(cm)</td><td colspan="2">가로(　　)세로(　　)높이(　　)</td></tr>
<tr><td colspan="3">인적(입수자) 정보</td><td colspan="2">입수 정보</td></tr>
<tr><td>⑧성명</td><td colspan="2">김 프리드리(83세)</td><td>⑭입수일</td><td>2012. 07. 20</td></tr>
<tr><td>⑨성별</td><td colspan="2">남</td><td>⑮입수구분</td><td>기증 / 기탁 / 구입</td></tr>
<tr><td>⑩입수주소</td><td colspan="2">알마티 고려문화회관</td><td>⑯보존상태</td><td>훼손심함 / 훼손 / 양호</td></tr>
<tr><td>⑪연락처</td><td colspan="2">(☎)</td><td>⑰가치여부</td><td>상 / 중 / 하</td></tr>
<tr><td>⑫제작자/지역</td><td colspan="2">파블로프 콜호즈</td><td rowspan="2">⑱정보수집 동의여부</td><td rowspan="2">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td></tr>
<tr><td>⑬제작시기</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5">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td></tr>
<tr><td colspan="5">오월 단오날에 동네의 남자들이 모여 씨름을 하거나 콜호즈 간의 대결이 이루어졌다.</td></tr>
<tr><td colspan="5">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td></tr>
<tr><td colspan="5"></td></tr>
<tr><td>※조사자</td><td colspan="2">강현모</td><td>※조사일시</td><td>2012. 07. 20</td></tr>
</table>

3) 키르기즈스탄

① [1분야]전통적 공연예술(연행)

[현장실태조사카드]

필수입력사항		2012년 7 월 27 일
①자료입력자	강현모	
②검증자		
③종목	활동사진	
④알려진 다른 이름		
⑤전승지역	비쉬케크 **** *** Apt ***-102	
⑥분류체계	대분류	전통적인 공연예술(연행)
	중분류	연희
	소분류	영화

⑦정의 및 내용

1. 전승주체 : 비쉬케크 주민
2. 전승지역 : 비쉬케크
3. 전승내용 : 활동사진은 무성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오늘날은 영화를 의미한다. 이곳 키르키즈스탄의 상연된 활동사진은 주로 고려극장에서 만들어진 무성연화를 보급하였다. 당시 많은 콜호즈에서는 연극단이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최후에 고려극단의 영화배우나 연극배우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그래서 고려극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활동사진으로는 고전소설 작품인 춘향전, 심청전, 홍부전 등이 있고, 항일운동을 하였던 홍범도 등의 인물에 관한 활동사진을 만들기도 하였다고 한다.
4. 중요성과 보호방법 제안 :
5. 지역 내 주요관련 활동

⑧자료출처/참고자료	

⑨부가정보

⑩연구성과	
⑪관련단체	
⑫Digital Data	1-11(3) LH 27072012 0001 11(3)-VI-0001
⑬사진자료	※자료번호 입력

[자료조사카드]

<table>
<tr><td colspan="2" rowspan="6">
사진</td><td colspan="3">자료(기록물) 정보</td></tr>
<tr><td>②명칭</td><td colspan="2">활동사진</td></tr>
<tr><td>③자료번호</td><td colspan="2">1-11(3) LH 27072012 0001
11(3)-VI-0001</td></tr>
<tr><td>④형태</td><td colspan="2">구전</td></tr>
<tr><td>⑤재질</td><td colspan="2"></td></tr>
<tr><td>①</td><td>⑥분류</td><td colspan="2">전통적 공연예술(연행)/ 연희/영화</td></tr>
<tr><td colspan="2"></td><td>⑦크기(cm)</td><td colspan="2">가로(　　)세로(　　)높이(　　)</td></tr>
<tr><td colspan="3">인적(입수자) 정보</td><td colspan="3">입수 정보</td></tr>
<tr><td>⑧성명</td><td colspan="2">나 발렌틴(78세)</td><td>⑭입수일</td><td colspan="2">2012. 07. 20</td></tr>
<tr><td>⑨성별</td><td colspan="2">남</td><td>⑮입수구분</td><td colspan="2">기증 / 기탁 / 구입</td></tr>
<tr><td>⑩입수주소</td><td colspan="2">비쉬케크 **** Apt***-102동</td><td>⑯보존상태</td><td colspan="2">훼손심함 / 훼손 / 양호</td></tr>
<tr><td>⑪연락처</td><td colspan="2">(☎) 24-01-29</td><td>⑰가치여부</td><td colspan="2">상 / 중 / 하</td></tr>
<tr><td>⑫제작자/지역</td><td colspan="2">우즈벡, 타직기스탄, 키르키즈</td><td rowspan="2">⑱정보수집
동의여부</td><td colspan="2" rowspan="2">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td></tr>
<tr><td>⑬제작시기</td><td colspan="2">1940-50</td></tr>
<tr><td colspan="6">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td></tr>
<tr><td colspan="6"></td></tr>
<tr><td colspan="6">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td></tr>
<tr><td colspan="6"></td></tr>
<tr><td>※조사자</td><td colspan="2">강현모</td><td>※조사일시</td><td colspan="2">2012. 07. 27.</td></tr>
</table>

② [2분야]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현장실태조사카드]

<table>
<tr><td colspan="4">필수입력사항 2012년 7 월 27 일</td></tr>
<tr><td>①자료입력자</td><td colspan="3">강현모</td></tr>
<tr><td>②검증자</td><td colspan="3"></td></tr>
<tr><td>③종목</td><td colspan="3">목수의 도구</td></tr>
<tr><td>④알려진 다른 이름</td><td colspan="3"></td></tr>
<tr><td>⑤전승지역</td><td colspan="3">비쉬케크 **** *** Apt ***-102</td></tr>
<tr><td rowspan="3">⑥분류체계</td><td>대분류</td><td colspan="2">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td></tr>
<tr><td>중분류</td><td colspan="2">목칠공예</td></tr>
<tr><td>소분류</td><td colspan="2">생활 장식장</td></tr>
<tr><td colspan="4">⑦정의 및 내용</td></tr>
<tr><td colspan="4">1. 전승주체 : 비쉬케크 주민
2. 전승지역 : 비쉬케크
3. 전승내용 : 제보자의 아들이 목수질을 하였다고 한다. 제보자는 아버지가 목수질을 하였는데, 자신은 이런 목수질에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할아버지가 쓰던 목수질에 필요한 도구를 물려받아 생활에 필요한 장식장 등 상품을 만들어 팔아 생계를 유지하였다. 지금도 작은 아들은 목수질을 하고 있다고 한다.
4. 중요성과 보호방법 제안 :
5. 지역 내 주요관련 활동</td></tr>
<tr><td>⑧자료출처/참고자료</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4">⑨부가정보</td></tr>
<tr><td>⑩연구성과</td><td colspan="3"></td></tr>
<tr><td>⑪관련단체</td><td colspan="3"></td></tr>
<tr><td>⑫Digital Data</td><td colspan="3">1-11(3) LH 27072012 0001 11(3)-VI-0001</td></tr>
<tr><td>⑬사진자료</td><td colspan="3">※자료번호 입력</td></tr>
</table>

[자료조사카드]

<table>
<tr><td colspan="2" rowspan="6">
아들 목수를 설명하는 제보자</td><td colspan="3">자료(기록물) 정보</td></tr>
<tr><td>②명칭</td><td colspan="2">목수의 도구</td></tr>
<tr><td>③자료번호</td><td colspan="2">1-11(3) LH 27072012 0001
11(3)-VI-0001</td></tr>
<tr><td>④형태</td><td colspan="2">구전</td></tr>
<tr><td>⑤재질</td><td colspan="2"></td></tr>
<tr><td>⑥분류</td><td colspan="2">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목칠공예</td></tr>
<tr><td colspan="2">⑦크기(cm)</td><td colspan="2">가로( )세로( )높이( )</td></tr>
<tr><td colspan="2">인적(입수자) 정보</td><td colspan="3">입수 정보</td></tr>
<tr><td>⑧성명</td><td>나 발렌틴(78세)</td><td>⑭입수일</td><td colspan="2">2012. 07. 20</td></tr>
<tr><td>⑨성별</td><td>남</td><td>⑮입수구분</td><td colspan="2">기증 / 기탁 / 구입</td></tr>
<tr><td>⑩입수주소</td><td>비쉬케크 **** Apt***-102동</td><td>⑯보존상태</td><td colspan="2">훼손심함 / 훼손 / 양호</td></tr>
<tr><td>⑪연락처</td><td>(☎) 24-01-29</td><td>⑰가치여부</td><td colspan="2">상 / 중 / 하</td></tr>
<tr><td>⑫제작자/지역</td><td>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키즈스탄</td><td rowspan="2">⑱정보수집 동의여부</td><td colspan="2" rowspan="2">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td></tr>
<tr><td>⑬제작시기</td><td></td></tr>
<tr><td colspan="5">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td></tr>
<tr><td colspan="5"></td></tr>
<tr><td colspan="5">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td></tr>
<tr><td colspan="5"></td></tr>
<tr><td>※조사자</td><td>강현모</td><td>※조사일시</td><td colspan="2">2012. 07. 27</td></tr>
</table>

③ [3분야]의학[민간요법],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현장실태조사카드]

필수입력사항		2012년 7 월 29 일
①자료입력자	강현모	
②검증자		
③종목	못 먹어 배가 불러올 초를 먹이면 낫는다.	
④알려진 다른 이름		
⑤전승지역	비쉬케크 ****구역 호Apt. ****(**영순)댁	
⑥분류체계	대분류	의학[민간요법],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중분류	민간요법(의학)
	소분류	식물요법

⑦정의 및 내용

1. 전승주체 : 비쉬케크 주민
2. 전승지역 : 비쉬케크
3. 전승내용 :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초기에는 먹을 것이 없어 고려인들을 굶주려야 하였다. 그런데 아이들이 먹을 것이 먹지 못하자 헛배가 불러오게 되었다. 그런데 이랬을 때 병원시설도 제대로 되지 못하였던 곳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민간요법을 해결하여야 하였다. 그런 민간요법 중에 하나다 초를 먹이는 방법이다. 제보자도 어렸을 때 배가를 불러왔는데, 부친이 약국에 있었기 때문에 부황에 식초가 좋다고 말하면서 없다고 걱정하였다. 이때 형들이 들판에다 덧을 놓아 토끼를 잡아다가 팔아서 그것으로 시초를 사왔다고 한다. 그러자 부친이 사온 식초를 자기에게 먹여서 배의 부기가 빠져 살아 났다고 한다.
4. 중요성과 보호방법 제안 :
5. 지역 내 주요관련 활동

⑧자료출처/참고자료	

⑨부가정보

⑩연구성과	
⑪관련단체	
⑫Digital Data	1-11(3) LH 29072012 0001 11(3)-VI-0001
⑬사진자료	※자료번호 입력

[자료조사카드]

<table>
<tr><td colspan="2" rowspan="6">
①사진</td><td colspan="2">자료(기록물) 정보</td></tr>
<tr><td>②명칭</td><td>못 먹어 배가 불러올 초를 먹이면 낫는다.</td></tr>
<tr><td>③자료번호</td><td>1-11(3) LH 29072012 0001
11(3)-VI-0001</td></tr>
<tr><td>④형태</td><td></td></tr>
<tr><td>⑤재질</td><td></td></tr>
<tr><td>⑥분류</td><td>의학[민간요법],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민간요법(의학)/식물요법</td></tr>
<tr><td colspan="2">⑦크기(cm)</td><td>가로( )세로( )높이( )</td></tr>
<tr><td colspan="2">인적(입수자) 정보</td><td colspan="2">입수 정보</td></tr>
<tr><td>⑧성명</td><td>강 블라디미르(영순 : 83세)외 2명</td><td>⑭입수일</td><td>2012. 07. 29.</td></tr>
<tr><td>⑨성별</td><td>남</td><td>⑮입수구분</td><td>기증 / 기탁 / 구입</td></tr>
<tr><td>⑩입수주소</td><td>비쉬케크 **구역 **호Apt ****(**영순)댁</td><td>⑯보존상태</td><td>훼손심함 / 훼손 / 양호</td></tr>
<tr><td>⑪연락처</td><td>(☎) 53-44-12</td><td>⑰가치여부</td><td>상 / 중 / 하</td></tr>
<tr><td>⑫제작자/지역</td><td>비쉬케크</td><td rowspan="2">⑱정보수집 동의여부</td><td rowspan="2">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td></tr>
<tr><td>⑬제작시기</td><td>1</td></tr>
<tr><td colspan="4">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td></tr>
<tr><td colspan="4"></td></tr>
<tr><td colspan="4">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td></tr>
<tr><td colspan="4"></td></tr>
<tr><td>※조사자</td><td>강현모</td><td>※조사일시</td><td>2012. 07. 29.</td></tr>
</table>

④ [4분야]구전전통 및 표현

[현장실태조사카드]

필수입력사항		2012년 7 월 27 일
①자료입력자	강현모	
②검증자		
③종목	농부가	
④알려진 다른 이름	씨를 뿌려라	
⑤전승지역	비쉬케크 83구역 30번 Apt 11호	
⑥분류체계	대분류	구전 전통 및 표현
	중분류	민요
	소분류	노동요

⑦정의 및 내용

1. 전승주체 : 비쉬케크 주민
2. 전승지역 : 비쉬케크 ****
3. 전승내용 : 농부가는 한국에서 전승되는 민요가 약간 차이가 있으나 그 전체적의 의미는 비슷하다. 이곳 키르키즈스탄에 전승되는 농부가의 내용은 씨를 뿌리며 활동하는 농사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그 결과 수확을 얻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이 노래는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것 같다.
4. 중요성과 보호방법 제안 : .
5. 지역 내 주요관련 활동

⑧자료출처/참고자료	

⑨부가정보

⑩연구성과	
⑪관련단체	
⑫Digital Data	1-11(3) LH 27072012 0001 11(3)-VI-0001
⑬사진자료	※자료번호 입력

[자료조사카드]

<table>
<tr><td colspan="2" rowspan="6"> </td><td colspan="2">자료(기록물) 정보</td></tr>
<tr><td>②명칭</td><td>농부가</td></tr>
<tr><td>③자료번호</td><td>1-11(3) LH 27072012 0001
11(3)-VI-0001</td></tr>
<tr><td>④형태</td><td>구전</td></tr>
<tr><td>⑤재질</td><td></td></tr>
<tr><td>⑥분류</td><td>구비전통과 표현/ 민요 / 노동요</td></tr>
<tr><td colspan="2">⑦크기(cm)</td><td>가로(　　)세로(　　)높이(　　)</td></tr>
<tr><td colspan="2">인적(입수자) 정보</td><td colspan="2">입수 정보</td></tr>
<tr><td>⑧성명</td><td>김 로자(82세)</td><td>⑭입수일</td><td>2012. 07. 27</td></tr>
<tr><td>⑨성별</td><td>여</td><td>⑮입수구분</td><td>기증 / 기탁 / 구입</td></tr>
<tr><td>⑩입수주소</td><td>비쉬케크 8구역 30호Apt 11호. 제보자 자택</td><td>⑯보존상태</td><td>훼손심함 / 훼손 / 양호</td></tr>
<tr><td>⑪연락처</td><td>(☎) 5 1 - 1 8 - 5 3 , 0551-50-64-30</td><td>⑰가치여부</td><td>상 / 중 / 하</td></tr>
<tr><td>⑫제작자/지역</td><td>비쉬케크</td><td rowspan="2">⑱정보수집 동의여부</td><td rowspan="2">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td></tr>
<tr><td>⑬제작시기</td><td></td></tr>
<tr><td colspan="4">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td></tr>
<tr><td colspan="4">농부가 씨를 뿌려 농사를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것 같다.</td></tr>
<tr><td colspan="4">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td></tr>
<tr><td colspan="4"></td></tr>
<tr><td>※조사자</td><td>강현모</td><td>※조사일시</td><td>2012. 07. 27</td></tr>
</table>

⑤ [5분야]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현장실태조사카드]

필수입력사항		2012년 7 월 27 일
①자료입력자	강 현 모	
②검증자		
③종목	시루떡 먹기	
④알려진 다른 이름		
⑤전승지역	비쉬케크 **** *** Apt ***-102	
⑥분류체계	대분류	의식주 등 전통적인 생활관습
	중분류	세시풍속
	소분류	겨울

⑦정의 및 내용

1. 전승주체 : 비쉬케크 **** 주민
2. 전승지역 : 비쉬케크
3. 전승내용 : 이곳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은 가을 농사일을 다 끝나고 동삼(한겨울)이 되면, 열콩(팥)을 삶아 맨 밑에 놓고 그 위에 쌀가루를 놓은 다음에 다시 열콩을 넣은 시루떡을 해 먹는다. 이런 시루떡 해먹기는 우리나라에서 10월 상달에 집안의 고사를 지내기 위하여 시루떡을 해서 바치는 풍속에서 신앙적 요소가 타락하고 오르지 먹는 것에만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먹는 시점도 동삼으로 한겨울로 이동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4. 중요성과 보호방법 제안 :
5. 지역 내 주요관련 활동

⑧자료출처/참고자료	
⑨부가정보	
⑩연구성과	
⑪관련단체	
⑫Digital Data	※자료번호 입력
⑬사진자료	1-11(3) LH 27072012 0001 11(3)-VI-0001

[자료조사카드]

<table>
<tr><td rowspan="6">①사진</td><td colspan="2">자료(기록물) 정보</td></tr>
<tr><td>②명칭</td><td>시루떡 먹기</td></tr>
<tr><td>③자료번호</td><td>1-11(3) LH 27072012 0001
11(3)-VI-0001</td></tr>
<tr><td>④형태</td><td>구전</td></tr>
<tr><td>⑤재질</td><td></td></tr>
<tr><td>⑥분류</td><td>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세시풍속 / 겨울</td></tr>
<tr><td>⑦크기(cm)</td><td>가로( )세로( )높이( )</td></tr>
<tr><td colspan="2">인적(입수자) 정보</td><td colspan="2">입수 정보</td></tr>
<tr><td>⑧성명</td><td>나 발렌틴(78세)</td><td>⑭입수일</td><td>2012. 07. 20</td></tr>
<tr><td>⑨성별</td><td>남</td><td>⑮입수구분</td><td>기증 / 기탁 / 구입</td></tr>
<tr><td>⑩입수주소</td><td>비쉬케크 **** Apt***-102동</td><td>⑯보존상태</td><td>훼손심함 / 훼손 / 양호</td></tr>
<tr><td>⑪연락처</td><td>(☎) 24-01-29</td><td>⑰가치여부</td><td>상 / 중 / 하</td></tr>
<tr><td>⑫제작자/지역</td><td>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키즈스탄</td><td rowspan="2">⑱정보수집 동의여부</td><td rowspan="2">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td></tr>
<tr><td>⑬제작시기</td><td>1940-50</td></tr>
<tr><td colspan="4">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td></tr>
<tr><td colspan="4">농사일을 다 끝나고 동삼이 되면, 열콩(팥)을 쌂아 맨 밑에 놓고 그 위에 쌀가루를 놓은 다음에 다시 열콩을 넣은 시루떡을 해 먹는다.</td></tr>
<tr><td colspan="4">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td></tr>
<tr><td colspan="4"></td></tr>
<tr><td>※조사자</td><td>강 현 모</td><td>※조사일시</td><td>2012. 07. 27.</td></tr>
</table>

⑥ [6분야]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현장실태조사카드]

필수입력사항		2012년 7 월 29 일
①자료입력자	강 현 모	
②검증자		
③종목	정월 대보름 방토 2	
④알려진 다른 이름		
⑤전승지역	추 주(州) 카라발타 박 티모페이 댁	
⑥분류체계 **	대분류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중분류	무속신앙
	소분류	양재굿

⑦정의 및 내용

1. 전승주체 : 카라발타 주민
2. 전승지역 : 카라발타
3. 전승내용 : 겨울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게 된다. 특히 겨울철에 목이 아파면 당연히 점장인 하락시를 찾아가서 점을 치게 된다. 그런데 하락시에 점을 치지만 하락시는 병을 고치지는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그와 다른 점장인 신선이에게 가서 병을 물리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그러면 신선이는 대개 달이 밝은 밤에, 특히 정월 대보름에 치병제의를 하게 된다고 한다. 치병제의를 할 때는 신선이 대개 밥, 닭, 술을 준비한 뒤에 이를 가지고 구룡물(좋은 우물)로 나아가서 무엇인가 노래를 부르거나 말을 하면서 불을 가지고 환자에게 휘두른다. 이는 아마도 불로 그 마귀를 태우는 소거의 의미, 청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뒤에 신선이 가지고 갔던 칼을 던져서 점을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한다. 이때 칼이 똑바로 밖으로 나가면 잘 치병이 된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다시 반복을 한다고 한다.
5. 지역 내 주요관련 활동

⑧자료출처/참고자료	
⑨부가정보	
⑩연구성과	
⑪관련단체	
⑫Digital Data	1-11(3) LH 29072012 0001 11(3)-VI-0001
⑬사진자료	※자료번호 입력

[자료조사카드]

<table>
<tr><td colspan="2" rowspan="6">
왼쪽이 제보자</td><td colspan="2">자료(기록물) 정보</td></tr>
<tr><td>②명칭</td><td>정월 대보름 방토 2</td></tr>
<tr><td>③자료번호</td><td>1-11(3) LH 29072012 0001
11(3)-VI-0001</td></tr>
<tr><td>④형태</td><td></td></tr>
<tr><td>⑤재질</td><td></td></tr>
<tr><td>⑥분류</td><td>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무속신앙/ 양재굿</td></tr>
<tr><td colspan="2">⑦크기(cm)</td><td>가로(　　)세로(　　)높이(　　)</td></tr>
<tr><td colspan="2">인적(입수자) 정보</td><td colspan="2">입수 정보</td></tr>
<tr><td>⑧성명</td><td>박 풀로라(69세)</td><td>⑭입수일</td><td>2012. 07. 29.</td></tr>
<tr><td>⑨성별</td><td>여</td><td>⑮입수구분</td><td>기증 / 기탁 / 구입</td></tr>
<tr><td>⑩입수주소</td><td>추 주(州) 카라발타 박
티모페이 댁</td><td>⑯보존상태</td><td>훼손심함 / 훼손 / 양호</td></tr>
<tr><td>⑪연락처</td><td>(☎) 4-16-29</td><td>⑰가치여부</td><td>상 / 중 / 하</td></tr>
<tr><td>⑫제작자/지역</td><td>카라발타</td><td rowspan="2">⑱정보수집
동의여부</td><td rowspan="2">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td></tr>
<tr><td>⑬제작시기</td><td>1</td></tr>
<tr><td colspan="4">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td></tr>
<tr><td colspan="4"></td></tr>
<tr><td colspan="4">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td></tr>
<tr><td colspan="4"></td></tr>
<tr><td>※조사자</td><td>강 현 모</td><td>※조사일시</td><td>2012. 07. 29.</td></tr>
</table>

⑦ [7분야]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현장실태조사카드]

필수입력사항		2012년 7 월 28 일
①자료입력자	강 현 모	
②검증자		
③종목	소꿉놀이	
④알려진 다른 이름		
⑤전승지역	비쉬케크 쥬우살리와 12호집	
⑥분류체계	대분류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중분류	놀이
	소분류	개인놀이

⑦정의 및 내용

1. 전승주체 : 비쉬케크 주민
2. 전승지역 : 비쉬케크
3. 전승내용 : 제보자는 소꿉놀이를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사람의 역할을 말하면서 하는 놀이이라고 하였다. 이는 실제로는 인형놀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런데 제보자의 말에 의하여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상을 차려 놓고 집안 살림놀이를 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놀이를 병행하였다고 한다. 국내에서 보고된 소꿉놀이는 이형을 만들기 보다는 어린 아이들이가 변장하지 않고 남편과 아내를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릇 깨진 것이나 여러 가지 물건을 갖다가 상차림이나 살림살이로 대체하고 놀았던 놀이다. 그리고 인형놀이는 수수깡이나 부들 풀을 이용하여 인형을 만들어 상차림이나 집안 살림살이보다는 남녀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놀이라는 점에서 이곳의 소꿉놀이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상태라 하겠다.
4. 중요성과 보호방법 제안 : .
5. 지역 내 주요관련 활동

⑧자료출처/참고자료	

⑨부가정보

⑩연구성과	
⑪관련단체	
⑫Digital Data	1-11(3) LH 28072012 0001 11(3)-VI-0001
⑬사진자료	※자료번호 입력

[자료조사카드]

<table>
<tr><td colspan="2" rowspan="6">
강일레라와 강지안나</td><td colspan="2">자료(기록물) 정보</td></tr>
<tr><td>②명칭</td><td>소꼽놀이</td></tr>
<tr><td>③자료번호</td><td>1-11(3) LH 28072012 0001
11(3)-VI-0001</td></tr>
<tr><td>④형태</td><td>구전</td></tr>
<tr><td>⑤재질</td><td></td></tr>
<tr><td>⑥분류</td><td>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예 무예/놀이 /개인놀이</td></tr>
<tr><td colspan="2">인적(입수자) 정보</td><td colspan="2">입수 정보</td></tr>
<tr><td>⑧성명</td><td>강 지안나(옥순, 89) 강 일레라(75세)</td><td>⑭입수일</td><td>2012. 07. 28</td></tr>
<tr><td>⑨성별</td><td>여</td><td>⑮입수구분</td><td>기증 / 기탁 / 구입</td></tr>
<tr><td>⑩입수주소</td><td>비쉬케크 쥬우살리와 12호집</td><td>⑯보존상태</td><td>훼손심함 / 훼손 / <u>양호</u></td></tr>
<tr><td>⑪연락처</td><td>(☎) 35-07-46., 21-42-80</td><td>⑰가치여부</td><td>상 / <u>중</u> / 하</td></tr>
<tr><td>⑫제작자/지역</td><td>비쉬케크</td><td rowspan="2">⑱정보수집 동의여부</td><td rowspan="2"><u>동의 함</u> / 동의하지 않음</td></tr>
<tr><td>⑬제작시기</td><td></td></tr>
<tr><td colspan="4">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td></tr>
<tr><td colspan="4">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사람의 역할을 말하면서 하는 놀이이다. 이때 상차림이나 여러 가지 놀이를 병행하게 된다.</td></tr>
<tr><td colspan="4">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td></tr>
<tr><td colspan="4"></td></tr>
<tr><td>※조사자</td><td>강 현 모</td><td>※조사일시</td><td>2012. 07. 28</td></tr>
</table>

4) 러시아 연해주

① [1분야]전통적 공연예술(연행)
[현장실태조사카드]

필수입력사항		2012년 8월 11일
①자료입력자	안상경	
②검증자		
③종목	조선노래가무단	
④알려진 다른 이름		
⑤전승지역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⑥분류체계	대분류	전통적 공연예술(연행)
	중분류	음악
	소분류	

⑦정의 및 내용

1. 전승주체

①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김인근(1932년생), 올가에서 출생해서 1937년에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로 강제이주, 1956년에 우수리스크로 재이주

②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김진주(1932년생), 니콜라스에서 출생해서 1937년에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 1957년에 우수리스크로 재이주

③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나가이·강스베틀라나(1939년생), 1937년에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로 강제이주, 1991년에 우수리스크로 재이주

④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허스베타(1936년생), 1937년에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 1997년에 우수리스크로 재이주

⑤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최옥순(1936년생), 1937년에 하얼빈으로 강제이주, 하얼빈에서 30년간 회사 경영, 1992년에 우수리스크로 재이주

⑥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이류드밀라(1949년생), 1937년에 파키스탄으로 강제이주, 1997년에 우수리스크로 재이주

⑦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최소망(1934년생), 1937년에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 이 과정에서 부모님과 떨어져 고아 신세가 됨, 이에 주변 사람들이 소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줌, 카자흐스탄에서 역사 교사를 활동했으며, 1994년에 우수리스크로 재 이주

⑧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김마리야(1931년생), 수찬에서 출생해서 1937년에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 1955년에 우수리스크로 재이주

⑨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윤스타니슬라프(1937년생), 1937년에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 1955년에 우수리스크로 재이주, 고려인문화센터 노인단 회장

2. 전승지역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3. 전승내용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에는 고려인문화센터가 있다. 고려인문화센터는 고려신문사, 우수리스크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노인단[노인회]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 중 노인단[노인회]은 조선노래가무단과 모란봉가무단[고려가무단]을 포함하고 있다. 노인단[노인회]는 1956년에 장례식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려인들을 돕기 위해 창설되었다. 창설 당시 회원이 300여 명이나 되었지만 흐지부지 운영되다가, 198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현재 조선노래가무단원은 남성 4명, 여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원들은 노래뿐만 아니라 전통 춤까지도 구사할 줄 안다. 예컨대 부채춤, 꽃춤, 북춤, 스카프춤 등인데, 현재 북한 예술인 김예나로부터 지도를 받고 있다. 그 전 1994년부터 2003년까지는 북한 예술인 김영희로부터 지도를 받았다. 그러나 김영희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본국으로 소환을 당해 더 이상 지도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고려인문화센터 명의로 북한 정부에 지속적으로 예술인 지원 요청을 해 김예나로부터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조선노래가무단원들이 생일잔치나 환갑잔치 등에 초빙되어 공연을 해주고 받은 돈을 모아, 김예나에게 일종의 연봉식으로 1년에 만 불을 지급한다. 또 위 <전승 주체>에서 밝힌 9명의 노인들은 모두 조선노래가무단 회원들로 5년 전부터 일 주일에 두 번씩 주말을 이용해 2~3시간 씩 조선노래를 배운다. 지도자는 고 표드르(1943년생,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서 출생, 1995년에 우수리스크로 재이주)로서 우수리스크 문화예술학교에서 바이올린, 피아노, 지휘 등을 교육받은 재원이다. 고 표드르는 죽기 전에 세 가지 목표가 있다. 첫째는 아리랑을 고려인들에게 전수시키는 일이고, 둘째는 조선노래가무단의 회원을 더욱 많이 확보하는 일이고, 셋째는 홀로 사는 고려인 독거노인들을 후원하는 일이다. 금번 현지조사에서 김인근은 '사랑아 어찌 늙으랴'를, 김진주는 '눈물 젖은 두만강'을, 나가이・강스베틀라나는 '고향생각'을, 허스베틀라나는 '노들강변'을, 최옥순은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를, 이류드밀라는 '제비가'를, 최소망은 '그리운 고향'을, 김마리야는 '고국산천, '경치도 좋지 등을 저마다 불렀다. 또한 '밀양아리랑', '아리랑', '씨를 활활 뿌리자'

4. 중요성과 보호방법 제안

5. 지역 내 주요관련 활동

⑧자료출처/참고자료	
⑨부가정보	
⑩연구성과	
⑪관련단체	
⑫Digital Data	※자료번호 입력
⑬사진자료	※자료번호 입력

[자료조사카드]

<table>
<tr><td colspan="2" rowspan="6"> </td><td colspan="3">자료(기록물) 정보</td></tr>
<tr><td>②명칭</td><td colspan="2">조선노래가무단</td></tr>
<tr><td>③자료번호</td><td colspan="2"></td></tr>
<tr><td>④형태</td><td colspan="2"></td></tr>
<tr><td>⑤재질</td><td colspan="2"></td></tr>
<tr><td>⑥분류</td><td colspan="2">전통적 공연예술(연행) - 음악</td></tr>
<tr><td colspan="2">인적(입수자) 정보</td><td>⑦크기(cm)</td><td colspan="2">가로( ), 세로( ), 높이( )</td></tr>
<tr><td colspan="3">입수 정보</td><td colspan="2"></td></tr>
<tr><td>⑧성명</td><td>김인근, 김진주 외</td><td>⑭입수일</td><td colspan="2">2012. 08. 11</td></tr>
<tr><td>⑨성별</td><td>남 / 여</td><td>⑮입수구분</td><td colspan="2">기증 / 기탁 / 구입</td></tr>
<tr><td>⑩입수주소</td><td></td><td>⑯보존상태</td><td colspan="2">훼손심함 / 훼손 / 양호</td></tr>
<tr><td>⑪연락처</td><td>(☎)</td><td>⑰가치여부</td><td colspan="2">상 / 중 / 하</td></tr>
<tr><td>⑫제작자/지역</td><td></td><td rowspan="2">⑱정보수집
동의여부</td><td colspan="2" rowspan="2">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td></tr>
<tr><td>⑬제작시기</td><td></td></tr>
<tr><td colspan="5">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td></tr>
<tr><td colspan="5"></td></tr>
<tr><td colspan="5">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td></tr>
<tr><td colspan="5"></td></tr>
<tr><td>※조사자</td><td>안 상 경</td><td>※조사일시</td><td colspan="2">2012. 08. 11</td></tr>
</table>

② [2분야]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해당 사항 없음

③ [3분야]의학[민간요법],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현장실태조사카드]

필수입력사항		2012년 8월 13일
①자료입력자	안상경	
②검증자		
③종목	떡구시	
④알려진 다른 이름		
⑤전승지역	러시아 연해주 파르티잔스크	
⑥분류체계	대분류	의학[민간요법],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중분류	농업
	소분류	재래농기구

⑦정의 및 내용

1. 전승주체
러시아 연해주 파르티잔스크 윤소피아(1941년생),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서 출생, 1956년 파르티잔스크로 재이주, 아버지는 탄광촌에서 일하다가 목수로 활동, 조부의 고향은 함경북도

2. 전승지역
러시아 연해주 파르티잔스크

3. 전승내용
러시아 연해주 파르티잔스크 윤소피아(1941년생)의 집에는 예전에 사용하던 떡구시가 남아 있다.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명절이나 제사 때 이 떡구시를 이용해 찰떡을 직접 빚었다. 길이는 14.5m이며 너비는 6.5cm이다.

4. 중요성과 보호방법 제안

5. 지역 내 주요관련 활동

⑧자료출처/참고자료	
⑨부가정보	
⑩연구성과	
⑪관련단체	
⑫Digital Data	※자료번호 입력
⑬사진자료	※자료번호 입력

[자료조사카드]

<table>
<tr><td colspan="2" rowspan="6"> </td><td colspan="2">자료(기록물) 정보</td></tr>
<tr><td>②명칭</td><td>떡구시</td></tr>
<tr><td>③자료번호</td><td></td></tr>
<tr><td>④형태</td><td></td></tr>
<tr><td>⑤재질</td><td></td></tr>
<tr><td>⑥분류</td><td>의학[민간요법],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농업</td></tr>
<tr><td colspan="2">인적(입수자) 정보</td><td>⑦크기(cm)</td><td>가로( ), 세로( ), 높이( )</td></tr>
<tr><td>⑧성명</td><td>윤소피아</td><td colspan="2">입수 정보</td></tr>
<tr><td>⑨성별</td><td>남 / 여</td><td>⑭입수일</td><td>2012. 08. 13</td></tr>
<tr><td>⑩입수주소</td><td></td><td>⑮입수구분</td><td>기증 / 기탁 / 구입</td></tr>
<tr><td>⑪연락처</td><td>(☎)</td><td>⑯보존상태</td><td>훼손심함 / 훼손 / 양호</td></tr>
<tr><td>⑫제작자/지역</td><td></td><td>⑰가치여부</td><td>상 / 중 / 하</td></tr>
<tr><td>⑬제작시기</td><td></td><td rowspan="2">⑱정보수집 동의여부</td><td rowspan="2">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td></tr>
<tr><td colspan="4">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td></tr>
<tr><td colspan="4"></td></tr>
<tr><td colspan="4">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td></tr>
<tr><td colspan="4"></td></tr>
<tr><td>※조사자</td><td>안 상 경</td><td>※조사일시</td><td>2012. 08. 13</td></tr>
</table>

④ [4분야]구전전통 및 표현
[현장실태조사카드]

필수입력사항		2012년 8월 11일
①자료입력자	안상경	
②검증자		
③종목	제비가	
④알려진 다른 이름		
⑤전승지역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⑥분류체계	대분류	구전전통 및 표현
	중분류	민요
	소분류	유희요

⑦정의 및 내용

1. 전승주체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이류드밀라(1949년생), 1937년에 파키스탄으로 강제이주, 1997년에 우수리스크로 재이주

2. 전승지역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3. 전승내용
이류드밀라는 조선노래가무단 회원으로 5년 전부터 일 주일에 두 번씩 주말을 이용해 2~3시간 씩 고표드르(1943년생,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서 출생, 1995년에 우수리스크로 재이주, 예술 전문학교 수료)에게 조선노래를 배운다. 이류드밀라가 가장 잘 부르는 노래는 '제비가'이다. 사설은 다음과 같다. "푸른 하늘에 계시면서 봄소식 전하려고 / 지지배배 노래하고 제비가 돌아왔다네 // 울어보자 제비야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 고향이 기다릴까 보고싶어 돌아왔다네 // 흰구름을 펼쳐보니 봄소식이 빛났다고 / 지지배배 노래하며 제비가 돌아왔다네 // 물어보자 제비야 어찌하여 돌아왔으냐 / 인심 좋은 고향 사람 그리워 돌아왔다네"

4. 중요성과 보호방법 제안

5. 지역 내 주요관련 활동

⑧자료출처/참고자료	
⑨부가정보	
⑩연구성과	
⑪관련단체	
⑫Digital Data	※자료번호 입력
⑬사진자료	※자료번호 입력

[자료조사카드]

<table>
<tr><td colspan="2" rowspan="6"> </td><td colspan="2">자료(기록물) 정보</td></tr>
<tr><td>②명칭</td><td>제비가</td></tr>
<tr><td>③자료번호</td><td></td></tr>
<tr><td>④형태</td><td></td></tr>
<tr><td>⑤재질</td><td></td></tr>
<tr><td>⑥분류</td><td>구전전통 및 표현 - 민요</td></tr>
<tr><td colspan="2">인적(입수자) 정보</td><td colspan="2">입수 정보</td></tr>
<tr><td>⑧성명</td><td>이류드밀라</td><td>⑭입수일</td><td>2012. 08. 11</td></tr>
<tr><td>⑨성별</td><td>남 / <u>여</u></td><td>⑮입수구분</td><td>기증 / 기탁 / 구입</td></tr>
<tr><td>⑩입수주소</td><td></td><td>⑯보존상태</td><td>훼손심함 / 훼손 / 양호</td></tr>
<tr><td>⑪연락처</td><td>(☎)</td><td>⑰가치여부</td><td>상 / <u>중</u> / 하</td></tr>
<tr><td>⑫제작자/지역</td><td></td><td rowspan="2">⑱정보수집 동의여부</td><td rowspan="2"><u>동의 함</u> / 동의하지 않음</td></tr>
<tr><td>⑬제작시기</td><td></td></tr>
<tr><td colspan="4">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td></tr>
<tr><td colspan="4"></td></tr>
<tr><td colspan="4">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td></tr>
<tr><td colspan="4"></td></tr>
<tr><td>※조사자</td><td>안 상 경</td><td>※조사일시</td><td>2012. 08. 11</td></tr>
</table>

⑤ [5분야]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현장실태조사카드]

필수입력사항		2012년 8월 11일
①자료입력자	안상경	
②검증자		
③종목	단오차례	
④알려진 다른 이름		
⑤전승지역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⑥분류체계	대분류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중분류	생활관습
	소분류	세시풍속

⑦정의 및 내용

1. 전승주체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윤스타니슬라프

2. 전승지역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3. 전승내용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윤스타니슬라프(1937년생, 고려인문화센터 노인단 회장)는 한식 차례, 단오차례, 추석차례 등 일 년에 세 번에 걸쳐 차례를 올린다. 우선 집에서 차례를 올린다. 제수로 삶은 돼지고기, 삶은 닭, 구운 생선, 지름굽이, 사과, 배, 포도, 밥[진지], 물, 사탕, 초콜릿, 부추채, 콩나물채, 감자채 등을 준비한다. 제물을 진설하고, 초에 불을 켜고 향을 지핀다. 술잔을 올리고 배례하는데 남녀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 예컨대 할아버지를 위한 차례이면 살아 있는 할머니가 먼저 술잔을 올리고 배례하며, 할머니를 위한 차례이면 살아 있는 할아버지가 먼저 술잔을 올리고 배례한다. 이후 항렬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배례한다. 배례를 마치면, '진지밥'을 물에 떠놓고 젓가락을 제수 위에 올려놓는다. 물에 떠 놓은 진지밥을 '갱물밥'이라고 하는데, 약간의 제수와 함께 이를 또 산소로 가져가 진설하고 배례한다.

4. 중요성과 보호방법 제안

5. 지역 내 주요관련 활동

⑧자료출처/참고자료	
⑨부가정보	
⑩연구성과	
⑪관련단체	
⑫Digital Data	※자료번호 입력
⑬사진자료	※자료번호 입력

[자료조사카드]

<table>
<tr><td colspan="2" rowspan="6"></td><td colspan="2">자료(기록물) 정보</td></tr>
<tr><td>②명칭</td><td>단오차례</td></tr>
<tr><td>③자료번호</td><td></td></tr>
<tr><td>④형태</td><td></td></tr>
<tr><td>⑤재질</td><td></td></tr>
<tr><td>⑥분류</td><td>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생활관습</td></tr>
<tr><td colspan="2">인적(입수자) 정보</td><td>⑦크기(cm)</td><td>가로( ), 세로( ), 높이( )</td></tr>
<tr><td colspan="2">⑧성명 : 윤스타니슬라프</td><td colspan="2">입수 정보</td></tr>
<tr><td colspan="2">⑨성별 : 남 / 여</td><td>⑭입수일</td><td>2012. 08. 11</td></tr>
<tr><td colspan="2">⑩입수주소 :</td><td>⑮입수구분</td><td>기증 / 기탁 / 구입</td></tr>
<tr><td colspan="2">⑪연락처 : (☎)</td><td>⑯보존상태</td><td>훼손심함 / 훼손 / 양호</td></tr>
<tr><td colspan="2">⑫제작자/지역 :</td><td>⑰가치여부</td><td>상 / 중 / 하</td></tr>
<tr><td colspan="2">⑬제작시기 :</td><td>⑱정보수집 동의여부</td><td>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td></tr>
<tr><td colspan="4">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td></tr>
<tr><td colspan="4"></td></tr>
<tr><td colspan="4">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td></tr>
<tr><td colspan="4"></td></tr>
<tr><td>※조사자</td><td>안 상 경</td><td>※조사일시</td><td>2012. 08. 11</td></tr>
</table>

⑥ [6분야]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현장실태조사카드]

필수입력사항		2012년 8월 10일
①자료입력자	안상경	
②검증자		
③종목	무서움증 물림	
④알려진 다른 이름	방토	
⑤전승지역	러시아 연해주 아르촘	
⑥분류체계	대분류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중분류	무속신앙
	소분류	

⑦정의 및 내용

1. 전승주체

러시아 연해주 아르촘 유엘라(1943년생),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서 출생, 부모님과 함께 1959년에 아르촘으로 재이주

2. 전승지역

러시아 연해주 아르촘

3. 전승내용

러시아 연해주 아르촘에 거주하고 있는 유엘라의 시어머니는 1985년에 돌아가셨다. 당시 둘째 아들이 16살이었는데, 장례를 치른 후 웬일인지 집 밖 출입을 하지 못했다. 이에 점치는 유명한 할아버지에게 의뢰해서 방토를 했다. 우선 아들의 베개 아래에 부엌칼을 놓아두고 잠들게 했다. 그리고 쌀가루를 반죽해서 새알심 마냥 세 개를 만들었다. 자정을 기해 유명한 할아버지와 함께 삼거리로 나가 버들가지 세 가지를 작은 꽃 모양으로 만들고, 새알심 반죽을 그 중간에 놓아 장식했다. 그 아래에는 부적을 깔아 놓았다. 이튿날 아침 7시 경에 그곳을 가보니 부적 등이 사라졌다. 점치는 유명한 할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무서움증도 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둘째 아들의 무서움증이 사라졌다.

4. 중요성과 보호방법 제안

5. 지역 내 주요관련 활동

⑧자료출처/참고자료	
⑨부가정보	
⑩연구성과	
⑪관련단체	
⑫Digital Data	※자료번호 입력
⑬사진자료	※자료번호 입력

[자료조사카드]

<table>
<tr><td colspan="2" rowspan="6"></td><td colspan="2">자료(기록물) 정보</td></tr>
<tr><td>②명칭</td><td>무서움증 물림</td></tr>
<tr><td>③자료번호</td><td></td></tr>
<tr><td>④형태</td><td></td></tr>
<tr><td>⑤재질</td><td></td></tr>
<tr><td>⑥분류</td><td>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 무속신앙</td></tr>
<tr><td colspan="2">인적(입수자) 정보</td><td>⑦크기(cm)</td><td>가로( ), 세로( ), 높이( )</td></tr>
<tr><td colspan="2">⑧성명 유엘라</td><td colspan="2">입수 정보</td></tr>
<tr><td colspan="2">⑨성별 남 / 여</td><td>⑭입수일</td><td>2012. 08. 10</td></tr>
<tr><td colspan="2">⑩입수주소</td><td>⑮입수구분</td><td>기증 / 기탁 / 구입</td></tr>
<tr><td colspan="2">⑪연락처 (☎)</td><td>⑯보존상태</td><td>훼손심함 / 훼손 / 양호</td></tr>
<tr><td colspan="2">⑫제작자/지역</td><td>⑰가치여부</td><td>상 / 중 / 하</td></tr>
<tr><td colspan="2">⑬제작시기</td><td>⑱정보수집 동의여부</td><td>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td></tr>
<tr><td colspan="4">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td></tr>
<tr><td colspan="4"></td></tr>
<tr><td colspan="4">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td></tr>
<tr><td colspan="4"></td></tr>
<tr><td>※조사자</td><td>안 상 경</td><td>※조사일시</td><td>2012. 08. 10</td></tr>
</table>

⑦ [7분야]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현장실태조사카드]

필수입력사항		2012년 8월 10일
①자료입력자	안상경	
②검증자		
③종목	연날리기	
④알려진 다른 이름		
⑤전승지역	러시아 연해주 아르촘	
⑥분류체계	대분류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중분류	놀이
	소분류	개인놀이

⑦정의 및 내용

1. 전승주체
① 러시아 연해주 아르촘 유엘라(1943년생),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서 출생, 부모님과 함께 1959년에 아르촘으로 재이주
② 러시아 연해주 아르촘 김타티아나(1945년생), 한국식 이름은 김영희,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출생, 부친이 레닌그라드에서는 교사로 활동,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식료품 기관에서 활동, 1990년에 아르촘으로 재이주, 조부모의 고향은 함경북도
③ 러시아 연해주 아르촘 문라이사(1947년생), 우즈베키스탄 씨리다리아에서 출생, 부모님가 함께 1965년에 아르촘으로 재이주
④ 러시아 연해주 아르촘 김알라(1949년생),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서 출생, 부보님과 함께 1951년에 아르촘으로 재이주

2. 전승지역
러시아 연해주 아르촘

3. 전승내용
아르촘에서는 양력 5월 5일 어린이날에 연을 날린다. 1996년에 김타티아나가 연해주의 고려인 연구자 중 한 사람인 드자릴바쉬노바가 발행한 자료를 참고해 제안했다. 이때부터 3년간 국립 극동기술대학교 아르촘 분교에서 교회 학생들이 참여해 연을 날렸다. 연은 꼬리연이었으며, 각기 종이에 본인의 소원을 적어 붙이고 연줄을 끊어 날려버렸다. 그리고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

4. 중요성과 보호방법 제안

5. 지역 내 주요관련 활동

⑧자료출처/참고자료	

⑨부가정보

⑩연구성과	
⑪관련단체	
⑫Digital Data	※자료번호 입력
⑬사진자료	※자료번호 입력

[자료조사카드]

<table>
<tr><td colspan="2" rowspan="6"></td><td colspan="2">자료(기록물) 정보</td></tr>
<tr><td>②명칭</td><td>연날리기</td></tr>
<tr><td>③자료번호</td><td></td></tr>
<tr><td>④형태</td><td></td></tr>
<tr><td>⑤재질</td><td></td></tr>
<tr><td>⑥분류</td><td>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 놀이</td></tr>
<tr><td colspan="2">인적(입수자) 정보</td><td>⑦크기(cm)</td><td>가로( ), 세로( ), 높이( )</td></tr>
<tr><td colspan="2">인적(입수자) 정보</td><td colspan="2">입수 정보</td></tr>
<tr><td>⑧성명</td><td>유엘라, 김타티아나 등</td><td>⑭입수일</td><td>2012. 08. 10</td></tr>
<tr><td>⑨성별</td><td>남 / 여</td><td>⑮입수구분</td><td>기증 / 기탁 / 구입</td></tr>
<tr><td>⑩입수주소</td><td></td><td>⑯보존상태</td><td>훼손심함 / 훼손 / 양호</td></tr>
<tr><td>⑪연락처</td><td>(☎)</td><td>⑰가치여부</td><td>상 / 중 / 하</td></tr>
<tr><td>⑫제작자/지역</td><td></td><td rowspan="2">⑱정보수집
동의여부</td><td rowspan="2">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td></tr>
<tr><td>⑬제작시기</td><td></td></tr>
<tr><td colspan="4">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td></tr>
<tr><td colspan="4"></td></tr>
<tr><td colspan="4">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td></tr>
<tr><td colspan="4"></td></tr>
<tr><td>※조사자</td><td>안 상 경</td><td>※조사일시</td><td>2012. 08. 10</td></tr>
</table>

5) 러시아 사할린주

① [1분야]전통적 공연예술(연행)

[현장실태조사카드]

필수입력사항		2012년 8월 6일
①자료입력자	안상경	
②검증자		
③종목	예술극단	
④알려진 다른 이름		
⑤전승지역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⑥분류체계	대분류	전통적 공연예술(연행)
	중분류	연희
	소분류	

⑦정의 및 내용

1. 전승주체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예술극단팀

2. 전승지역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3. 전승내용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1951년에 예술극단이 결성되어 1963년까지 활동했다. 당시 활동 상황을, 어린 나이였지만, 장순애(1945년생)가 기억하고 있다. 1951년에 한인을 중심으로 아마추어 예술단원들이 예술극단을 창립하고 연습, 공연을 했다. 그러다가 소련 주 문화부에서 공식적으로 조선예술단을 창립했는데, 이때 예술극단 단원들이 대거 영입되었다. 1950년대 말까지 정식 교육을 받고, '심청전', '춘향전', '홍부놀부전' 등 소연극을 순회 공연했다. 이후 1963년에 해체되었지만, 단원들이 악단을 조직해 결혼식이나 환갑잔치 등을 돌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가장 조직적으로 활동했던 악단은 '윤복식 악단'이었는데, 이들은 후카이도를 통해 전파가 들어오는 KBS 라디오를 몰래 청취하고 '보고 싶은 얼굴', '돌아와요 부산항에' 등 한국 노래도 연습하여 불렀다.

4. 중요성과 보호방법 제안

5. 지역 내 주요관련 활동

⑧자료출처/참고자료	

⑨부가정보

⑩연구성과	
⑪관련단체	

⑫Digital Data	※자료번호 입력
⑬사진자료	※자료번호 입력

[자료조사카드]

<table>
<tr><td colspan="2" rowspan="6">
</td><td colspan="2">자료(기록물) 정보</td></tr>
<tr><td>②명칭</td><td>예술극단</td></tr>
<tr><td>③자료번호</td><td></td></tr>
<tr><td>④형태</td><td></td></tr>
<tr><td>⑤재질</td><td></td></tr>
<tr><td>⑥분류</td><td>전통적 공연예술(연행) - 연희</td></tr>
<tr><td colspan="2">⑦크기(cm)</td><td>가로( ), 세로( ), 높이( )</td></tr>
<tr><td colspan="2">인적(입수자) 정보</td><td colspan="2">입수 정보</td></tr>
<tr><td>⑧성명</td><td>장순애</td><td>⑭입수일</td><td>2012. 08. 06</td></tr>
<tr><td>⑨성별</td><td>남 / 여</td><td>⑮입수구분</td><td>기증 / 기탁 / 구입</td></tr>
<tr><td>⑩입수주소</td><td></td><td>⑯보존상태</td><td>훼손심함 / 훼손 / 양호</td></tr>
<tr><td>⑪연락처</td><td>(☎)</td><td>⑰가치여부</td><td>상 / 중 / 하</td></tr>
<tr><td>⑫제작자/지역</td><td></td><td rowspan="2">⑱정보수집 동의여부</td><td rowspan="2">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td></tr>
<tr><td>⑬제작시기</td><td></td></tr>
<tr><td colspan="4">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td></tr>
<tr><td colspan="4">1955년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활동했던 소인예술단 남녀단원들의 모습이다. 사진을 찍은 장소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이다.</td></tr>
<tr><td colspan="4">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td></tr>
<tr><td colspan="4"></td></tr>
<tr><td>※조사자</td><td>안 상 경</td><td>※조사일시</td><td>2012. 08. 06</td></tr>
</table>

② [2분야]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현장실태조사카드]

필수입력사항		2012년 8월 6일
①자료입력자	안상경	
②검증자		
③종목	되	
④알려진 다른 이름		
⑤전승지역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⑥분류체계	대분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중분류	목칠공예
	소분류	

⑦정의 및 내용

1. 전승주체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장순애(1945년생). 조부의 고향은 경상남도 포항시 영일군이다. 1929년에 "조선이 복잡하고 가난해서 그래서 이주하게 되었다."라고 한다.

2. 전승지역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3. 전승내용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거주하고 있는 장순애는 어머니 때 사용하던 두 개의 되를 갖고 있다. 일제시대에 제작한 것으로, 큰 되의 표면에는 "用液一升"이라는, 작은 되의 표면에는 "用液二合五勺"라는 한자가 새겨져 있다.

4. 중요성과 보호방법 제안

5. 지역 내 주요관련 활동

⑧자료출처/참고자료	

⑨부가정보

⑩연구성과	
⑪관련단체	
⑫Digital Data	※자료번호 입력
⑬사진자료	※자료번호 입력

[자료조사카드]

<table>
<tr><td colspan="2" rowspan="7"> </td><td colspan="2">자료(기록물) 정보</td></tr>
<tr><td>②명칭</td><td>되</td></tr>
<tr><td>③자료번호</td><td></td></tr>
<tr><td>④형태</td><td></td></tr>
<tr><td>⑤재질</td><td></td></tr>
<tr><td>⑥분류</td><td>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목칠공예</td></tr>
<tr><td rowspan="2">⑦크기(cm)</td><td>가로(16), 세로(16), 높이(9)
가로(11), 세로(11), 높이(6)</td></tr>
<tr><td colspan="2">인적(입수자) 정보</td><td colspan="2">입수 정보</td></tr>
<tr><td>⑧성명</td><td>장순애</td><td>⑭입수일</td><td>2012. 08. 06</td></tr>
<tr><td>⑨성별</td><td>남 / 여</td><td>⑮입수구분</td><td>기증 / 기탁 / 구입</td></tr>
<tr><td>⑩입수주소</td><td></td><td>⑯보존상태</td><td>훼손심함 / 훼손 / 양호</td></tr>
<tr><td>⑪연락처</td><td>(☎)</td><td>⑰가치여부</td><td>상 / 중 / 하</td></tr>
<tr><td>⑫제작자/지역</td><td>미상(유즈노사할린스크)</td><td rowspan="2">⑱정보수집 동의여부</td><td rowspan="2">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td></tr>
<tr><td>⑬제작시기</td><td>1920년대</td></tr>
<tr><td colspan="4">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td></tr>
<tr><td colspan="4"></td></tr>
<tr><td colspan="4">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td></tr>
<tr><td colspan="4"></td></tr>
<tr><td>※조사자</td><td>안 상 경</td><td>※조사일시</td><td>2012. 08. 06</td></tr>
</table>

③ [3분야]의학[민간요법],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현장실태조사카드]

필수입력사항		2012년 8월 6일
①자료입력자	안상경	
②검증자		
③종목	약쑥	
④알려진 다른 이름		
⑤전승지역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⑥분류체계	대분류	의학[민간요법], 농경・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중분류	의학[민간요법]
	소분류	식물요법

⑦정의 및 내용

1. 전승주체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장순애(1945년생). 조부의 고향은 경상남도 포항시 영일군이다. 1929년에 “조선이 복잡하고 가난해서 그래서 이주하게 되었다.”라고 한다.

2. 전승지역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3. 전승내용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거주하고 있는 장순애는 단오날 아침에 쑥을 뜯어다가 말린다. 이슬을 머금고 있는 어린 쑥만을 뜯어다가 말리는데, 이를 ‘약쑥’이라고 한다. 배앓이를 할 때나, 관절에 통증이 있을 때 약쑥으로 뜸을 뜬다.

4. 중요성과 보호방법 제안

5. 지역 내 주요관련 활동

⑧자료출처/참고자료	

⑨부가정보

⑩연구성과	
⑪관련단체	
⑫Digital Data	※자료번호 입력
⑬사진자료	※자료번호 입력

[자료조사카드]

<table>
<tr><td colspan="2" rowspan="6"></td><td colspan="3">자료(기록물) 정보</td></tr>
<tr><td>②명칭</td><td colspan="2">약쑥</td></tr>
<tr><td>③자료번호</td><td colspan="2"></td></tr>
<tr><td>④형태</td><td colspan="2"></td></tr>
<tr><td>⑤재질</td><td colspan="2"></td></tr>
<tr><td>⑥분류</td><td colspan="2">의학[민간요법], 농경·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의학[민간요법]</td></tr>
<tr><td colspan="2">인적(입수자) 정보</td><td>⑦크기(cm)</td><td colspan="2">가로( ), 세로( ), 높이( )</td></tr>
<tr><td colspan="2">인적(입수자) 정보</td><td colspan="3">입수 정보</td></tr>
<tr><td>⑧성명</td><td>장순애</td><td>⑭입수일</td><td colspan="2">2012. 08. 06</td></tr>
<tr><td>⑨성별</td><td>남 / 여</td><td>⑮입수구분</td><td colspan="2">기증 / 기탁 / 구입</td></tr>
<tr><td>⑩입수주소</td><td></td><td>⑯보존상태</td><td colspan="2">훼손심함 / 훼손 / 양호</td></tr>
<tr><td>⑪연락처</td><td>(☎)</td><td>⑰가치여부</td><td colspan="2">상 / 중 / 하</td></tr>
<tr><td>⑫제작자/지역</td><td></td><td rowspan="2">⑱정보수집 동의여부</td><td colspan="2" rowspan="2">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td></tr>
<tr><td>⑬제작시기</td><td></td></tr>
<tr><td colspan="5">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td></tr>
<tr><td colspan="5"></td></tr>
<tr><td colspan="5">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td></tr>
<tr><td colspan="5"></td></tr>
<tr><td>※조사자</td><td colspan="2">안 상 경</td><td>※조사일시</td><td>2012. 08. 06</td></tr>
</table>

④ [4분야]구전전통 및 표현

[현장실태조사카드]

필수입력사항		2012년 8월 6일
①자료입력자	안상경	
②검증자		
③종목	속담	
④알려진 다른 이름	옛말	
⑤전승지역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⑥분류체계	대분류	구전전통 및 표현
	중분류	속담 및 수수께끼
	소분류	

⑦정의 및 내용

1. 전승주체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박승의(1942년생). 박승의와 그의 부인 김소자(1945년생)는 1945년 8월 15일 이전 출생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로 선정되어 한국으로 영주귀국을 했다. 현재 한국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여름 한철에만 자식들과 함께 유즈노사할린스크에 머문다.

2. 전승지역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3. 전승내용

금번 현지조사에서 박승의가 러시아 사할린주의 현지코디로 활동했는데, 사전에 속담[옛말]과 관련한 자료를 모아놓았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전승되고 있는 속담[옛말]은 다음과 같다.

(1) 시험 보는 날 아침에 미역국 먹지 마라
(2) 모든 사람은 먹을 것을 등에 업고 태어난다
(3) 여섯 살 적 버릇이 여든 살까지 간다
(4) 애들 꿈은 개꿈이다
(5) 어른들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6) 동지 팥죽을 먹어야 한살 더 먹는다
(7)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8) 선생님 똥은 개도 안 먹는다
(9) 똥 싼 놈이 방귀뀐 놈 나무란다
(10)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11)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12) 자식 이긴 부모는 없다
(13) 조선 사람은 세 가지 체를 가지고 있다. 몰라도 아는 체, 없어도 있는 체, 못나도 잘난 체
(14)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15) 아니 땐 굴뚝에서는 연기 안 난다

(16) 등불 밑이 어둡다 (17) 똥구멍으로 호박씨 깐다 (18) 티끌 모아 태산 (19) 바지 하나만 입어도 고향 간다 **4. 중요성과 보호방법 제안** **5. 지역 내 주요관련 활동**

⑧자료출처/참고자료	
⑨부가정보	
⑩연구성과	
⑪관련단체	
⑫Digital Data	※자료번호 입력
⑬사진자료	※자료번호 입력

[자료조사카드]

		자료(기록물) 정보	
		②명칭	속담
		③자료번호	
		④형태	
		⑤재질	
		⑥분류	구전전통 및 표현 - 속담 및 수수께기
		⑦크기(cm)	가로( ), 세로( ), 높이( )
인적(입수자) 정보		입수 정보	
⑧성명	박승의	⑭입수일	2012. 08. 06
⑨성별	남 / 여	⑮입수구분	기증 / 기탁 / 구입
⑩입수주소		⑯보존상태	훼손심함 / 훼손 / 양호
⑪연락처	(☎)	⑰가치여부	상 / 중 / 하
⑫제작자/지역		⑱정보수집 동의여부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⑬제작시기			
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			
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			
※조사자	안 상 경	※조사일시	2012. 08. 06

⑤ [5분야]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현장실태조사카드]

필수입력사항		2012년 8월 6일
①자료입력자	안상경	
②검증자		
③종목	동지팥죽	
④알려진 다른 이름		
⑤전승지역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⑥분류체계	대분류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중분류	식생활
	소분류	절식

⑦정의 및 내용

1. 전승주체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장순애(1945년생). 조부의 고향은 경상남도 포항시 영일군이다. 1929년에 “조선이 복잡하고 가난해서 그래서 이주하게 되었다.”라고 한다.

2. 전승지역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3. 전승내용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거주하고 있는 장순애는 동지에 팥죽을 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 하지만 붉은 팥이 귀해, 대신 완두콩이나 녹두를 푹 삶아 죽을 끓인다. 경우에 따라 붉은 울콩으로 죽을 끓이기도 한다. 엄격한 의미에서 팥으로 만든 팥죽은 아니지만, 동지팥죽과 같이 밀가루를 반죽해 새알심은 꼭 넣는다. “동지에 팥죽을 먹어야 한 살 더 먹는다.”라는 말도 전승되고 있다.

4. 중요성과 보호방법 제안

5. 지역 내 주요관련 활동

⑧자료출처/참고자료	

⑨부가정보

⑩연구성과	
⑪관련단체	
⑫Digital Data	※자료번호 입력
⑬사진자료	※자료번호 입력

[자료조사카드]

<table>
<tr><td colspan="2" rowspan="6"></td><td colspan="2">자료(기록물) 정보</td></tr>
<tr><td>②명칭</td><td>동지팥죽</td></tr>
<tr><td>③자료번호</td><td></td></tr>
<tr><td>④형태</td><td></td></tr>
<tr><td>⑤재질</td><td></td></tr>
<tr><td>⑥분류</td><td>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식생활</td></tr>
<tr><td colspan="2">인적(입수자) 정보</td><td>⑦크기(cm)</td><td>가로( ), 세로( ), 높이( )</td></tr>
<tr><td colspan="2">인적(입수자) 정보</td><td colspan="2">입수 정보</td></tr>
<tr><td>⑧성명</td><td>장순애</td><td>⑭입수일</td><td>2012. 08. 06</td></tr>
<tr><td>⑨성별</td><td>남 / 여</td><td>⑮입수구분</td><td>기증 / 기탁 / 구입</td></tr>
<tr><td>⑩입수주소</td><td></td><td>⑯보존상태</td><td>훼손심함 / 훼손 / 양호</td></tr>
<tr><td>⑪연락처</td><td>(☎)</td><td>⑰가치여부</td><td>상 / 중 / 하</td></tr>
<tr><td>⑫제작자/지역</td><td></td><td rowspan="2">⑱정보수집 동의여부</td><td rowspan="2">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td></tr>
<tr><td>⑬제작시기</td><td></td></tr>
<tr><td colspan="4">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td></tr>
<tr><td colspan="4"></td></tr>
<tr><td colspan="4">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td></tr>
<tr><td colspan="4"></td></tr>
<tr><td>※조사자</td><td>안 상 경</td><td>※조사일시</td><td>2012. 08. 06</td></tr>
</table>

⑥ [6분야]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현장실태조사카드]

필수입력사항		2012년 8월 6일
①자료입력자	안상경	
②검증자		
③종목	삼신신앙	
④알려진 다른 이름		
⑤전승지역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⑥분류체계	대분류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중분류	가정신앙
	소분류	삼신신앙

⑦정의 및 내용

1. 전승주체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장순애(1945년생). 조부의 고향은 경상남도 포항시 영일군이다. 1929년에 “조선이 복잡하고 가난해서 그래서 이주하게 되었다.”라고 한다.

2. 전승지역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3. 전승내용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거주하고 있는 장순애는 삼신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 그녀의 할머니 김복수(85년도에 사망)가 특히 삼신을 신봉했다. 장순애는 손자, 손녀들이 태어났을 때, 삼신상에 물 한 그릇, 쌀 한 그릇, 미역 한 다발을 진설하고 아이의 명과 복을 삼신에게 기원했다. 이런 방식으로 삼칠일[21일]이 지날 때까지 일 주일마다 한 번씩 기원했다. 한편 아이가 열 살을 넘길 때까지 생일날마다 수수팥떡을 먹인다. 그래야 아이에게 사기(邪氣)가 묻지 않는다고 여긴다.

4. 중요성과 보호방법 제안

5. 지역 내 주요관련 활동

⑧자료출처/참고자료	

⑨부가정보

⑩연구성과	
⑪관련단체	
⑫Digital Data	※자료번호 입력
⑬사진자료	※자료번호 입력

[자료조사카드]

<table>
<tr><td colspan="2" rowspan="6"></td><td colspan="2">자료(기록물) 정보</td></tr>
<tr><td>②명칭</td><td>삼신신앙</td></tr>
<tr><td>③자료번호</td><td></td></tr>
<tr><td>④형태</td><td></td></tr>
<tr><td>⑤재질</td><td></td></tr>
<tr><td>⑥분류</td><td>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 가정신앙</td></tr>
<tr><td colspan="2">인적(입수자) 정보</td><td>⑦크기(cm)</td><td>가로( ), 세로( ), 높이( )</td></tr>
<tr><td colspan="2">⑧성명 장순애
⑨성별 남 / 여
⑩입수주소
⑪연락처 (☎)
⑫제작자/지역
⑬제작시기</td><td colspan="2">입수 정보
⑭입수일 2012. 08. 06
⑮입수구분 기증 / 기탁 / 구입
⑯보존상태 훼손심함 / 훼손 / 양호
⑰가치여부 상 / 중 / 하
⑱정보수집 동의여부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td></tr>
<tr><td colspan="4">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td></tr>
<tr><td colspan="4"></td></tr>
<tr><td colspan="4">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td></tr>
<tr><td colspan="4"></td></tr>
<tr><td>※조사자</td><td>안 상 경</td><td>※조사일시</td><td>2012. 08. 06</td></tr>
</table>

⑦ [7분야]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현장실태조사카드]

필수입력사항		2012년 8월 7일
①자료입력자	안상경	
②검증자		
③종목	들놀이	
④알려진 다른 이름		
⑤전승지역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⑥분류체계	대분류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중분류	축제
	소분류	

⑦정의 및 내용

1. 전승주체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들

제보자 : ①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전상주(1933년생), 1939년에 아버지가 강제이주 당해 서해안도로 석탄장에서 탄광부로 일했다. ②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허남훈(1936년생), 1940년에 아버지가 강제이주 당해 도마리시 제지공장에서 일했다.

2. 전승지역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3. 전승내용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15년 전부터 시 한인회 산하 노인회 주관으로 7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들놀이'를 행한다. 들놀이를 시작할 당시에는 그야말로 들에 모여서 놀았지만, 근간에는 노보알렉산드로프스크 31중학교 운동장에서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참여 인원은 200~300명 가량인데, 버스 3~4대를 대절하여 참여 인원을 인근 지역에서 태워 나른다. 들놀이는 오전 11시에 시 한인회 회장 및 노인회 회장의 개회식 선언과 축사에 이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노래 콩쿠르와 줄다리기[줄댕기기], 씨름, 그네뛰기, 널뛰기 등 민속놀이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노래 콩쿠르에서는 '날좀보소', '도라지', '아리랑', '노들강변'과 같은 전통민요, '금강산 일만이천봉', '눈물 젖은 두만강'과 같은 가곡, '백마강', '돌아와요 부산항에', '동백아가씨', '섬마을 선생님'과 같은 한국의 대중가요를 부르며 경합한다. 심사는 전문 예술학교 졸업자가 맡는데, 1, 2, 3등까지 부상으로 그릇, 컵 등을 수여받는다. 또 춤 콩쿠르로서 10분 간 모든 사람들이 춤을 추고, 그 가운데서 가장 춤을 잘 추는 사람을 선정하여 수상한다. 줄다리기는 달리 '줄댕기기'라고 하는데, 20여 명의 남성팀과 30여 명의 여성팀이 경합한다. 대개 여성팀이 이기는데, 부상으로 양말이나 비누 등 생필품을 수여받는다. 씨름은 톱밥을 뿌려 터를 만들고 20대, 30대, 40대 급으로 나누어 경합한다. 씨름 최우승자는 냉장고를 부상으로 수여받는다. 이외 그네뛰기, 널뛰기, 60m 달리기, 발 묶고 달리기 등을 한다. 시 한인회에서 점심식사로 떡, 두부, 국수, 음료수 등을 준비하지만, 집집마다 음식을 풍성히 준비해 서로 나누어 먹는다. 들놀이는 오후 3~4시를 전후해서 막을 내린다. 예산은 시 한인회와 노인회에서 한국인 경영자들에게 후원을 받아 충당한다.

4. 중요성과 보호방법 제안 **5. 지역 내 주요관련 활동**	
⑧자료출처/참고자료	『새고려신문』, 2012년 8월 3일자, 1/2면
⑨부가정보	
⑩연구성과	
⑪관련단체	
⑫Digital Data	※자료번호 입력
⑬사진자료	※자료번호 입력

[자료조사카드]

<table>
<tr><td colspan="2" rowspan="6"> </td><td colspan="2">자료(기록물) 정보</td></tr>
<tr><td>②명칭</td><td>들놀이</td></tr>
<tr><td>③자료번호</td><td></td></tr>
<tr><td>④형태</td><td></td></tr>
<tr><td>⑤재질</td><td></td></tr>
<tr><td>⑥분류</td><td>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 축제</td></tr>
<tr><td colspan="2"></td><td>⑦크기(cm)</td><td>가로(　), 세로(　), 높이(　)</td></tr>
<tr><td colspan="2">인적(입수자) 정보</td><td colspan="2">입수 정보</td></tr>
<tr><td>⑧성명</td><td>전상주, 허남훈</td><td>⑭입수일</td><td>2012. 08. 07</td></tr>
<tr><td>⑨성별</td><td>남 / 여</td><td>⑮입수구분</td><td>기증 / 기탁 / 구입</td></tr>
<tr><td>⑩입수주소</td><td></td><td>⑯보존상태</td><td>훼손심함 / 훼손 / 양호</td></tr>
<tr><td>⑪연락처</td><td>(☎)</td><td>⑰가치여부</td><td>상 / 중 / 하</td></tr>
<tr><td>⑫제작자/지역</td><td></td><td rowspan="2">⑱정보수집 동의여부</td><td rowspan="2">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td></tr>
<tr><td>⑬제작시기</td><td></td></tr>
<tr><td colspan="4">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td></tr>
<tr><td colspan="4">2012년 7월의 들놀이 행사에서 줄다리기[줄댕기기]를 하면 장면이다. (출처: 새고려신문』, 2012년 8월 3일자, 2면)</td></tr>
<tr><td colspan="4">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td></tr>
<tr><td colspan="4">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고려인 문화예술축제로서 '들놀이'와 '광복절경축행사(8월 15일 후 첫 일요일에 개최)'가 전승되고 있다는 것은 해외 한민족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현장의 분위기는 예산 문제로 난항에 봉착한 듯하다. 어떤 방식이로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근간에 일본 정부의 고려인 지원에 따른 반대급부로 한국 정부의 무관심을 탓하기도 한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td></tr>
<tr><td>※조사자</td><td>안 상 경</td><td>※조사일시</td><td>2012. 08. 07</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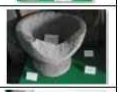
3. 메타데이터

▣ 메타데이터 작업은 현지 실태조사가 수행된 순서대로 국가 및 지역별로 작성

▣ 메타데이터에는 사진, 영상, 문서(민요공책/논문/보고서 등), 음성(없음), 실물(CD·DVD/TAPE 등) 자료를 중심으로 수록(연구팀 내 기확보자료 내용도 수록)

[국가별/지역별]

15	2-11(1)_SP_120720 12_[세베르느이마야크콜호즈] 양배추와 부추김치_0003	김치(김계오르기 가정)		이병조	20120712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주 [세베르느이마야크콜호즈]		기관제출용	김계오르기 가정 상차림	김계오르기 가정 상차림을 모습. 고추가루가 적게 들어 간 담백한 배추김치가 특색이고, 담백한 국물에 접시에 놓여있는 접시밥의 모습이 인상적임	사진	JPG파일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식생활-상차림)	한국외대 산학협력단(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16	1-11(1)_LH_120720 12_[세베르느이마야크콜호즈] 디딜방아_0001	디딜방아(한나제즈다 소유)		이병조	20120712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주 [세베르느이마야크콜호즈]	30초	기관제출용	한나제즈다	1950년대 초 고려인 장인에 의해 제작된 디딜방아. 디딜방아 소유자 한나제즈다가 디딜방아 제작시기와 이유, 사용시기, 용도 등에 대해서 구술하는 모습	영상	mp4파일		의학[민간요법], 농경.여로등에 관한 전통지식(농업-재래농기구)	한국외대 산학협력단(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17	1-11(1)_LH_120720 12_[세베르느이마야크콜호즈] 디딜방아_0002	디딜방아(한나제즈다 소유)		이병조	20120712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주 [세베르느이마야크콜호즈]	7분45초	기관제출용	한나제즈다	1950년대 초 고려인 장인에 의해 제작된 디딜방아. 디딜방아 소유자 한나제즈다가 디딜방아 제작시기와 이유, 사용시기, 용도 등에 대해서 구술하는 모습	영상	mp4파일		의학[민간요법], 농경.여로등에 관한 전통지식(농업-재래농기구)	한국외대 산학협력단(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18	1-11(1)_LH_120720 12_[세베르느이마야크콜호즈] 디딜방아_0003	디딜방아(한나제즈다 소유)		이병조	20120712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주 [세베르느이마야크콜호즈]	5분12초	기관제출용	한나제즈다/김계오르기	1950년대 초 고려인 장인에 의해 제작된 디딜방아. 디딜방아 소유자 한나제즈다와 기계오르기가 디딜방아 제작시기와 이유, 사용시기, 용도 등에 대해서 구술하는 모습	영상	mp4파일		의학[민간요법], 농경.여로등에 관한 전통지식(농업-재래농기구)	한국외대 산학협력단(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19	1-11(1)_DO_12072 012_[세베르느이마야크콜호즈] 디딜방아_0004	디딜방아(한나제즈다 소유)		이병조	20120712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주 [세베르느이마야크콜호즈]	23초	기관제출용	한나제즈다	현지조사 연구자가 디딜방아의 치수를 재는 모습	영상	mp4파일		의학[민간요법], 농경.여로등에 관한 전통지식(농업-재래농기구)	한국외대 산학협력단(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20	1-11(1)_DO_12072 012_[세베르느이마야크콜호즈] 디딜방아_0005	디딜방아(한나제즈다 소유)		이병조	20120712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주 [세베르느이마야크콜호즈]	1분42초	기관제출용	김계오르기	디딜방아 시범을 보이고 있는 김계오르기 선생	영상	mp4파일		의학[민간요법], 농경.여로등에 관한 전통지식(농업-재래농기구)	한국외대 산학협력단(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106	2-11(4)_SP_130 82012_고려인 음식도구_0004	떡메/떡구시		이병조	20120813	파르티잔스크 윱소피야 가정		기관제출용		파르티잔스크 윱소피야 집에서 사용해 온 떡메와 떡구시. 윱소피야 시부모 내외가 1956년에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해 온 당시부터 사용해 왔으며,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음	사진	JPG파일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식생활-음식도구)	한국외대 산학협력단(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107	2-11(4)_SP_130 82012_고려인 농기구_0001	키		이병조	20120813	파르티잔스크 윱소피야 가정		기관제출용		파르티잔스크 윱소피야 집에서 사용해 온 키. 윱소피야 시부모 내외가 사용해 온 것으로 지금도 윱소피야가 종종 사용하고 있음	사진	JPG파일		의학[민간요법], 농경.여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농업-재래농기구)	한국외대 산학협력단(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108	2-11(4)_SP_130 82012_고려인 농기구_0002	키		이병조	20120813	파르티잔스크 윱소피야 가정		기관제출용		파르티잔스크 윱소피야 집에서 사용해 온 키. 윱소피야 시부모 내외가 사용해 온 것으로 지금도 윱소피야가 종종 사용하고 있음	사진	JPG파일		의학[민간요법], 농경.여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농업-재래농기구)	한국외대 산학협력단(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109	2-11(4)_SP_130 82012_고려인 농기구_0003	키		이병조	20120813	파르티잔스크 윱소피야 가정		기관제출용		파르티잔스크 윱소피야 집에서 사용해 온 키. 윱소피야 시부모 내외가 사용해 온 것으로 지금도 윱소피야가 종종 사용하고 있음	사진	JPG파일		의학[민간요법], 농경.여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농업-재래농기구)	한국외대 산학협력단(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110	2-11(4)_SP_130 82012_고려인 농기구_0004	체		이병조	20120813	파르티잔스크 윱소피야 가정		기관제출용		파르티잔스크 윱소피야 집에서 사용해 온 생활도구들. 지금도 사용 중-체	사진	JPG파일		의학[민간요법], 농경.여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농업-재래농기구)	한국외대 산학협력단(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111	2-11(4)_SP_130 82012_고려인 농기구_0005	체		이병조	20120813	파르티잔스크 윱소피야 가정		기관제출용		파르티잔스크 윱소피야 집에서 사용해 온 생활도구들. 지금도 사용 중-체	사진	JPG파일		의학[민간요법], 농경.여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농업-재래농기구)	한국외대 산학협력단(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112	2-11(4)_SP_130 82012_고려인	떡메/떡구		이병조	20120813	파르티잔스크 윱소피야		기관제출용	윱소피야	파르티잔스크 윱소피야 집에서 사용해 온 생활도구들-키, 체, 떡메와 떡구시.	사진	JPG파일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식생활-음식	한국외대 산학협력단(글로벌문화콘	
73	1-11(2)_DO_0000 1939-1990_카자흐스탄 고려인 희귀영상	고려인 공연예술(고려극장)/농업/의식주 및 세시풍속/통과의례/고려		카자흐필름	1939-1990	알마타	55분18초	기관제출용		카자흐텔레비전영화제작소에 의해 1939-90년 시기동안의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전반적인 생활모습이 담긴 영상. 현재 <카자흐스탄 국립영상,사진 및음성기록물보존소>에 소장되어 있	영상	AVI파일		전통적 공연예술(연행)/의학[민간요법], 농경.여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구전전	한국외대 산학협력단(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74	1-11(2)_DO_0000 1939-00001990_카자흐스탄 고려인	고려인 공연예술(고려극장)/농업/의식주 및 세시풍속/통과의례/고려		카자흐필름	1939-1990	알마타	53분45초	기관제출용		카자흐텔레비전영화제작소에 의해 1939-90년 시기동안의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전반적인 생활모습이 담긴 영상. 현재 <카자흐스탄 국립영상,사진 및음성기록물보존소>에 소장되어 있	영상	AVI파일		전통적 공연예술(연행)/의학[민간요법], 농경.여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구전전	한국외대 산학협력단(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75	1-11(2)_DO_0000 1939-00001990_카자흐스탄 고려인	고려인 공연예술(고려극장)/농업/의식주 및 세시풍속/통과의례/고려		카자흐필름	1939-1990	알마타	59분38초	기관제출용		카자흐텔레비전영화제작소에 의해 1939-90년 시기동안의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전반적인 생활모습이 담긴 영상. 현재 <카자흐스탄 국립영상,사진 및음성기록물보존소>에 소장되어 있	영상	AVI파일		전통적 공연예술(연행)/의학[민간요법], 농경.여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구전전	한국외대 산학협력단(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76	1-11(2)_DO_0000 1939-00001990_카자흐스탄 고려인	고려인 공연예술(고려극장)/농업/의식주 및 세시풍속/통과의례/고려		카자흐필름	1939-1990	알마타	15분44초	기관제출용		카자흐텔레비전영화제작소에 의해 1939-90년 시기동안의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전반적인 생활모습이 담긴 영상. 현재 <카자흐스탄 국립영상,사진 및음성기록물보존소>에 소장되어 있	영상	AVI파일		전통적 공연예술(연행)/의학[민간요법], 농경.여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구전전	한국외대 산학협력단(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77	1-11(2)_DO_0000 1939-00001990_카자흐스탄 고려인	고려인 공연예술(고려극장)/농업/의식주 및 세시풍속/통과의례/고려		카자흐필름	1939-1990	알마타	59분15초	기관제출용		카자흐텔레비전영화제작소에 의해 1939-90년 시기동안의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전반적인 생활모습이 담긴 영상. 현재 <카자흐스탄 국립영상,사진 및음성기록물보존소>에 소장되어 있	영상	AVI파일		전통적 공연예술(연행)/의학[민간요법], 농경.여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구전전	한국외대 산학협력단(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78	1-11(2)_DO_0000 1939-00001990_카자흐스탄 고려인	고려인 공연예술(고려극장)/농업/의식주 및 세시풍속/통과의례/고려		카자흐필름	1939-1990	알마타	1시간1분25초	기관제출용		카자흐텔레비전영화제작소에 의해 1939-90년 시기동안의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전반적인 생활모습이 담긴 영상. 현재 <카자흐스탄 국립영상,사진 및음성기록물보존소>에 소장되어 있	영상	AVI파일		전통적 공연예술(연행)/의학[민간요법], 농경.여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구전전	한국외대 산학협력단(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1-11(2)_DO_0000 1939-	고려인 공연예술(고려극장)/농업/의식주		카자흐필름	1939-1990	알마타	28분15초	기관제출용		카자흐텔레비전영화제작소에 의해 1939-90년 시기동안의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전반적인 생활모습이 담긴 영	영상	AVI파일		전통적 공연예술(연행)/의학[민간요법], 농경.	한국외대 산학협력단(글로벌문화	

78	2-11(5)_SP_07082012_한인 농기구_0002	절구통/소쿠리		이병조	20120807	유즈노-사할린스크		기관제출용		절구통, 소쿠리, 광주리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문화센터 내 한인생활문화전시관)	사진	JPG파일		의학[민간요법],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농업-재래농기구)	한국외대 산학협력단(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79	2-11(5)_SP_07082012_한인 농기구_0003	맷돌/소쿠리		이병조	20120807	유즈노-사할린스크		기관제출용		맷돌, 소쿠리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문화센터 내 한인생활문화전시관)	사진	JPG파일		의학[민간요법],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농업-재래농기구)	한국외대 산학협력단(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80	2-11(5)_SP_07082012_한인 농기구_0004	절구통		이병조	20120807	유즈노-사할린스크		기관제출용		절구통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문화센터 내 한인생활문화전시관)	사진	JPG파일		의학[민간요법],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농업-재래농기구)	한국외대 산학협력단(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81	2-11(5)_SP_07082012_한인 농기구_0005	절구통/소쿠리		이병조	20120807	유즈노-사할린스크		기관제출용		절구통, 소쿠리, 광주리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문화센터 내 한인생활문화전시관)	사진	JPG파일		의학[민간요법],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농업-재래농기구)	한국외대 산학협력단(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82	2-11(5)_SP_07082012_한인 농기구_0006	맷돌		이병조	20120807	유즈노-사할린스크		기관제출용		맷돌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문화센터 내 한인생활문화전시관)	사진	JPG파일		의학[민간요법],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농업-재래농기구)	한국외대 산학협력단(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83	2-11(5)_SP_07082012_한인 농기구_0007	맷돌/소쿠리		이병조	20120807	유즈노-사할린스크		기관제출용		맷돌, 소쿠리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문화센터 내 한인생활문화전시관)	사진	JPG파일		의학[민간요법],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농업-재래농기구)	한국외대 산학협력단(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1	2-11(1)_SP_2009_고려인 음식_0001	말린 가지		박마야	2009	타쉬켄트주 [시온고콜호즈]		기관제출용		고려인들이 즐겨먹는 가지, 고려인들은 가지를 말린 후 볶아먹거나 쪄서 양념에 무쳐서 먹기도 함	사진	JPG파일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식생활-일상음식)	한국외대 산학협력단(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박마야	
2	2-11(1)_SP_2009_고려인 음식_0002	고추장		박마야	2009	타쉬켄트주 [시온고콜호즈]		기관제출용		고려인들의 저장음식 중의 하나인 고추장 모습. 오늘나에도 고려인 사회에는 고추장, 된장, 간장을 직접 담가 먹는 전통이 남아있으나 조리법을 모르거나 제작과정이 어려워서 점차 사라	사진	JPG파일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식생활-저장식품)	한국외대 산학협력단(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박마야	
3	2-11(1)_SP_2009_고려인 음식_0003	배추김치		박마야	2009	타쉬켄트주 [시온고콜호즈]		기관제출용		여름철에 고려인들이 담가 먹는 배추김치 모습. 고려인들은 '침치'(김치)라고 부르고 있음	사진	JPG파일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식생활-저장식품)	한국외대 산학협력단(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박마야	
4	2-11(1)_SP_2009_고려인 음식_0004	된장		박마야	2009	타쉬켄트주 [시온고콜호즈]		기관제출용		고려인들이 직접 콩을 삶아 만든 된장이 그늘에서 말려지고 있는 모습. 된장은 고려인들의 저장음식 중의 하나.	사진	JPG파일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식생활-저장식품)	한국외대 산학협력단(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박마야	
5	2-11(1)_SP_2009_고려인 음식_0005	된장		박마야	2009	타쉬켄트주 [시온고콜호즈]		기관제출용		둥근, 혹은 네모난 메주덩어리를 만들기 위해 다진 콩을 반죽하는 모습	사진	JPG파일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식생활-저장식품)	한국외대 산학협력단(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박마야	
6	2-11(1)_SP_2009_고려인 음식_0006	두부기계		박마야	2009	타쉬켄트주 [시온고콜호즈]		기관제출용		고려인들의 두부 기계(틀). 오늘날 고려인들은 두부를 집에서 직접 만들지 않고 두부를 제작, 판매하는 고려인 집에서 구입해서 먹고 있음	사진	JPG파일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식생활-저장식품)	한국외대 산학협력단(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박마야	
191	2-11(1)_SP_130720 12_고려인 식생활_0001	식생활(장엠밀리야 소유)		이병조	20120713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주 [김병화콜호즈]		기관제출용	장엠밀리야	[김병화콜호즈] 의 장엠밀리야가 솥에서 떡이나 베고자 등을 찔 때 사용해 온 도구	사진	JPG파일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식생활-음식도구)	한국외대 산학협력단(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192	2-11(1)_SP_130720 12_고려인 식생활_0002	식생활(장엠밀리야 소유)		이병조	20120713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주 [김병화콜호즈]		기관제출용	장엠밀리야	[김병화콜호즈] 의 장엠밀리야가 솥에서 떡이나 베고자 등을 찔 때 사용해 온 도구	사진	JPG파일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식생활-음식도구)	한국외대 산학협력단(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193	2-11(1)_SP_130720 12_고려인 주생활_0001	주생활(장엠밀리야 소유)		이병조	20120713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주 [김병화콜호즈]		기관제출용	장엠밀리야	[김병화콜호즈] 장엠밀리야(전 김병화박물관 관리인)의 집마당 한켠에 있는 조선식 우물(1966-75년까지 사용, 깊이4.5-5m)	사진	JPG파일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주생활-집안의 시설물과 설비)	한국외대 산학협력단(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194	2-11(1)_SP_130720 12_고려인 주생활_0002	주생활(장엠밀리야 소유)		이병조	20120713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주 [김병화콜호즈]		기관제출용	장엠밀리야	[김병화콜호즈] 장엠밀리야(전 김병화박물관 관리인)의 집마당 한켠에 있는 조선식 우물(1966-75년까지 사용, 깊이4.5-5m)	사진	JPG파일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주생활-집안의 시설물과 설비)	한국외대 산학협력단(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195	2-11(1)_SP_130720 12_고려인 주생활_0003	주생활(장엠밀리야 소유)		이병조	20120713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주 [김병화콜호즈]		기관제출용	장엠밀리야	[김병화콜호즈] 장엠밀리야(전 김병화박물관 관리인)의 집마당 한켠에 있는 조선식 우물(1966-75년까지 사용, 깊이4.5-5m)	사진	JPG파일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주생활-집안의 시설물과 설비)	한국외대 산학협력단(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196	2-11(1)_SP_130720 12_고려인 주생활_0004	주생활(장엠밀리야 소유)		이병조	20120713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주 [김병화콜호즈]		기관제출용	장엠밀리야	[김병화콜호즈] 장엠밀리야(전 김병화박물관 관리인)의 집마당 한켠에 있는 조선식 우물(1966-75년까지 사용, 깊이4.5-5m)	사진	JPG파일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주생활-집안의 시설물과 설비)	한국외대 산학협력단(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Ⅶ. 각 국가별 무형문화유산 보호조치(관련법규,목록작성,재정지원 등)

▣ 첨부된 해당 국가들의 무형문화유산, 혹은 문화유산 법령에는 기본적으로 무형문화유산 보호 법규정, 무형문화유산 종목지정 및 목록작성 절차, 무형문화유산 전승자 인정 및 양성제도(인정 및 절차), 무형문화유산 전승지원제도(전승지원금, 행사지원 등), 기타 보호조치와 관련한 사항들이 수록되어 있음.

▣ 하지만 러시아를 포함한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우, 1990년대 초 소련방 붕괴와 더불어 독립한 신생독립국가들 임. 따라서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아직은 무형문화유산 관련 기본 법령 이외 하위 세부 규정들이 완전히 마련되어 있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관련 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지조사 기간 중에 시간을 별도로 확보하여 해당국가들의 관련 기관을 방문 및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 우즈베키스탄 문화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발췌본)

I. 일반 규정

제1조. 본 법의 목적

본 법은 우즈베키스탄 민족의 공동의 가치인 문화유산을 보호 및 활용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조. 문화유산 대상의 보호 및 활용

물질문화유산 대상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한 법률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카라칼파크스탄 자치공화국의 문화유산 대상의 보호 및 활용에 관련 발생하는 모든 사항들은 카라칼파크스탄 자치공화국의 자체 법률에 따른다.

제3조. 주요 개념

본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개념들이 적용된다.

1. 앙상블

역사적 지역에 위치한 외떨어지거나 통일된 행정, 종교, 과학, 교육, 무역, 생산, 궁전과 조각, 건축학, 회화예술을 위하여 사용했던 건축물들의 그룹들을 말한다.

2. 명승지

자연과 인간의 공동의 창작물들, 역사적, 고고학적, 도시건축학적, 미학적, 인류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민간 수공업 산지나 역사적인 주거지 및 도시건축물 포함), 역사적 사건들(전쟁 포함)나 기념비, 역사 속의 유명인물과 관련된 기념장소나 자연경관지를 뜻한다.

3. 기념물
회화, 건축작품, 조형물들과 관련이 있는 건물들, 기념건물이나 아파트, 공동묘지, 따로 떨어진 매장지들, 학문과 기술 대상물(군사 포함), 인류학, 민족지학, 고전학, 지도제작과 금석학에 관련된 자료, 사진, 영화, 녹음과 동영상, 문학과 공예품, 고문서의 육필로 된 그래픽 자료들, 원서, 간행본, 골동품과 귀서, 암각화, 조각 등, 가치를 갖고 있는 고대 기념물을 말한다.

4. 문화유산 대상들
1) 문화유산 대상은 유형 문화유산과 무형 문화유산의 대상을 의미한다.
2) 유형문화유산의 대상은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또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앙상블, 명승지와 기념물 등을 의미한다.
3) 무형문화유산 대상은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또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관습, 민속예술(서사시, 춤, 음악, 공연, 문학),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지식, 도구, 악기, 문화 공간, 인공물을 말한다.

제4조. 유형문화유산의 대상 범주
유형문화유산 대상들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뉘어 진다.
1) 역사적, 학술적, 건축적, 예술적, 그리고 기념비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역사-문화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국가적(공화국) 차원의 유형문화유산의 대상을 말한다.
2) 역사적, 학술적, 건축적, 예술적, 그리고 기념비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역사-문화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지방(도시, 지구)차원의 유형문화유산의 대상을 말한다.

II. 문화유산 대상의 보호 및 활용과 관련 국가의 운영(관리)

제5조. 문화유산 대상의 보호 및 활용과 관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 대상의 보호 및 활용과 관련 국가적 운영(관리)은 우즈베키스탄 정부내각, 문화체육부, 정부내각 산하 "우자르히프"국(우즈베키스탄 기록보존국), 지방 관계당국으로 정한다.

제6조. 문화유산 대상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내각의 권한
우즈베키스탄 정부 내각은,
1) 문화유산 대상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주요 방향을 정하고 시행한다.
2) 문화유산 대상의 보호, 관리, 활용 및 대중화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승인한다.
3) 유형문화유산 및 무형문화유산 국가 목록의 수행과 관리 절차를 규정한다.
4) 기타 권한은 법률에 합당하게 행사한다.

제7조. 문화유산 대상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문화체육부의 권한
우즈베키스탄 문화체육부는,

1) 문화유산 대상의 보호, 관리, 활용과 대중화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참여한다.
2) 문화유산 대상의 발굴, 등록, 보호, 대중화를 진작시킨다.
3)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 국가 목록 작업을 수행한다.
4) 기타 권한은 법률에 합당하게 행사한다.

III. 문화유산 대상의 국가적 보호

제10조. 문화유산 대상 보호에 대한 국가적 보호

문화유산 대상에 대한 국가적 보호는,
1)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대상에 대한 국가적 등록과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 대상 목록의 수행과 관리에 의해서
2) 문화유산 대상에 대한 학술적, 학문-기술적인 연구를 통한 발전을 통해서
3) 문화유산 대상에 대한 역사-문화적인 감정 시행을 통해서
4) 문화유산 대상의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제11조.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 대상에 대한 국가 목록

유형문화유산 대상 국가목록의 수행과 관리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1) 유형문화유산 대상의 소유권과 기타 권리에 대한 국가적 등록
2) 유형문화유산 대상의 질적, 양적인 특징에 대한 등록
3) 유형문화유산 대상에 대한 질적, 가치적 평가
4) 목록 정보의 보관, 복원, 체계화
5) 유형문화유산의 상태에 대한 보고서 작성

무형문화유산 목록은 무형문화유산 대상에 대한 복원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서류이다. 무형문화유산 대상 목록의 수행과 관리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1) 무형문화유산 대상의 실체 확인
2) 무형문화유산 대상의 영역, 장르, 양식과 부문의 특성 파악
3) 무형문화유산 대상을 지속적으로 계승해 나가는 사람들이나 집단에 대한 파악
4) 목록 정보의 보관, 복원, 체계화
5) 무형문화유산의 상태 확인과 그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 대상의 국가 목록을 관리 및 수행하는 절차는 우즈베키스탄 내각에 의해서 결정된다.

제12조. 문화유산 대상의 유형문화유산/무형문화유산 국가 목록 편입

유형문화유산 또는 무형문화유산 국가 목록에 문화유산 대상을 포함 시키는 것은 우즈베키스

탄 문화체육부에 의해서 결정된다.

제13조. 유형문화유산 대상 증명서
유형문화유산 국가목록에 포함된 문화유산에는 유형문화유산 대상 증명서가 부여된다.

IV. 문화유산 대상 보존

제20조. 문화유산 대상의 보존 조치
1) 유형문화유산 대상의 보존 조치는 수리, 복원, 그와 관련된 학술적, 기술적 연구, 프로젝트와 기타 작업을 포함한다.
2) 유형문화유산 대상의 보존 조치는 우즈베키스탄 문화체육부에서 부여되는 허가를 바탕으로 시행된다.

VII. 기타 사항

제34조. 문화유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재정 지원
우즈베키스탄 국가예산과 기타 예산 자금은 문화유산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하기 위한 재정지원 활동의 근원이다.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유산 대상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재정지원은 소유주와 사용자의 부담으로 시행된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이슬람 카리모브
타쉬켄트
2001년 8월 30일/№ 269-II

2. 카자흐스탄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법(발췌본)

→ 카자흐스탄의 경우,
-무형문화유산 혹은 문화유산 법(법령)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나 입수를 하지 못한 관계로 미첨부
-온라인 상에서 부분적으로 검색된 내용을 토대로 볼 때,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주변국가들의 관련법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측

3. 키르기즈스탄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법(발췌본)

(2012년 6월 28일 채택)

본 법은 키르기즈스탄 무형문화유산 요소의 보호 및 활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법규들을 규정한다.

제1조.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및 활용

키르기즈스탄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법률은 키르기즈스탄 헌법, 현행법, 현행법에 따른 기타 법규로 이루어져 있다.

제2조. 무형문화유산의 주요 개념과 용어

본 무형문화유산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념과 용어가 사용된다.

1) 키르기즈스탄의 무형문화유산은 관습, 표현의 형태, 지식과 공예, 이와 관련한 도구, 물건, 인공물과 문화공간이다.

2) 무형문화유산의 요소는 해당 법에서 정의되고, 무형문화유산 요소에 준하는 가치가 큰 대상들이다.

3)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은 문화유산의 확인과 기록, 연구, 보호, 대중화, 공식, 비공식적인 교육을 통한 전수를 통해서 무형문화유산을 지속시켜나가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4) 무형문화유산과 관련 위임받은 국가기관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국가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이다.

5) 키르기즈스탄 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은 무형문화유산 요소들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목록이다.

6) 무형문화유산 요소의 분류는 요소의 범주를 정의하고, 이 요소들을 국가목록에 포함시키는 절차이다.

7) 물질적, 정신적 민족문화 전통을 갖고 있는 “최고보유자”(전수자) 칭호는 문화와 전통의 지식을 가진 보유자에게 주는 명예의 직함이다.

8) ‘서사시’는 옛날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9) ‘구비문학’은 속담, 옛날이야기, 수수께끼, 신화와 전설 등이다.

10) ‘문화공간’은 민족의 유형과 무형문화유산 간을 연결하는 사회-지리적 공간이다.

11) ‘관습’은 오랫동안 지켜지고 재생되는 민족문화의 행동양식, 사회 성원들의 집단경험의 형태이다.

제3조. 무형문화유산의 특성과 종류

1. 무형문화유산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민족예술의 익명성을 갖고 있고, 그것의 보존과 대중화는 전통모델에 기초해서 공동사회에 의해서 실현된다, 2) 주로 구전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민족전통들과 더불어 전수된다, 3) 지역, 민족, 종교, 연령, 성/사회적 직업 등으로 범주가 구분된다....등

2. 무형문화유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구전전통과 표현방법, 2) 키르기스스탄 민족들의 언어들, 3) 키르기스스탄 민족들의 행위예술, 4) 키르기스스탄 민족들의 관습, 의식(儀式), 명절/축제(악기, 대상물, 인공물과 문화공간), 5) 자연/우주와 관련된 지식과 관습, 6) 전통 수공업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 7) 자연 공간과 기념장소(마자르)

제4조. 무형문화유산 법의 목적과 목표
1. 본 법의 목적은 무형문화유산의 소실을 방지하고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경외심을 교육하는데 있다.
2. 본 법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키르기즈스탄 민족들의 문화적 독창성을 결정지어주는 여러 유형과 종류의 전통 민족문화의 보호와 회복, 2)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모든 계층에 제공, 3) 최고 표본의 무형문화유산의 발전과 대중화, 전통 민족문화의 저변 확대, 4) 정신적, 물질적 민족문화 전통의 “최고보유자”들에 대한 지원, 5) 무형문화유산 분야 종사자 및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관계자들의 자질 향상, 6) 무형문화유산의 요소를 보호하는데 법적 보호를 제공, 7)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과 무형문화유산 요소를 인식시키는데 지역적, 민족적,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일

제5조. 무형문화유산 요소의 보호 및 활용
1. 무형문화유산 요소들은 키르기즈스탄의 정신적, 문화적 발전의 목적으로, 그리고학문적, 교육적, 관광 및 탐방의 목적으로 보호되고 활용된다.
2.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및 활용은 그에 상응하는 법률, 과학기술, 행정과 기타 조치를 포함한다. 즉, 이러한 조치들은 다음의 사항들과 관계가 된다.
1) 무형문화유산의 발굴, 연구와 기록, 2) 무형문화유산 요소의 가치를 지정, 3) 무형문화유산 요소의 파괴, 반달리즘, 사기로부터 보호, 4) 무형문화유산 요소의 회복

제6조. 무형문화유산의 국가목록
1. 국가목록은 무형문화유산의 요소의 기록 서류에 근거하여 작성된다.
2. 국가목록은 무형문화유산 요소들에 근거해서 작성되는데, 이때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자나 전문가, 전수공동체,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들의 입회 하에 목록작업의 안이 만들어 진다.
3. 국가목록은 무형문화유산 요소에 대한 주요 정보를 포함하고, 공식적인 국가언어로 전자와 문서 형태로 기록되고 있다.
4. 국가목록은 새로운 무형문화유산의 생성과 관련 키르기즈스탄 정부에 의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작성된다.
5. 무형문화유산의 요소들은 국가목록으로 포함된 순간부터 키르기즈스탄의 국가 소유물이 되며 의무적으로 보호하게 된다.
6. 무형문화유산 요소가 분실이나 파괴가 된 경우에는 국가목록에서 “분실됨”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제7조.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국가기관의 전권

1. 키르기즈스탄 정부는,

1) 정부 기관을 통해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및 활용을 보장하고 제공한다.

2)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따른 국가정책의 실행을 보장하고, 나아가 그에 따른 국가적 전략과 국가예산에서 재정지원하는 것을 승인한다.

3) 무형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조치 계획과 국가적 프로그램을 승인한다.

4) 국가목록과 무형문화유산 요소의 분류에 관한 법령을 승인하다.

2. 위임받은 국가 기관은,

1) 무형문화유산의 요소를 발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2) 무형문화유산의 회복, 활용, 보호, 대중화를 목표로 한 프로젝트를 만든다.

3) 무형문화유산의 요소를 발굴하고 기록하는데 협조한다.

4) 무형문화유산의 여러 요소를 감식(identification)한다.

5) 무형문화유산 요소의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

6) 무형문화유산 요소를 국가목록에 포함시키도록 키르기즈스탄 정부에 제안한다.

7) 무형문화유산의 국가목록 작성을 수행한다.

8) 물질적, 정신적 민족문화전통의 무형문화유산 요소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 국제적 협력체계를 갖춘다.

9) 물질적, 정신적 민족문화 전통의 “최고보유자” 명예칭호를 부여한다.

키르기즈스탄 대통령 아.아탐바예브/

비쉬케크

2012년 8월 9일, №163

4. 러시아 민족들의 문화유산 대상에 관한 연방법령

(2002년 5월 24일 채택)

현 관련 법령은 러시아 민족들의 문화유산 대상의 보호, 활용, 대중화 및 보존 시에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들을 조정하는데 주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 러시아 민족들의 문화유산은 (역사와 문화 기념물) 러시아 모든 민족들에 있어서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세계문화유산의 일부분이다. 문화유산의 국가보존은 러시아 정부기관, 자치구기관, 지역정부기관의 최우선 과업 중의 하나이다.

I. 일반 규정

제1조. 현 법령의 규제(권한) 대상

1) 러시아의 민족들의 문화유산(역사와 문화 기념물)을 보존, 활용 및 대중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들(상황들);
2) 특이한 부동산의 형태로서 문화유산을 활용 및 소유하는 문제;
3) 러시아 민족들의 문화유산 대상에 대한 국가목록을 운영 및 구성하는 절차;
4) 러시아의 민족들의 문화유산 대상의 국가적 보호에 대한 공동의 원칙들

제2조. 문화유산의 보존, 활용과 대중화, 국가적 보호에 있어서 발생하는 관계의 법적 조정(규제)

1) 문화유산의 보존, 활용과 대중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를 법적 규제하는 것은 러시아의 헌법, 민법, 문화 관련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
2) 문화유산의 보존, 활용과 유지 때 발생하는 토지 이용과 도시 계획과 관련된 관계는 러시아의 토지법에 근거하여 규제된다.
3) 문화유산의 보존, 활용과 유지 때 발생하는 재산관계는 러시아의 민법에 근거하여 규제된다.

제3조. 문화유산의 대상

문화유산 대상은 유형 문화유산과 무형 문화유산의 대상을 의미한다. 유형문화유산의 대상은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또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앙상블, 명승지와 기념물 등을 의미한다. 무형문화유산 대상은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또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관습, 민속예술(서사시, 춤, 음악, 공연, 문학),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지식, 도구, 악기, 문화 공간, 인공물을 말한다.

1) 기념물

회화, 건축작품, 조형물들과 관련이 있는 건물들, 기념건물이나 아파트, 공동묘지, 따로 떨어진 매장지들, 학문과 기술 대상물(군사 포함), 인류학, 민족지학, 고전학, 지도제작과 금석학에 관련된 자료, 사진, 영화, 녹음과 동영상, 문학과 공예품, 고문서의 육필로 된 그래픽 자료들, 원서, 간행본, 골동품과 귀서, 암각화, 조각 등, 가치를 갖고 있는 고대 기념물을 말한다.

2) 앙상블
역사적 지역에 위치한 외떨어지거나 통일된 행정, 종교, 과학, 교육, 무역, 생산, 궁전과 조각, 건축학, 회화예술을 위하여 사용했던 건축물들의 그룹들을 말한다.

3) 명승지
자연과 인간의 공동의 창작물들, 역사적, 고고학적, 도시건축학적, 미학적, 인류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민간 수공업 산지나 역사적인 주거지 및 도시건축물 포함), 역사적 사건들(전쟁 포함)나 기념비, 역사 속의 유명인물과 관련된 기념장소나 자연경관지를 뜻한다.

제4조. 문화유산 범주
1) 연방 차원의 문화유산 대상들은 러시아 국가의 역사와 문화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학문, 예술, 건축 등의 여러 분야에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다.
2) 지방과 지역 차원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 문화유산 대상들은 러시아 자치지구와 지방의 역사와 문화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학문, 예술, 건축 등의 여러 분야에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다.

II. 문화유산 요소의 유지, 활용, 대중화와 국가의 보호에 관한 러시아의 정부기관, 자치구 기관, 지방기관의 전권(권한)

제9조. 문화유산 요소의 보호, 활용과 대중화에 관한 연방 정부기관의 전권(권한)

연방정부기관은,
1) 문화유산 요소의 보호에 있어서 통일된 투자정책을 시행한다.
2) 문화유산 요소의 보호, 활용과 대중화에 관한 프로그램을 진행시킨다.
3) 문화유산 요소를 보호, 활용과 대중화에 관한 정책을 결정한다.
4) 국유의 문화유산 요소를 보존, 활용 및 대중화한다.
5) 문화유산 요소의 보호와 관련된 연방기관의 활동을 규정한다.
6) 문화유산 목록을 정리 및 절차를 결정한다.
7) 러시아 민족들의 문화유산 요소(역사와 문화의 기념물)의 상태에 대해 매해 보고서를 준비시킨다.
8) 러시아연방의 역사적, 문화적인 중요한 의미를 지닌 역사 거주지의 목록을 결정한다.

III장. 문화유산의 보존, 대중화와 국가 보존을 위한 자금조달

제13조. 문화유산의 보존, 대중화와 국가 보존을 위한 재정 원천

1. 문화유산의 유지, 대중화와 국가 보존을 위한 재정원천은 러시아 연방 예산, 러시아연방 자치구의 예산, 지방 예산이다.

IV장. 러시아 민족들의 통일된 문화유산(역사와 문화의 기념물) 국가목록과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지닌 대상의 국가기록

제15조. 러시아 민족들의 통일된 문화유산(역사와 문화의 기념물) 국가목록

1. 러시아연방에는 문화유산 대상에 관한 정보를 가진 문화유산 대상 국가목록이 있다.
2. 목록은 국가정보시스템이다.
3. 목록에 실린 정보는 문화유산 대상과 그의 지역에 대한 정보의 중요한 원천이다.
4. 러시아 민족들의 통일된 문화유산(역사와 문화의 기념물) 국가목록에 대한 법령은 러시아 정부에서 위임 받은 연방정부기관으로 결정한다.

제17조 문화유산 대상의 목록화 과정에 필요한 서류

문화유산 대상을 목록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러시아 정부 또는 러시아 자치구 정부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한다.
1) 신청서;
2) 문화유산 대상명에 관한 정보;
3) 대상의 발생 날 또는 설립 날에 관한 정보, 대상과 관계가 있는 역사 사건에 대한 정보;
4) 대상 위치에 관한 정보;
5) 대상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에 대한 가치 정보;
6) 대상의 종류(유형)에 관한 정보;
7) 목록화의 당위성을 말해주는 대상의 특성에 대한 정보;
8) 물체의 사진;
9) 문화유산의 사용자 또는 주인(소유자)에 관한 정보;
10) 대상이 위치한 땅(공간)의 사용자와 주인에 관한 정보

제18조. 문화유산 대상을 목록에 포함 시키는 절차

1. 문화유산 대상의 보존과 관련된 연방기관과 집행권을 가진 자치구기관들은 역사, 건축, 고고학, 도시 계획, 예술, 과학, 기술, 미학적 입장에서 가치가 있고, 목록에 포함시키기 위해 추천을 받은 대상의 기록과 관련된 일을 수행한다.

2.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대상들에 관한 정보는 특별한 서류에 기록한다. 관련된 서류 목록과 양식, 이 양식의 작성에 따른 추천은 통일된 국가목록 관한 법령으로 결정된다. 이 서류들도 목록의 부분이고 무기한으로 서류들을 보존해야 한다.
3. 문화유산 대상의 보존과 관련된 기관은 7일 이내 문화유산 대상의 사용자 또는 주인(소유자)에게 관련된 기관으로 제17조에서 제시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서면통지를 보낸다.
4. 관련 기관은 문화유산 대상의 사용자 또는 주인(소유자)에게 러시아 자치구 정부기관의 결정과 문화유산 대상을 국가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러시아연방 정부의 결정을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한다.

제19조. 문화유산 물대상의 목록 포함에 관한 결정 기간

문화유산 대상의 목록 포함, 혹은 포함 거부에 관한 결정은 러시아정부, 또는 자치구정부가 하며, 제17조에서 제시된 서류를 받은 날짜부터 1년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제20조. 목록 작업

1. 문화유산 대상에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러시아 민족들의 통일된 문화유산(역사와 문화기념물) 국가목록에 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러시아 연방 대통령, V.Putin
모스크바, 크레믈린
2002년 6월 25일(N 73-ФЗ)

Ⅶ. 기타 부록(학술회의 관련 언론보도기사)

<u><2012년 11월 16일> 연합뉴스</u>

"중앙亞 고려인 무형문화유산 자료 수집 서둘러야"(종합)

재외한인학회 회장에 임영상 교수

(서울=연합뉴스) 지난 23일 재외한인학회 총회에서 제13대 회장에 선임된 임영상 한국외국어대 사학과·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임 교수는 23일 '대중문화 중심의 한류를 넘어 재외동포 사회가 간직해 온 우리 전통문화를 되살리면 '신(新)한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2010.12.23 << 임 교수 제공 >> kjw@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150년의 이민 역사를 지닌 중앙아시아 거주 고려인의 무형문화유산을 하루빨리 수집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외국어대 임영상 교수(사학과)는 16일 오후 서울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문화재청 주최로 열린 '독립국가연합(CIS) 고려인 공동체 무형유산 전승실태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고려인의 예술과 생활양식 등의 자료 수집 작업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국외대 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장인 그는 올해 문화재청(청장 김 찬) 후원으로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과 함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에서 고려인 무형문화유산 조사연구를 수행했다.

임 교수는 '고려인 사회의 전통공연예술:고려극장과 소인예술단'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1990년 9월 한·소 수교 후 중앙아시아와 교류협력이 이뤄져왔으나 고려인 생활문화 관련 자료 수집이 아직도 미미하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보존해야 할 고려인의 대표적인 예술활동으로 해외 전승 한민족 무형유산의 정수인 80년 역사의 고려극장과 수많은 배우·극작가를 배출해온 소인예술단(素人藝術團)을 꼽았다.

1860년대부터 두만강 건너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고려인들은 소련 스탈린 정권의 정책에 따라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당했다. 카자흐스탄 국립 고려극장은 1933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창립됐다가 고려인 강제이주와 함께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옮겨 지금까지 우리말 전통공연을 펼치고 있다. 소인예술단의 소인은 아마추어를 이르는 말이다.

임 교수는 고령의 소인예술단원 인터뷰와 함께 1938년 카자흐스탄에서 창간된 뒤 옛 소련 전역에 배포된 한글신문 레닌기치(Lenin旗幟·91년 5월 '고려일보'로 개칭)의 데이터베이스(DB)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례식 때 망자의 유품을 매장하거나 태우는 고려인의 풍습을 고려하면 문화예술인들의 구술자료와 개인 소장품 등을 조속히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이복규 교수(서경대)는 '중앙아 고려인 구전설화 수집 성과'란 논문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수집한 고려인 구전설화 147편을 살펴본 결과 이들이 한반도를 떠나 살아온 까닭에 한반도 지명 전설이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바르고 그르기[善惡]' 유형의 설화는 한반도 구전설화와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 한민족 가치관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한반도 자료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한민족 간 문화교류와 통합의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카자흐·키르기스스탄 고려인 사회와 무형문화유산'란 제목으로 발표에 나선 이병조(한국외대)·강현모(한남대) 교수는 카자흐(294편), 키르기스(256편)의 무형문화유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신앙은 변형됐지만 고려인들이 새로운 환경과 소비에트 사회 체제 안에서도 민족문화유산을 나름대로 유지해온 것으로 평가했다.

가수 왕수복의 '아리랑' 독창

(서울=연합뉴스) 북한 공연예술단이 1955년 9월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오페라극장에서 열린 공연 실황을 담은 영상 자료가 발굴됐다. 사진은 평양 기생학교 출신의 신민요 가수 왕수복이 '아리랑'을 부르는 장면. 2012.11.16. <<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 photo@yna.co.kr

이병조·안상경 교수(충북대)팀은 '우즈벡·러시아 고려인 사회와 무형문화유산'란 제목의 논문에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사할린의 한인사회에 삼신(三神)신앙 등 전통문화의 흔적이 남아 있고 무속신앙까지 전승돼왔다"고 소개했다.

이·안 교수팀은 "이제는 감성적 차원에서 고려인과 한인이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에만 관심을 둘 게 아니라 객관적 차원에서 그들의 삶의 바탕에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실체를 파악하고 보존·계승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부 종합토론 순서에서는 고려인 사회 무형문화유산의 수집 및 활용 방안을 놓고 이진원(한국예술종합학교), 허용호(동국대), 장경희(한서대) 교수 등이 토론을 펼쳤다.

이 교수는 "고려인 사회는 북한과 중국의 영향에 이어 서울올림픽 이후 남한의 영향도 받게 됨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무형문화유산을 지니고 있다"면서 "고령 인구 감소와 해외 이주 등으로 고려인 사회가 붕괴 위기에 놓인 만큼 신속하고도 체계적으로 문화유산 조사·수집작업을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레닌기치
ЛЕНИН КИЧИ
오늘호의 중요기사
우리 조국의 각처에서

소인예술단 중앙亞 공연보도한 고려신문 레닌기치

공예 전문가인 장 교수는 "무형문화유산 조사에 치중하다 보니 현지 고려인들의 유형문화인 공예 등에 대한 조사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무형문화의 흔적이 남은 유형문화에서 무형의 가치를 찾아내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논문 발표와 토론에 앞서 문화재청은 북한 공연예술단이 1955년 9월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오페라극장에서 공연한 실황 영상필름을 공개했다.

당시 북한 공연예술의 수준과 카자흐 고려인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이 영상은 임 교수팀이 2007년 카자흐 국립영상물기록보관소에서 찾아냈으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보관해왔다.

duckhw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11/16 15:42 송고

<2012년 11월 15일 연합뉴스>

<최승희 딸 장구춤 등 미공개 北 영상자료 발굴>

가수 왕수복의 '아리랑' 독창

외대 임영상 교수팀 카자흐 영상물보관소에서 찾아내

"50년대 北 공연예술 수준 보여주는 중요 자료"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월북 무용수 최승희의 딸인 안성희의 장구춤과 가수 왕수복의 '아리랑' 독창 등 1950년대 북한 공연예술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영상자료가 나와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외국어대 임영상 교수(사학과)는 북한 공연예술단이 1955년 9월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오페라극장에서 펼친 공연 실황 영상필름을 2007년 카자흐 국립영상물기록보관소에서 찾아내 국사편찬위원회에 보관해왔으며 16일 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문화재청의 후원으로 한국외대 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센터장 임영상)와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이 수행한 조사연구 결과는 16일 오후 1시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열리는 '독립국가연합(CIS) 고려인 공동체 무형유산 전승실태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공개된다.

구소련 시기 북한 공연예술단의 중앙아시아 순회 공연물로 추정되는 4분 분량의 '아리랑' 영상은 그동안 단편적으로 소개됐거나 기록만으로 전해진 '장구춤의 달인' 안성희, 장검무의 나숙희, 일제 강점기 조선을 신민요로 사로잡은 왕수복의 공연 모습을 눈으로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무용 전문가인 이진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는 "무형문화유산 전통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클 뿐 아니라 주체철학이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전인 50~60년대 북한 공연예술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승희 제자의 영상은 그동안 많이 발굴됐지만 딸 등 아래 세대로 이어지는 전승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은 거의 없었다.

이 교수는 "북한 민속성악을 발전시킨 왕수복의 공연 실황을 보면 당시만 해도 남한과 북한의 민요 창법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며 "남북 분단 후 북한 공연예술의 변화 과정도 추정케 해준다"고 평가했다.

고려인의 풍소 연주 영상도 희귀한 자료로 꼽힌다. 풍소는 전 세계에 퍼진 한민족을 잇는 중요한 상징이기도 하다. 이 교수에 따르면 풍소의 본고장인 함경도 지역에서 시나위의 맥이 끊어져 북한 풍소 음악 전통의 전승 현황을 알기 어려웠다.

이 영상 자료는 북한 체제하에서 합경도 풍소 음악이 어떻게 변형됐는지를 보여주므로 학술적 가치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합경도 풍소 음악이 중국의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나 고려인 사회에 보급돼 나름대로 변화 발전을 겪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탈북 인무가인 김영순(75) 최승희 무용연구원장은 "안성희가 어머니에게 춤을 배운 뒤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발레무용대학으로 유학을 떠났으며 귀국 후 러시아 '접시춤'을 전영마(옛 이름 전영자·75)에게 전수했다"고 설명했다.

최승희 딸 안성희의 장구춤

안성희는 1967년 최승희가 돌연 숙청되자 곧바로 오빠(또는 남동생)와 함께 자취를 감춘 이래 누구도 행방을 알지 못했다고 김 원장은 밝혔다.

나숙희는 청도성 예술단 소속 안무가였으며 남편은 국립예술극장 성악가였다고 김 원장은 소개했다.

평양 기생학교 출신인 왕수복(1917~2003)은 신민요 가수이자 메조소프라노로 활동했다. 1935년 '삼천리'가 실시한 인기투표에서 선우일선, 이난영에 앞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1959년 북한 공훈배우 칭호를 받았고 현재 애국 열사릉에 묻혀 있다.

한편 'CIS 고려인 공동체 무형유산 전승실태 연구성과 발표회' 1부(학술발표)에서는 임 교수가 '고려인 사회의 전통공연예술: 고려극장과 소인예술단', 이복규 교수(서경대)는 '중앙아 고려인 구전설화 수집 성과'란 제목으로 각각 발표한다.

이병조 교수(한국외대)는 강현모 교수(한남대)와 '카자흐·키르기스스탄 고려인 사회와 무형문화유산'을 소개한 뒤 안상경 교수(충북대)와도 '우즈벡·러시아 고려인 사회와 무형문화유산'을 발표한다.

2부(종합토론)에서는 '고려인 사회 무형문화유산,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할 것인가'란 주제 아래 이진원(한국예술종합학교), 허용호(동국대), 장경희(한서대) 교수 등이 토론을 펼친다.

<2012년 11월 16일 문화일보>

최승희 딸 안성희 장구춤 영상 첫 공개

1955년 카자흐스탄 공연 장면… 가수 왕수복 '아리랑' 독창도

월북한 전설적인 무용가 최승희(1911~1969)의 딸인 안성희의 장구춤 등 1950년대 북한 공연예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영상자료가 발굴돼 16일 공개된다. 북한 공연예술단이 1955년 9월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오페라극장에서 펼친 공연 실황 영상에는 안성희 외에도 평양 기생출신 가수 왕수복(1917~2003)의 '아리랑' 독창과 나숙희의 장검무 공연 모습 등이 담겨 있다. 그동안 최승희 제자의 영상은 많이 발굴됐지만 딸 안성희와 일제강점기 신민요 가수로 인기를 끈 왕수복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실황을 보여주는 영상은 거의 없었다.

총 9분 분량의 알마티 오페라극장 공연 실황 영상은 임영상(사학) 한국외대 교수 겸 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장이 지난 2007년 카자흐스탄 국립영상물기록보관소에서 발굴했다.

문화재청이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효자로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개최하는 '독립국가연합(CIS) 고려인 공동체 무형유산 전승실태 연구 성과 발표회'에 앞서 공개될 알마티 오페라극장 공연 실황은 서커스 장면 등을 엮어내고 4분 분량으로 재편집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발표회에서는 1960, 1970년대 카자흐스탄 고려극장 '아리랑 가무단'의 공연 영상자료도 소개된다.

최승희와 안막(1910~?) 사이에서 태어난 안성희는 어머니인 최승희에게서 춤을 배운 뒤 러시아 모스크바로 발레 유학을 떠났으며 '장구춤의 달인'이었다는 기록 등이 전한다. 안성희는 1967년 최승희가 숙청되자 자취를 감춰 누구도 행방을 알지 못한다.

평양 기생학교 출신인 왕수복은 1935년 잡지 '삼천리'가 실시한 인기투표에서 선우일선과 이난영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던 인물이다. 소설가 이효석의 연인이었던 왕수복은 시인 노천명의 악흥자였던 경제학자 김광진과 결혼한 뒤 함께 월북해 1959년 북한 공훈배우 칭호를 받았다. 현재는 북한의 국립묘지 격인 애국열사릉에 묻혀 있다.

최영창 기자 ycchoi@munhwa.com

<2012년 11월 16일 조선일보>

문화 ▾
종합

'가수왕' 왕수복, 아리랑 독창 영상 첫 공개

김기철 기자

기사 | 100자평(0)

입력 : 2012.11.16 03:03 | 수정 : 2012.11.16 11:48

1955년 카자흐스탄 알마티 북한예술단 순회 공연
가난 때문에 기생이 된 그녀 16살때 낸 음반 120만장 팔려
1950년대 고복수보다 높은 인기… 미효석 연인으로 일종 지키기도
최승희 딸 안성희 모습도 담겨

▲ 왕수복이 1955년 9월 알마티 오페라극장에서 아리랑을 부르는 모습(위). 아래는 최승희 딸 안성희가 장구춤을 추는 장면. /문화재청 제공

평안도 화전민의 딸로 태어난 왕수복은 10대 초반 먹고살기 위해 평양 권번 기생학교에 들어갔다. 하지만 열여섯이던 1933년 취입한 레코드가 120만장이 팔리면서 당대 최고 스타 가수로 떠오른다. 맑고 고운 서양식 창법으로 부른 '아리랑'은 경성 방송국 전파를 타고 일본까지 방송돼 분해한 양쪽에서 '아리랑' 대표가수로도 널리 알려졌다. 해방 이후엔 북한에서 인민음악 발전의 주역으로 활동하면서 남쪽에선 유성기 음반을 통해 목소리만 전해졌다.

'일제강점기 가수왕' 왕수복(1917~2003)이 1955년 9월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북한 공연예술단의 일원으로 아리랑을 독창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왕수복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실황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임열상 한국외대 교수가 카자흐스탄 국립영상물기록보존소에서 발굴한 이 영상은 9분 분량으로 알마티 오페라극장 공연 실황을 기록한 것이다.

왕수복은 가야금과 해금 반주에 맞춰 서양식 창법으로 아리랑을 노래하고 있다. 이진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왕수복은 일제강점기 신(新)민요로 대중을 사로잡은 가수였지만, 무대에서 실제로 어떻게 공연했는지는 영상이 없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평양기생 출신 왕수복은 대중문화가 유행하기 시작한 1930년대 조선의 스타였다. 경성방송국은 1934년 왕수복을 출연시켜, '목반을 들려가는 구슬 소리가티 맑고도 아름다운 조선 아가씨의 귀여운 노래가락'(조선일보 1934년 1월 8일자)을 일본에까지 내보냈다. 1935년 잡지 '삼천리'의 남녀가수 인기투표에서 왕수복은 고복수·이난영을 제치고 전체 1위를 차지할 정도였다.

▲ 평양기생 출신 가수왕 왕수복이 담긴 영상. 왕수복이 부른 아리랑은 일제강점기 경성방송국 전파를 타고 국내는 물론 일본까지 방송됐다.

왕수복은 인기에 안주하지 않았다. 1936년 기생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일본 유학을 떠나 이탈리아 성악가로부터 성악을 배우고 메조소프라노로 활동했다. 극악 평론가 윤종강씨는 "왕수복은 '최승희가 조선의 무용을 살린 것처럼, 나는 조선의 민요를 살리고 싶다'고 말할 만큼 치열하게 경쟁했다"고 했다.

연애도 떠들썩하게 했다. 소설가 이효석의 연인으로 2년여 사귀며 그의 임종을 지켰고, 1947년 시인 노천명 악혼자였던 김광진 보성전문학교 교수와 결혼했다. 월북한 김광진은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2003년 세상을 떠난 왕수복은 북한의 국립묘지 격인 애국열사릉에 묻혔다. 왕수복은 남쪽에선 잊힌 스타였으나, 2006년 '평양기생 왕수복, 10대 가수 여왕 되다' 등 그의 일생을 다룬 책이 출간되면서 이름을 널리 알렸다.

북한 공연예술단 영상엔 북한의 전설적 무용가 최승희의 딸 안성희가 장구춤을 추는 장면도 포함돼 있다. 안성희가 1955년 북한 공연예술단 대표로 소련을 순회했다는 것은 최승희 측이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게승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왕수복과 안성희의 공연 영상은 문화재청이 16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여는 'CIS 고려인 공동체 무형유산전승실태 심과 발표회'에서 소개된다. (042)481-4988

<2012년 11월 19일 서울신문>

1930년대 서양식 창법으로 '아리랑'을 불렀던 가수 故왕수복의 모습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지난 16일 문화재청이 공개한 이 영상은 남북이 나뉘면서 월북했던 그녀가 1955년 북한예술단 소속으로 카자흐스탄을 찾았을 때의 공연장면을 촬영 한 것입니다. 평양 기생 출신의 가수 왕수복은 10대 중반이던 1933년에 '울지 말아요'와 '한탄' 등을 취입하면서 최초의 기생 출신 대중가요 가수가 됐습니다.

'유행가의 여왕'으로 불리며 인기 정상에 있던 1936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개인 교습으로 서양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이후 메조소프라노 가수로 변신하여 주로 조선 민요를 서양 성악 창법으로 불렀습니다. 왕수복은 우리에게는 낯선 이름이지만 1935년 대중잡지 '삼천리'가 실시한 인기투표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당시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스타였습니다. 소설가 이효석과 사귀며 입종을 지켰고, 시인 노천명의 애인을 빼앗는 등 숱한 화제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 자료는 북한과 소련 그리고 또 북한의 예술이 중앙아시 고려인 사회에 어떻게 연결되고, 들어갔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증거 자료가 됩니다." [임영상/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교수]

한국외국어대 임영상 교수팀에 의해 카자흐스탄 기록보관소에서 우연히 발견된 이번 영상에는 전설적인 무용가 최승희의 딸 안성희가 장구춤을 추는 모습과 나승희의 현란한 장검무도 담겨 있습니다. 서울신문 설민수입니다.

글 / 설민수PD globalsms@seoul.co.kr

편집 / 장고봉PD goboy@seoul.co.kr

2012-11-19

<연합뉴스 방송 동영상, 2012년 11월 16일>

<SBSTV 방송 동영상, 2012년 11월 16일>

김효석·노천명 울린 '조선 女스타' 육성 공개

조선 가수왕 왕수복 아리랑 첫 발견

<앵커>

카자흐스탄의 한 기록보관소에서 우리나라 민요 아리랑이 발견됐습니다. 1930년대 가수왕으로 불렸던 고 왕수복 씨의 아리랑입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평양 기생 출신의 가수 왕수복은 1930년대의 가수왕이었습니다.
소설가 이효석과 사귀며 임종을 지켰고, 시인 노천명의 애인을 빼앗는 등 숱한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던 그녀는 잡지사에서 실시한 인기투표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당대 최고의 스타 가수였습니다.
남북이 갈리며 월북했던 그녀가 1955년 북한예술단 소속으로 카자흐스탄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부른 노래는 '아리랑', 서양식 창법으로 신민요를 불렀던 왕수복의 육성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진원/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왕수복이 부르는 아리랑은 신민요적인 발성, 세태를 풍자하거나 그리고 조국 산천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거나 그런 아주 특징적인 느낌이 있는 음악이거든요.]
카자흐스탄의 기록보관소에서 우연히 발견된 이번 영상에는 전설적인 무용가 최승희의 딸 안성희가 장구춤을 추는 모습과 나숙희의 현란한 장검무도 담겨 있습니다.
1950년대 북한 공연예술의 진수가 담겨 있는 이 영상은 문화재청이 고증 작업을 거쳐 오늘(16일) 학술발표회에서 공개했습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박선수)